

민원서신에 비친

# 통일논의 관련 참고자료 (I)

통일원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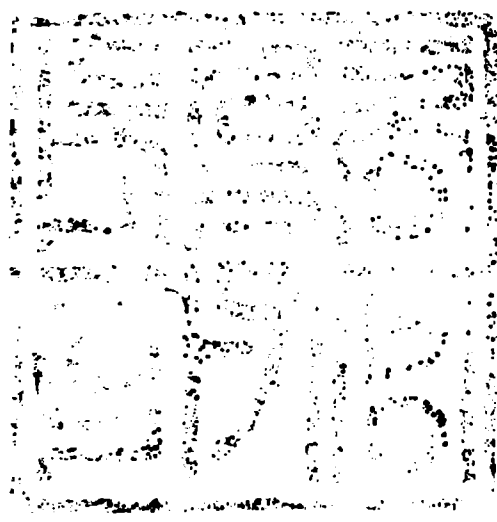


2. 3. 4.

5. 6. 7.

8.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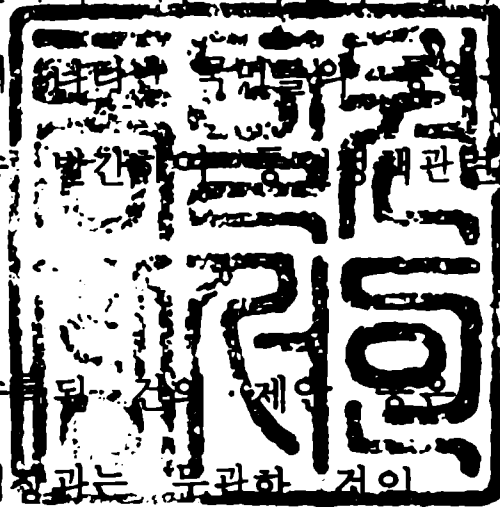
12.

13.

■ 본 책자는 1989년 8월 통일정책실이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접수된 수백여건의 통일문제관련 민원서신 중에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36건을 골라 이를 원문 그대로 수록한 것임.

■ 당실은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의 확충을 위해 민원서신에 나타난 국민들의 통일논의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계속 발간하여 통일정책관련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임.

■ 본 책자에 수록된 건의 제안 등은 민원인들의 의견일 뿐 당원의 입장과는 무관한 것이



1991. 2.

통 일 정 책 실



# 목 차

1. 「 평화통일 남북한 공동추진위원회 」 구성제의 .....	정 도 빈 / 1
2. 이념통일을 위한 건의서 .....	박 상 익 / 4
3. 통일을 위한 중국교포 참여 유도 .....	조 정 호 / 10
4. 대동보수찬(大同譜修纂)에 의한 통일을 청원함 .....	김 기 병 / 12
5. 민족통일방안 .....	김 남 회 / 15
6.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전략 건의 .....	정 차 남 / 30
7. 이산가족 상호방문요청 .....	전 대 익 / 32
8. 동족성 회복 방안 .....	이 교 학 / 34
9. 통일방안 건의문 .....	채 몽 물 / 35
10. 민족단합의 구심점과 평화통일을 위한 건의문 .....	김 종 인 / 48
11.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규책하며 통일방안에 첨제한다 .....	최 종 성 / 56
12. 김일성 신년사와 문목사 “방북”에 관련한 견해 .....	박 찬 용 / 60
13. 민족정신 통일과 조국통일에 대한 제언 .....	이 형 후 / 77
14. 연변을 통한 문화적·학문적 교류를 요청함 .....	오 석 근 / 91
15. 평화시 설치구상에 관한 제언 .....	이 재 철 / 94
16. 통일조국의 땅투기 대책 .....	오 상 현 / 99
17. 평화통일방안 건의 .....	윤 태 현 / 102

18.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통일을 위한 건의의 일	..... 평화·군축협의회 / 103
19. 남북한 상호개방 문제에 대한 소견 ... 강 진 석 / 111	
20. 정부주도 단일창구 통일정책을 강력히 요청함	..... 김 재 두 / 113
21. 통일범국민위원회 신설 .....	강 불 임 / 115
22. 남북통일을 위한 제언 .....	허 영 재 / 116
23. 남북한 통일에 대한 건의 .....	광 복 회 / 121
24. 북한방문의 개방화 .....	이 근 범 / 125
25. 통일 정신운동 추진요청 .....	조 병 헌 / 127
26. 반공법 폐지 및 방북인사 석방요청 ... 최 억 수 / 129	
27. 민족통일과 세계대평화 창출을 위한 소고 (원효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그 수용방안)	..... 김 청 안 / 132
28. 통일정신과 통일에 관한 수칙 제정.....	정 진 형 / 145
29. 통일을 위한 긴급건의 .....	김 상 구 / 148
30. 선내치 후통일 논의 .....	김 기 룡 / 151
31. 제3차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 154
32. 통일의 길 .....	황 원 섭 / 157
33. 주체성 회복이 통일의 지름길 .....	이 호 길 / 182
34. 통일정책의 활성화방안 .....	김 귀 덕 / 190
35.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용어 선택... 정 흥 회 / 195	
36. 보신각종을 울려 통일의식을 제고하자	..... 박 성 도 / 200

# 「평화통일 남북한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제의

정 도 빈 (전북 정읍군 고부면 고부리)

저는 월남 참전 전상용사 6급 국가유공자 입니다.

국가 보훈 시혜를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다시 애국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월남 참전시 현 육군 참모총장님을 중대장님으로 모셨던 사람으로서 항상 영광으로 알며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저의 구상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음 글월을 올립니다.

“ 평화통일 남북한 공동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

통일은 우리국민은 물론이려니와 해외동포, 북한동포, 7천만 우리겨레 모두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분들이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좀더 빨리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통일 남북한 공동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남북대화 창구를 단일화 하며, 통일 논의의 혼선을 방지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해서 알차고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어 하루라도 빨리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1. 명칭은 평화통일 공동추진위원회라 한다.
2. 본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하에 적정수를 선출한다.



3. 본 추진위원회는 남북한 당국외에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4. 본 추진위원회는 남북한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며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5. 본 추진위원회는 매월 한번씩 모임을 갖고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다음 회의에 추진해야 할 의제를 논의한다.
  6. 남북한 당국은 서로의 양보를 미덕으로 알고, 매월 한가지 이상 상대방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단,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일부부터 시작함을 전제로 한다)
  7. 장소는 비무장지대안에 남북한 공동관리구역을 만들어 이곳에서 모임을 갖는다.
  8. 남북한 공동관리 구역의 경계 임무는 초소마다 남북한 군인 1명씩, 2인 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믿음을 가지고 평화통일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9. 남북공동관리지역 안에 별도의 각종 위락시설을 하여 쌍방향의 하에 각계각층의 일정인원을 차출하여 관광·휴양케 하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여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데 남과 북의 얼키고 설킨 매듭을 한매듭씩 풀어가면 통일의 그날은 꼭 오고야 말것입니다.
- ※ 끝으로 안정속에서 평화통일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므로 반국가 사범은 엄단하여 국기를 확립하고 위엄을 보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무더운 삼복에 아무쪼록 건강에 유념  
하시길 손모아 빌며 국정을 충실히 수행하시어 살기좋은 우리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89. 8. 9

# 이념통일을 위한 건의서

박 상 익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尊敬하는 大統領閣下 그리고 國土統一院長官님

自主的 平和統一을 爲하여 獻身盡力하시는 閣下와 長官님께 眞心으로 敬意를 表하나이다.

小生은 天道教 第四世 大道主이신 春庵上師(朴寅浩)의 門下生으로 오직 輔國安民, 廣濟蒼生의 一念으로 道를 지켜온 正統淵源 教人으로 憂國之心에서 統一政策에 對한 正統淵源의 立場을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먼저 人乃天을 宗旨로 하고 있는 天道教의 體와 아울러 小生이 所屬되어 있는 正統淵源부터 紹介합니다.

天道教 第一世教祖이신 水雲大神師(崔濟愚)는 庚申 四月 五日 身多戰寒 外有接靈之氣 內有降話之教 視之不見 聽之不聞 心尙怪訝 修心正氣 而問曰 “吾心即汝心也 人何知之 知天地 而無知鬼神 鬼神者吾也及汝無弓無弓之道 修而煉之 制其文教人 正其法布德 則 令汝長生 昭然于天下矣”란 得道를 通하여 今不聞古不聞 今不此古不此의 無極大道를 받아 道를 誕生시켰습니다.

水雲大神師는 第二世教祖이신 海月神師(崔時亨)에게 守心正氣 하라 하시고 吾心即汝心の 心法으로 이 無極大道를 傳授하셨습니다.

海月神師는 第三世教祖이신 義庵聖師(孫秉熙)에게 物物天 事事天 以天食天 事人如天을 말씀하시고 用時用活의 說法으로 이

吾心即汝心の 心法을 傳授하시어 道를 發展시켰습니다.

義庵聖師는 第四世大道主이신 春庵上師(朴寅浩)에게 天地萬物이 다 大神師의 性靈 아님이 없고 萬物の 靈長인 사람이 곧 神이라는 人乃天을 말씀하시며 性靈出世의 說法으로 吾心即汝心の 心法을 傳授하시어 道를 굳게하여 人乃天 宗旨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春庵上師는 一般敎人에게 네몸에 모신 汗을님을 찾아서 汗을님 노릇하라 하시고 “거짓말에 죽고 참말에 산다”는 說法으로 吾心即汝心の 宗門心法을 一個人에게 傳하지 않고 一般敎人에게 傳授하시고 內外的으로 어려운 時期에 修道煉性을 통하여 오직 “참”으로서 道를 지키셨습니다.

이에 우리 一般敎人들은 네분 스승님의 說法과 宗門心法을 받들고자 네분 스승님 前에 直接 入敎함으로써 宗統을 바르게 繼承하고 吾心即汝心の 宗門心法을 直接받아 “大神師의 吾心即汝心, 海月神師의 用時用活, 義庵上師의 거짓말에 죽고 참말에 산다”는 說法을 體로 하여 各自爲心을 吾心即汝心으로 解脫하였습니다.

吾心即汝心の 心法으로 同歸一體하여 對立과 分裂 시기와 갈등에서 오직 “참”을 지켜나가는 敎人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正統淵源인 것입니다.

大統領閣下 그리고 長官님

正統淵源에 對한 理解를 돕기 爲해 그동안 天道敎에서 이북해온 업적에 對해서 簡略하게 說明드리고자 합니다.

네분 스승님들은 憂國之心에서 輔國安民 廣濟蒼生을 爲해 甲午革命運動, 甲申革新運動, 三一國權回受運動, 戊寅滅倭祈禱運動 등을 展開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還元以後 오랫동안 外部에 壓迫과 內紛으로 各自爲心에 사로잡혀 教會가 침체되어 오던중 스승님들의 뜻을 바르게 體行하고자 同歸一體를 目的으로 兩大矛盾體制를 超克하기 爲한 乙卯統一運動(1975年)을 展開하여 그 脈을 잇게 되었습니다.

正統淵源에서는 天師님의 뜻을 받들어 그 後로도 宗教統一宣言에서 國教樹立運動, 同歸一體宣言, 正統宣言, 民族生存을 爲한 宣言, 거짓말에 죽고 참말에 산다, 後天開關說 등으로 그 脈을 이어 現在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脈을 이어 오직 “참”을 지켜나가는 正統淵源은 于先 大統領閣下와 長官님께 世界統一을 主導할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임을 말씀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世界統一의 方案에 對한 意見을 提示하고자 합니다.

大統領閣下 그리고 長官님

世界統一의 聖業을 成就하기 爲해서는 理念統一 即 神에 對한 價値觀의 統一로 宗教를 統一하고 主教를 樹立하여 教政一致로 나가야 합니다.

이를 爲해서는 먼저 神과 人이 하나(即人乃天)임을 全人類가 깨달아야 합니다.

人間社會에 構築되어 있는 神人分離의 理念과 思想에서 各自爲心을 解脫하여 神이 理와 氣의 陰陽 두 因子를 妙合시키고 凝結시켜 神의 自己展開와 自己運動으로 나타나는 것이 萬物이며 人間임을 깨닫게 된다면 大統領閣下 自身은 勿論 누구나 神인

것입니다.

神을 한울님, 하느님, 하나님, 上帝云云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부르는 呼稱일뿐 眞正한 神이란 天地萬物을 構成하는 原理, 原素, 原型과 氣運이 陰陽五行에 依하여 形成되는 造化者即 天地萬物을 形成하고 運用하는 하나의 主宰者를 말하는 것입니다.

現 人間社會에 構築된 神人分離의 既成價値觀을 打破하고 神과 人은 하나(一)인 새 價値觀을 定立시켜 神에 對한 價値觀이 統一되어야 할 것입니다.

地上에는 神에 對한 觀法의 差異로 多神思想, 汎神思想, 一神思想等 많은 思想이 存在하고 있으며 思想과 意識이 多變化되어 宗團사이에 分爭뿐만 아니라 神에 對한 存在問題까지 疑心 받게 된 것이 現 人類社會의 實情입니다.

따라서 神과 人이 하나인 새 價値觀의 定立으로 宗團사이에 構築되어 있는 神觀의 差異를 打破하고 神은 自己의 自律的 創造에 依하여 宇宙와 萬物을 生成한 後에 도리어 그 宇宙와 萬物自體內에 生存하고 있음(侍天主: 侍者 內有神靈 一世之人各知 不不移者)을 깨닫게 될때 宗教統一은 可能할 것입니다.

統一과 平和를 爲한 先行課題는 위에서 言及한 바와같이 神에 對한 價値觀의 統一과 宗教統一이 이루어짐과 同時에 侍天主와 人乃天思想을 全世界의 國教로 制定하여 人과 人을 統一하는 事人如天倫理를 實踐해 나가야 합니다.

神과 人이 하나고 教와 政이 하나인데 過去 累千年동안 神을 人과 分離시키고 教를 政과 對立시켜 음으로써 사람의 意識構造가 自然히 對立과 分裂의 狀態로 變質되어 왔으며 先天

의 歷史는 그 變質된 意識構造에서 모든 人類가 對立과 鬪爭을 繼續하다가 結局에 破滅이나 生存이나의 兩者擇一해야 할 重大難局에 逢着하여 있습니다.

따라서 國教가 樹立되면 教와 政을 一致시켜야 합니다. 神과 人은 하나이고 教와 政도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神의 가르침을 有形에 效用하면 政이 되고 人의 움직임을 無形에 歸一하면 教가 되는 것입니다.

以上에서 論한 대로 父母가 나를 낳아 주시고 내가 父母를 모시고 있는 것과 같이 내몸에 모신 내 한울을 찾아서 내가 바로 한울인것(即神과 人의 統一)을 깨달아 侍天主精神을 定立하고 暴力과 戰爭이 없는 先進道德社會를 建設할 것을 統一方案으로 題案하는 바입니다.

大神師말씀에 吾亦生於東受於東道雖天道 學則東學이라 하셨듯이 宗主國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事人如天의 倫理로서 우리나라가 먼저 自主적으로 理念을 統一하고 平和적으로 國土를 統一하여 侍天主와 人乃天 思想의 새 價値觀과 事人如天의 새 秩序 概念으로 地上天國建設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尊敬하는 大統領閣下 그리고 長官님

後天開闢의 地上天國建設은 不可能한 것이 아니고 “餘亦無功故 生汝世間教人比法 勿疑勿疑”란 한울님 말씀과 같이 天師님의 뜻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閣下께서 統一에 關한 對話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大端히 感謝하겠습니다.

正統淵源에서도 그 對話의 자리에 기꺼히 參席할 것을 約束  
드립니다.

大統領閣下와 長官님의 健闘를 비나이다.

1989. 8. 10



# 통일을 위한 중국교포 참여유도

조 정 호 (종로구 종로3가 삼윤빌딩 401호)

1989년 8월 15일에 쓰는 글은 감회가 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일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않는이가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방법입니다.

감상적, 급진적, 폭력적, 공산주의적 강제 방법이 아니고, 실질적, 우회적, 평화적, 민주주의적, 평화적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공산집단의 지도자들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해왔고, 김일성부자가 생존한 기간에는 불가능한 것이 확실한 이상, 조국통일은 장기적 안목에서 점진적, 우회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들 부자가 사라진 후에 민족의 일체감 형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아때부터 세뇌에 의하여 인간성이 상실되어 가는 북한 동포에게 인간의식, 자유, 인권 등 자기들의 체제밖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아주 조그만 일들부터 시작합시다.

예컨대,

- 1) 요즘 중국교포(특히 만주지역)들이 서울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TV대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 교포에게는 긍지, 시청자들에게는 북한의 실상을 알게한다.
- 2) 이 교포들이 장기체류(지금은 3개월)를 허가하여 대학, 고교, 기업체 등에서 실용중국어를 가르치게 하므로 간접적

- 촉을 통하여 중국, 북한의 실상을 알게한다.
- 3) 공산베트남에 한국인 2세 ( 5 - 10 만명 추정 ) 의 정확한 통계와 인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이 인간을 사랑하고, 책임을 지는 민족임을 공산국가에 심어주어 북한 동포가 한국의 실상을 느끼게 한다.
  - 4) 한국 경제인들이 만주에 적극 진출토록 한다. 공장, 호텔등을 세워 재만주 교포들의 소득증대, 생활향상, 민족의식을 고취시킨다면 중공, 북한 상호방문이 가능한 재만한국교포의 영향력은 김일성 지배하의 생활을 천국으로 착각하는 북한 동포의 마음에 인간적인 삶에의 욕구를 성장시킬 것이다.
  - 5) 종전의 건의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북회담은 무엇이든 계속해야 합니다. 회담의 성과는 기대할 수 없으니 기대하지 말고 판문점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수가 만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회담참석자 ( 대표자는 아님 ) 자신들만은 남북의 실상을 마음속에 가늠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민족화합에 의한 통일의 불씨라고 믿는 바입니다. 저는 재만주 교포를 만날 수 있는 직업 ( 영문서류번역공중 관계 ) 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89. 8. 16

# 대동보수찬(大同譜修纂)에 의한 통일을 청원함

김 기 병 (대구직할시 중구 교동)

우리는 전통에 빛나는 유구한 역사와 희귀희소한 단일민족의 혈통에 민족의 혼인 족보를 전승 해온 동방예의지국 자손임을 자랑합니다.

족보는 우리 역사이며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우리민족의 주권이 존재하는 대한민국과 우리민족의 총의에 기인하는 헌법을 제정 우리 정부시책과 우리민족적 차원에서 인류세계 지구촌에 산재한 우리민족의 후예를 결속, 대동보를 수찬하여 천시인화 지리(天時人和之利)를 이루고 민족통일을 성취하자는 청원이니 노대통령님을 위시, 각 정당 총재님은 본 청원서를 검토하시어 우리들 조상님의 일본 식민지 침략으로 약 1세기간 국난으로 인한 해외독립운동 또는 망명 강제이주로 우리민족은 다국적 민족으로 이산 변화되고 국토마저 분단되어 사상과 이념의 차이와 단절 및 6.25의 동족상잔으로 국토는 초토화된 참상을 우리들은 경험하였습니다. 제6 공화국 노대통령 취임후 서울 올림픽대회 개최로 지구촌의 전인류가 화합의 장을 이루고 체육으로 이룬 교류가 북방외교로 발전 우리의 국위는 일익 팽창함으로 다양한 외교선로를 직·간접으로 우리민족의 한인 통일방안이 모색중이라고 금년 8월 15일 기사내용을 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안에 대한 우리정부나 각 정당 공히 주지계몽한 바 없음으로 문익환 목사, 서경원 의원,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등의 방북으로 국기문란같은 문제를 야기하였다고 사

료됩니다. 북한 김일성의 고려연방제 통일안으로 우리정부가 접근한다는 보도를 국민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또 북한은 금 5월 31일자 제 2차예술단 및 고향방문단 교환을 위한 적십자사 실무대표 접촉을 6월중으로 갖자고 제의한다는 내용이 지상에 보도된 바 있으며 김일성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나름대로 확실히 논리나 실천을 과시할려는 제의라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본 청원은 낡은 개념의 사상과 사고같습니다만 우리들 민족성은 민족개념의 혈통의식에서 사돈팔촌까지 친인척으로서 인화를 이루고 조상으로부터 성씨와 관향을 이어받아 자손만대에 영구보존 전승하는 족보의 존귀한 필요성으로 승문승조 사상으로 융화 지역간 감정까지 배제할 수 있고 그의 존귀의 지위는 민족화합의 주권이 존재하는 상징도 됩니다. 대한민국 수립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족보수찬과 보존에 관한 법령을 국가가 제정한 바 없어 각 성씨 관향별 중중임의로 수찬한 관계로 허실된 점이 있음을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한국 성씨보감을 참조하면 약 250 성씨에 2,700 가량으로 분관되어 있습니다. 각 성씨별 관향의 9%가 대한민국의 현 영역이고 그 대종손의 100%가 대한민국에 현존함이 각 성씨족보에 명기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입니다. 북한 김일성이가 우리것을 전부 모방할 수 있어도 족보와 성과 관향 대종손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빛나는 슬기와 얼을 오늘에 되살려 씨족협력을 바탕으로 민족화합을 이루고 각 정당 사회단체의 중구난방식 요구와 주의주장 또는 지역간 감정을 배제하는 민족헌법의 기초가 되는 족보수찬을 민족적 합의에 의해 씨족 민족민주국가로 정립하는 민족중흥의 전환기가 바로 이때라고 판단되오니 자유 공산 양대진영에 산재한 우리씨족의 후예를 빠짐없이 결

속시켜 뿌리를 찾아주고 대동보수찬을 실현하는데 우리민족의 통  
치권자인 노대통령 영도하 각 정당 총재님과 각 성씨 종친회  
대표 및 그 대종손의 공조를 촉구, 민족의 주권이 존재하는 민  
족총의로 헌법을 제정함으로 민족통일된 자유민주국가 달성  
할 수 있다고 본 청원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89. 9. 12

# 민족 통일 방안

김 남 희 (강원도 양양군 서면 장승1리 5반)

## 一. 배달민족에게 드리는 말씀

배달민족의 일원으로서 삼가 말씀드립니다. 배달겨레 7천만 동포여! 우리들은 반만년 동안 대대로 이어온 배달의 자손입니다.

우리 겨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광대한 지역에 널리 퍼져서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면서 평화롭게 살아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漢族의 침략을 계속 받아오다가 끝내는 드넓은 대륙강토를 빼앗기고 나중에는 반도마저 일본에게 침략당하여 나라없는 민족으로서 온갖 수난을 당하다가 세계 2차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해방되기는 하였으나 승전국 미·소가 일군의 무장해제 명분으로 38도선을 경계하여 남북에 군을 주둔하게 되면서 영토는 분단되고 좌우사상의 투쟁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동포여 우리의 주변 강대국들은 알고 보면 모두 우리의 적이며 원수임을 명심합시다.

좌우사상이 무엇이길래 남북간 동족상잔의 6·25 전쟁까지 치루어 수백만명이 죽음을 당했고 잿더미가된 터전에서 울부짖던 원한의 소리는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민주·공산사상에 얽매인 남북은 아직도 민족적 자각을 못하고 민족최후의 교두보에서 멸망을 향한 한판 승부라도 내고야 말겠다는 태세이고 보니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도는 초토화되고 몇천만의 시체가 쌓이고 원자병환자는 아우성을 칠 것이며 살아남은 자가 있다해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비참한 꼴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전쟁으로 인하여 민족멸망의 최후를 맞이한다면 남북정 치인들은 전쟁도발자로서 전범자인 동시 민족멸망과 민족 대학살의 주범이므로 살아남은 동포들에 의해 처단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좌우사상이라면 치를 떨게되어 좌우사상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동포여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우리의 처지를 깊이 깨달아 빨리 좌우사상을 버린다면 불행한 앞날은 없을 것이며 영광된 민족의 새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미·소의 세력권 안에서 만족하려는 사대주의근성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반민족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을 강대국들과 논의하겠다는 것도 사대주의근성에서 나온 사대사상의 표본입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적에게 도움을 청하는 격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처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좌우정치 사상을 고수하는 한, 미·소의 비위를 맞추는 사대적 존재에 불과합니다.

같은 동포가 좌우사상 때문에 전쟁까지 해가면서 원수로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질적 좌우정치 사상은 대립관계를 지나 적대관계에 이르렀고 다시 6·25 전쟁으로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데 좌우사상 그대로 통일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어떤 나라에는 보약이 될런지는 모르나 우리 민족에게는 독약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시각을 다투어 좌우사상으로 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정치이념이나 사상이란 우리의 옷과 같은 것으로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 입기도하고 버리기도 하며 더 좋은 새 옷을 지어입기도 하는것 처럼 사상도 새로운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는 고도의 문명인에게 맞는 아름답고 멋진 새 사상의 비단옷이 필요한 때입니다.

좌우정치사상은 이미 낡은 옷과 같아서 10년내에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새로운 정치사상을 필요로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세계의 몸부림은 새로운 것을 낳기위한 것입니다. 누가 먼저 새로운 사상으로 세계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누가 세계를 주도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앞으로의 정치사상은 개인의 학설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또는 국가와 같은 대집단 총의에 의하여 집대성될 것입니다.

통일방법에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 무력통일이라는 멸망통일이 있을 수 있고 둘째, 공존하면서 한 나라를 이루는 공존통일도 있을 수 있으며 셋째, 기존 두 사상체제를 모두 버리고 새 사상체제에 의한 통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쪽은 韓民族, 북쪽은 조선족이라 부르니 통탄할 일입니다. 동포여 배달민족은 우리민족의 고유명사입니다.

정치사상따라 나라이름따라 제멋대로 민족의 이름을 바꿔 부르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겨레 한핏줄로 이어온 배달의 동포들이여 우리 모두 민족적 자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민족 공동의 운명은 민족공동의 지혜로 해결해야 민족공동의 이익이 되며 민족적 의식과 정신은 민족통일과 번영의 기



초가 될 것입니다.

외래사상, 외래문화에 물든 남북동포여 민족의 품으로 돌아와 민족통일 대의에 뜻을 같이 합시다.

배달민족 7천만 동포여, 우리의 소원은 자랑스런 자주 자존의 통일조국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국정신과 정치이념·사상체제 모두가 자주 자존에서 창조된 우리의 것이어야 하고 통일도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상으로 부터 물려받은 자랑스런 홍익인간이념을 모체로하여 민족의 창의력을 모아 새 정치이념 사상체제를 창조한다면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홍익인간이념의 기본사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하도록 도와주어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므로 다같이 잘 살수 있는 공동경제사회가 되어야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를 둔 상부상조사회가 되어야 하며 건전한 번영, 공동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족통일을 위하여 현 남북정권을 없애버리는 것을 전제로하여 새 통일조국은 우리의 정치이념 사상체제로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의 손으로 건국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째번 통일방법을 택하여 민족사상을 주체사상으로 삼아 통일하는 민족통일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며 민족번영의 통일방안으로서 민족통일 민족대표 대의원회를 조직하여 통일에 관한 모든 전권을 민족통일 민족대표 대의원회에 위임 처리한다면 쉽고도 빠르게 또 자주적이면서 명예롭게 통일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민족통일 방안에 의한 통일을 하면 지금까지 남북간 원수로 생각하던 나쁜 감정과 불신도 깨끗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남북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에 남북정권이 없어진다면 함께 소

떨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포는 신생통일 공화국의 국민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남북군은 새 통일공화국 국군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적대관계는 사라지고 통일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동아의 새 주인이 될 것을 다짐할 것입니다.

통일공화국은 정병 백만대군을 아주 쉽게 갖추어 놓을것입니다.

민족통일 방안은 대의명분이 뚜렷할뿐 아니라 민족번영을 약속하는 최선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통일함에 있어서 단 한사람의 희생도 없이 완전 자주자존의 통일이며 모든 동포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배달겨레가 동아의 주인이 되고 세계의 주도국이 될것이며 세계기운에 이끌려만 가던 우리가 세계기운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계 약소민족 해방기구가 태동하고 있는 이 시점을 잘 활용하면 민족번영의 호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남북정치인들이여 성스러운 민족통일 과업에 앞장서서 통일공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좌우사상에 얽매이거나 일시적 영욕에 사로잡혀 민족만년 대계를 그르치거나 천추에 한을 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7천만 동포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랑스런 통일조국을 이룩하여 민족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합시다.

친애하는 동포앞에 민족통일 방안을 제안합니다.

## 二. 民族統一 實行事項

1. 민족통일방안을 현남북정부는 민족통일방안으로서 공식 인정하고 협조할것.
2. 전민족에게 남북정부는 민족통일방안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라디오,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공지교육 할 것.
3.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대표 대의원회를 결성하여야 한다.
4. 민족대표 대의원의 자격  
고결한 인품에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남녀.
5. 대의원 선출방법  
반도전역 리통마다 남녀 각 1명씩 선출하여 읍면 대의원회를 조직한다. 읍면대의원중 남녀 각 2명씩 군대의원으로 선출하여 군대의원회를 조직한다.  
군 대의원중 남녀 각 2명씩 도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도 대의원회를 조직한다.  
도 대의원중 남녀 각 2명씩 민족통일 민족대표 중앙대의원으로 선출하여 민족통일 민족대표 중앙대의원회를 조직한다.
6. 민족통일 민족대표 대의원회는 민족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현 남북정부보다 상위기관임을 인정한다.
7. 현 남북정부는 민족통일 민족대표 대의원 선출과 회의장소 및 경비를 제공한다.
8. 현 남북정부와 내외동포는 민족통일 민족대표 대의원회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9. 현 남북정부와 내외동포는 민족통일에 관한 모든 전권을 민족통일 민족대표 대의원회에 위임함을 확인하고 대의원회 결

의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0. 현 남북정부대표는 민족통일에 관한 제반사항들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각서로서 민족통일 민족대표 대의위원회에 제출한다.
11. 민족통일 민족대표 대의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둔다.
  - 건국준비 위원회
  - 정치이념사상체제 연구위원회
  - 통일혁명위원회
12. 새 정치이념사상은 國祖檀皇제께서 시행한 홍익인간개념을 모체로하여 현대와 미래 고도문화사회에 이르기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가장 우수한 정치이념사상을 창조할 것이다.  
통일공화국 정치이념으로 하고 민주공산사상을 대신할 세계의 새 정치이념사상의 원조가 되게 한다.
13. 현 남북군은 그대로 통일공화국 국군이 된다. 정병 백만 대군을 유지한다. 휴전선의 지뢰 기타 위험물을 철저히 제거한다.
14.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선언을 한다.  
남북정부와 각종 정치단체는 모두 해체한다.
15. 새 통일공화국 국호는 (고려) 공화국이라 하고 국기는 태극기로 정한다. (예상)
16. 모든 동포는 「고려」 공화국 국민이 된다.
17. 고려공화국 화폐를 발행한다.  
화폐가치는 1원대 1블로 정한다.  
현 남북화폐는 교환 회수한다.
18. 통일공화국건국 선포식 거행
19. 기타 건국에 필요한 사항제정 시행  
예) 통일공화국 건국 축하기념 행사  
남북 교도소 형행자 전원 석방

### 三. 民族統一關聯認知事項

1. 민족통일을 하면 민주공산사상 때문에 조성된 적대관계나 원수처럼 생각하던 나쁜 감정도 깨끗이 사라지고 정다운 동포애로서 화평한 국가사회가 된다.
2. 신생 통일공화국은 현 남북국가의 후계국이 아니라 신생 자주자존의 독립국이다.
3. 민족통일을 하면 미군은 주둔 명분이 없어 스스로 물러갈 것이다.
4. 민족통일방안에 의하여 통일한다면 자주자존의 통일독립을 수개월내 쉽고도 빠르게 할 수 있다.  
민족통일방안은 대의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동포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5. 민족대표를 선출하는데 남녀동수로 한것은 남녀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당연한 일이나 유사 이래 처음 우리민족이 시도하는 것이다.
6. 우리가 좌우사상의 너울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미소의 비호를 받아서 자라난 탕으로 미소에 대하여 큰소리 한번 못치고 그들의 뜻을 어길수 없어 항상 끌려다니는 존재가 된다.
7. 주변 강대국들은 우리민족을 말살하려하고 있다. 국토분단과 사상의 대결로 6·25 와 같은 전쟁을 하게 하고 무기를 팔아 수입을 올린다.  
전쟁으로 초토화한 위에 독립할 능력이 없어지면 위임통치를 하다가 슬그머니 그들의 연방으로 편입시켜 버린다.

-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좌우사상을 버려야하고 전쟁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를 알았을 것이다.
8. 우리가 미소를 이기는 길은 좌우사상에 놀아날것이 아니라 좌우사상을 버리는 것이다.
  9. 현 남북정치인과 경제인은 일시의 영욕을 버리고 민족만년 대개의 통일대의에 순응 동참하여 천추의 한을 남기지 말자
  10. 우리 민족은 옛날 동아의 전역을 영토로한 대국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좁은 땅 반도안에서 좌우사상으로 분열되어 전쟁까지 치루었고 또다시 전쟁직전에 와 있다. 자멸위기에서 민족을 구할 길은 좌우사상으로 부터 해방되는것 뿐이다.
  11. 지금 세계에는 약소민족 해방기구가 태동하고 있다. 좌우사상의 양대조류에 휩쓸려 정신못차리고 경거망동할것이 아니라 빨리 민족적 자각을 하여 민족통일을 하고 세계 약소민족들을 이끌어 간다면 동아의 주인으로서 세계의 주도국이 될 것이다.
  12. 현 남북정부는 자주독립국이라 하지만 미소의 비호를 받아 가며 자라서 좌우사상의 충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13. 남북이 현상황을 유지하거나 통일되어도 좌우사상을 버리지 못하면 굴욕적인 민족사는 계속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굴욕적인 민족사를 청산하고 자주자존의 민족사를 창조하자는 것이다.
  14. 민족통일방안에 의한 통일을 하면 UN회원국은 물론 상임이사국도 될것이다.
  15. 세계 어느 지역, 어느 국가 국경에도 남북간 휴전선과 같이 백만대병에 초현대식 무기로 무장대치 시켜놓은 곳은

없다. 무엇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동포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있는가?

다시 싸웠다면 죽는것도 우리 동포, 재마당 되는것도 우리 땅이다. 싸우고 싶으면 만리장성이나 우랄산맥에서 싸워보자. 미·소를 위해 우리 민족은 왜 멸망의 길을 걸으려 하는가? 민족통일을 할 경우 우리 민족의 힘이되고 자량이 될 것이다.

16. 우리 민족의 지혜를 총집결하여 고도문화사회에 알맞는 훌륭한 정치이념사상 체제를 창조하자는데 누가 반대하라. 홍익인간 이념과 좌우사상의 장점만 골라 새 이념사상을 만든다해도 지금의 좌우사상 보다 나은 것이다. 새로 창조된 이념사상이야 가장 우수하고 영원한 사상이 될 것이다. 동포여 민족통일의 소명과 대의앞에 모여 조국통일에 충성을 다하자.
17. 군과 경찰은 민족과 국가를 보위하는 방패이다. 민족을 잡아먹는 사상의 무리가 되지말고 민족통일의 역군이 되자. 좌우사상만 버린다면 민족의 최대 소원인 통일은 쉽고도 빠르게 될 수 있다.
18. 외래사상 외래문화에 우리의 정신, 마음, 혼까지 병들게 하여 멸망의 길을 재촉할뿐 아니라 좌우사상에 병든 인간미 없는 인간들이 되어버렸으니 신의와 도덕은 간 곳이 없다.
19. 남북동포들은 좌우정치 사상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배달의 젊은이여 용기와 대지를 품고 동아의 주인될 역량을 길러다오.  
자주자존의 통일조국을 창건하는데 젊은 세대가 해야 할 일이 많고도 중하다.

배달의 젊은이여! 같은 동포 가슴에 총을 겨누지 말라.  
민족통일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널리 홍보하라.  
좌우사상에서 해방되어 민족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라.  
대붕도 알일때에는 장차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모른다.

타골은 우리를 동방의 등불이 되리라 했다. 좌우사상 투  
쟁만 하다가는 멸망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20. 좌우사상이 우리 민족에게는 독약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남북이 원수지간에 이르렀으니 공존통일을 한다해도 캄  
보디아나 레바논 같은꼴이 되고 무력통일을 위한 군사대결  
을 하면 멸망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독약이라 하는  
것이다.

21. 민주화나 공산화 따위는 이제 그만 팽개쳐 버리고 민족  
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상혁명 지상주의도 이제는 끝장이다. 세계의 움직임과 동  
유럽을 보면 사상혁명 따위는 설 땅조차 없어지고 있다.

22. 남북정치 지도자들이여 좌우사상을 미련없이 버리고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용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지금이야말로 민족통일의 기회이며 민족옹비의 호기임을 확  
신하고 민족통일을 실행하시라.

남북지도자들이여 민족을 배신하고 시대를 역행하지말라.

23. 민족통일만이 민족의 번영과 세계사의 주역이 될것이다. 우  
리가 현체제를 유지하면서 남의 눈치만 보다가는 남의 장  
단에 춤을 추고 끌려다니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24. 7천만 남북동포에게는 좌우사상이 원수였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없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우사상 때문에 억울



- 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했고 죽어갔느냐 말이다.
25. 미소의 비호아래 자라온 남북정권을 없애고 자주자존의 통일공화국을 세우겠다는데 누구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26. 남북동포의 마음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통일방안은 바로 민족통일방안이다.
- 동포여, 통일은 7천만 동포가 하는 것이며 소수 정치인에게만 맡겨서는 안된다.
- 민족통일 방안은 민족전체의 뜻인 동시 대의명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다.
27. 타민족국가들은 우방이고 동족인 남북은 원수로 대하는 좌우사상의 노예들이여 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존심도 없느냐? 세계인은 지금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한다. UN에 가입하지 못한 분단국 동족끼리 전쟁을 한 바보, 또 전쟁을 할려는 벽창호라는 것이다.
28. 일본은 경제대국에서 다시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일본은 마음대로 속속 커가고 우리는 남북이 아웅다웅하고 중국과 소련은 자신을 다스리기에도 힘겨워하고 있다.
29. 우리가 민족통일을 했을 때에는 일본을 능가하고 중소를 제압할 것이며 아시아의 주인이 되고 세계의 주도국이 될 것이다.
- 현시점은 바로 우리민족이 번영할 절호의 기회임을 믿고 빨리 민족통일부터 하자.
30. 민주화, 공산화를 외치면 외칠수록 통일은 멀어만 가고 원수같은 좌우사상을 빨리 버릴수록 통일은 빨리된다.
31. 독일의 통일을 부러워 할것 없다.
- 우리가 민족통일 방안에 의하여 통일한다면 더 빨리 완전

자주자존의 통일을 쉽게 할 수 있다.

남북이 좌우사상을 버리겠다는 용단만이 선결문제이다.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생각하여 민족번영의 미래를 바로 내다보는 안목이 있다면 서슴치 않고 용단을 내릴 것이다.

32. 독일 통일에 강대국들이 계속 관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에는 관여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이를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현 좌우사상 체제 그대로 통일하려고 하면 필요이상의 관여를 할 것이다.

우리가 민족통일 방안에 의하여 통일한다는 것은 미소의 좌우사상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자주자존의 통일조국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세의 어떠한 간섭에도 이를 배격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고려중기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외세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아왔다.

호기를 맞은 차제에 굴욕적인 민족사를 청산하고 자주자존의 민족사를 창조하자.

33. 민족사상을 잘못 이해하여 배타적이거나 자아중심 고립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민족을 한 인격체로 완성하고 민족간 상호존중하면서 공동번영을 하는 것이다.

세계 어느 곳에도 피압박 민족이나 자주자존의 독립권을 박탈당하는 민족이 없도록하며 서로도와 다같이 평화롭게 살아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주권을 박탈당한 피압박 민족으로서 온갖 설움을 당한 민족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좌우사상으로 분열되어 아웅다웅할 때가 아니다.

34. 1945년 해방당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민족통일을 했어야 했다. 45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두번째 민족통일의 기회가 온 것이다.

8.15 당시에는 좌우사상이 너무나 기승을 부려 민족통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소련내 민족사상 대두와 동유럽 공산주의 쇠퇴는 각 민족들이 민족적 자각을 하기 시작했고 미소의 냉전종결선언 등은 우리민족에게는 민족통일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되지않을 좌우사상 통일을 꿈꾸지 말고 동포가 원하는 민족통일을 하자. 통일에 대해서는 백번천번 생각해도 민족통일 방안에 의한 통일을 하는것만이 최선의 방법임을 확신한다.

민족통일 방안은 개인의 뜻이 아니라 모든 동포의 한결 같은 소망이다.

동포들은 남북 좌우 정치통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통일을 원하고 있다.

35. 친애하는 배달겨레여 사상의 편에 서지말고 사랑하는 동포의 품으로 돌아오라.

특히 북쪽의 정치인들은 크게 깨달아야 한다.

공산혁명으로 세계를 지배하려던 꿈은 이제 산산히 깨어지고 설 땅마저 없게 되었다. 민심을 모르고 억압만 한다면 북쪽이라고 루마니아와 같이 되지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라. 북쪽 정치인들은 명예롭게 영예를 보전하면서 모든 동포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민족통일 방안을 택하리라고 믿는다.

공산주의를 버리고 민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잘못 가  
던길을 바로 찾아 가는 것이다. 남쪽도 어김없이 자유민주  
주의를 버리고 민족통일 방안을 지지할 것이다. 그것은 민  
족통일과 번영이라는 대의명분과 민족적 소명에 따르지 않  
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시대적 요청이며 우리민족 통일과 번영  
의 호기를 맞이한 것이다.

동포여 민족통일의 영광은 우리앞에 와있다. 동포여 각성하  
라, 일어서라.

남북정치인들이여, 당신들은 큰 죄인도 될 수 있고, 큰 공  
로자도 될 수 있다.

좌우사상 못버리면 큰 죄인이 되고, 좌우사상 버리고 민  
족통일 하면 큰 공로자가 된다.

동포여 후세 사가들은 민족통일에 공이 큰 여러분의 이  
름을 길이 빛내줄 것이다.

배달겨레여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나가자.

36. 겨레여 어떠한 통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국을 영예롭  
게 번영시킬 것인가 생각해 보시라. 나와 뜻을 같이 하  
리라 믿는다.

동포여 꿈에도 그리던 통일조국을 창건하는 날 얼싸안고 춤  
추며 노래하며 다같이 축배를 들도록 합시다.

89. 12. 10

# 우리나라 통일에 대한 전략건의

정 차 남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장관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오며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에서 밤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북 대남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회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중 88년 11월 2일~4일까지 통일연수원에서 전국 기도원 연합협회의 교육에서 남북통일이란 문제의 양영식 교수의 말씀중 이북에 세가지 교회가 있다는 말에 나의 기도와 똑같은 내용이므로 갑자기 마음이 불타는것 같아 견딜수 없어 양영식 교수에게 건의하였더니 정식으로 건의하라기에 다음과 같은 건의서를 드렸습니다.

1. 88.11 ; 폐쇄되어 있는 이북동포에게 복음을 전한 특공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계평화 조국의 통일을 위해 폐쇄되어 있는 이북동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명받은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도하는 특공대를 조직하여 이북동포에게 복음의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2. 89. 4 ; 조국통일 용사훈련소 건립과 교육  
또한 건의서를 제출한 내용과 같이 특공대로서 이북동포에게 보낼 용사(하나님이 감추어 두었던 용사)를 양성할 훈련소를 건립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할 신학교의 교육시설을 완비하고 각 나라 방언을 교육하여 이북에 가서 그 말씀으로 저들 공산주의에 말려들었던 사상을 폐쇄키 위해 사랑과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3. 89. 8 : 장관님들께 보내었던 취지문

또 세계복음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특공대원을 교회에서 선정할 생각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하여 구국의 통일용사를 깊은 속에 예비하여 감추었던 자들을 위하여 89. 8월중 밝혀 주심으로 취지문을 각 3장관(통일원 장관, 법무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드린바 있습니다. 이는 각 장관님께 해당된 부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므로 질서를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1. 통일원 장관님을 조속히 뽑기를 원합니다.
2. 구체적인 내용은 면접시 상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9. 12. 22

## 이산가족상호방문요청

전대익 (경기도 파주군 파주읍 봉암5리)

존경하는 통일원 장관님

다사다난한 국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불초 소생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통일을 기원하는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소견이나마 사견을 권유할까 합니다.

남북한 통행협정 초안을 발표하는 보도를 접하고 통일원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분단이후 여러 통일방안이 있었습시다만 이번과 같은 근접방안이 없습니다. 서로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게 하는 방안은 최고도의 묘책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통일원 장관님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을 참고·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 윗사람을 섬기는 것은 세계에서든 으뜸이라 하겠습니까. 이제까지 돌아가신분들에게는 어쩔수 없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면 몇백년을 삽니까. 윗사람부터 즉 연세 많으신 분부터 통일의 기쁨을 맛보시게 하는 방안이올시다.

40년 전에는 젊었을 것입니다만 세월이 흘러 이 비극적인 분단의 아픔을 씹으시며 사시는 남북의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순으로 100세 이상이라든지 90세 이상이라든지 80세 이상이라든지 서로 남북이 타협을 하여 점점 연령을 낮추면 결국 통일이라는 글자가 나올것 아닙니까. 통일은 먼 훗날 일이라 생각되지만 우선 윗사람부터 동방의 예의지국답게 통

일을 앞당겼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술단 방문, 체육인 교류 등의 방안보다 이 제안이 일순위  
라야만 순조롭게 모든 것이 풀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거울삼아 대화와 타협으로 남북이 서로  
같이 앉아 다가올 새해에 더 좋은 통일의 길을 터주시기를 간  
절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가 있는곳은 남북이 교차하는 곳인 문산근처 입니다. 군  
사분계선에서 서로가 비방하는 확성기 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합시다만 잘못할 때는 날아다니는 기  
러기 보다도 못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러기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북을 오고갑니다. 하물며 인  
간들은 남북을 지척에 두고 비방만 해야되겠습니까. 말도 같고  
글도 같고 성도 같은 한겨레 한민족이 이렇게 반세기 동안 방  
치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민족 한겨레며 하나입니다. 이 제  
안을 북쪽에서도 찬성하리라 믿습니다.

할말은 태산같습시다만 통일원 장관님의 건투를 빌면서 난필  
로 끝을 맺습니다.

1990. 1. 4.



## 동족성 회복 방안

이 교 학 (경북 예천군 감천면 유동)

지난 노대통령의 한민족 통일방안을 보니 앞서야 될것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현재의 서로의 정책적인 입장을 100% 잠재우고

- 첫째로 동족성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민족앞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게 되면 서로 먼저 하기로 해야 합니다. 남이 북을 먼저 대접해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의의가 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로 김일성 생일날 같은 때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을 지나서 의기양양하게 동참하여 마음껏 축하를 해주셔야 합니다.
- 둘째로 만나야 무엇인가 됩니다. 서로가 와서 보시고 가서 보시고 서로가 인정하고 나아가서 좋은 것은 배우고 익히고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 세째로 문을 열어놓고 보여주십시오. 북한 국민들이 한국의 면모를 와서 보게하여 배워서 돌아가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남한도 역시 민주화가 구석구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공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녀가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 삼가 하실 일은 힘으로 작동하겠다는 마음 가짐은 아예 없어야 합니다.

90. 1. 5

# 통일방안 건의문

체 문 물 (도봉구 미아동)

## 군부주도의 통일방안

1.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한다.
2. 2인공동대통령제로 하되 임기는 종신제로 하고 출신분방의 원수직을 겸하게 한다.  
부통령 2인을 두되 대통령은 각자의 부통령을 지명토록 하고 임기는 종신으로 하되 사망시는 재지명토록 한다.(김의 세습제 보장책)  
정·부통령은 사임할 수 없고 대통령에게 심신장애가 있을 때는 부통령이 대행토록 한다. ※ 1인장기집권 염려에 대비해서 대통령은 군사의교만 장악하는 내각책임제 개헌 병행 (남쪽)
3.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종신제로 하고 유고시에는 출신분방 의회에서 선출토록 한다. 선출된 의원의 임기는 임기제로 한다.(완전 통일시의 상원구성 대비)  
의원은 남북의 군부의 실력자 전원을 포함시키고 의회의 지도를 위하여 약간명의 남북의 정치지도자를 포함시킨다.(군은 통일의 담보력이 될 수도 있고, 최대장애가 될 수도 있으므로 담보력으로 확보함이 최선책)
4. 군사와 외교는 연방정부의 소관으로 한다.(남북의 국제조약은 승계조정) 군사와 외교의 운영은 공동대통령의 완전합의제로 한다.(무장중립주의)

군사와 외교의 인사는 남장북차 북장남차제로 한다.

5. 남과 북의 체제는 군사와 외교를 제외하고는 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되 그 개폐는 각 분방이 자립적으로 시행한다.
6. 연방의원은 분방의원 및 분방의 공사직과 군사직무를 겸임할 수 있으나 보수는 차액만을 지급받게 한다.(연방지급분)
7. 남북의 군인은 정당가입을 배제하고 남북간의 장교와 사병 및 사단을 교류하여 완전한 군의 통일을 이룩한다.
8. 한쪽출신 대통령이 출신분방의 치안유지를 위하여 군의 동원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동의하여 군을 동원하여야 한다.
9. 연방헌법과 초대연방정부통령 및 연방의원의 선거를 동시시행한다.

#### 김주석을 설득하는 방법

1. 현금의 국내적 국제적 정세의 추이는 장차 남북 어느쪽도 상대방을 제압하여 일방의 체제를 강요하는 일방적 통일은 생각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2. 그렇다면 남북의 지도자는 차선책으로 남북의 체제가 공존하는 공동통일의 방안을 택하여 민족상잔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
3. 공동으로나마 민족통일 국토통일의 영주가 되어 후세에 빛나는 이름들을 남기도록 하는것이 현명한 선택이 된다는 것이다.
4. 북에서 볼 때 6.25는 통일전쟁의 실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하겠지만 남쪽에서 볼 때에는 6.25는 침략전쟁이고 민족분열을 심화시켜 분단을 고정 장기화시킨 계기로 파

악되고 있는 것이다.

5. 때문에 김주석이 공동으로나마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었을 때에는 북쪽에서도 스탈린 사망후의 소련에 있어서와 같이 동족상잔의 책임자로 민족분열을 심화시키고 분단을 고정화 장기화시킨 민족적인 죄인으로 김주석을 격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할 것이다.

6. 공동으로나마 통일의 영주가 되었을 때에는,

가. 동구가 민주화의 결과로 체제가 전면개폐되고 지배층이 전면몰락하는 상태가 초래한다 하더라도 남쪽의 지원까지 얻어서 북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고 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북의 지도층은 계속 집권할 수 있고 통일의 공으로 인하여 계속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나. 현재의 공산주의의 퇴조는 100년을 지속할 수 없는 한시적인 현상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A. 즉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이끌어 온 과학기술의 혁신(기술혁명)도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면 자본주의는 더 이상의 발전을 멈추고 정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에 이르면 인류는 소득(생산물)의 공정분배를 위하여 공산주의를 택하게 될 것이다.

B. 생산수단의 기계화, 자동화의 추세는 결국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산업노동을 떠맡게 될 것인데 이때가 기술혁명이 한계점에 도달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이때가 되면 인간사회의 경제문제로는 소득(생산물)의 분배문제만이 남게 될 것이므로 인간은 공정분배를 위하여 공산주의(사회주의)를 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노동은 전부 로봇이 맡게 되므로 노동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로봇을 관리하는 관리인만이 있을 것이므로 노동계급에 의한 계급독재는 사라지고 관리인등의 집단에 의한 민주적 공산사회가 열리게 될 것이다.

C. 김주석은 공동통일에 의하여 통일의 영주가 되는 한편 이 새로운 민주적 공산주의시대를 지도할 수 있는 이념을 형성하여 고르바초프와 함께 세계사에 빛나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D. 통일을 이룩하면 김주석진영에도 정신적 물질적 여유가 생길 것이므로 북의 사람들의 물질생활을 개선해 나갈 수 있고 북쪽 사람들을 새로운 한단계 발전된 민주적 공산주의사회로 인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남북을 합하여 백만감군이 가능할 것이므로 절감되는 막대한 군사비와 백만의 젊은 인력을 산업에 동원하면 다같이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활력소가 된다.

※ 통일로 인하여 가장 큰 자기희생을 강요당하는 유일한 계층은 남북의 군부인데 그들은 실력으로 통일을 저해할 수 있는 실세이기도 하므로 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통일의 담보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이 방안이 실현될 때에는 남에서는 통일의 당위성과 보수대연합의 필연성으로 인하여 현안의 국내문제는 통일열기에 흡수용해되어 정국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북에서는 김주석 부자가 후일의 염려없이 개방과 개혁을 선도해 나갈 수가 있다.

※ 큰 정치문제는 지배층의 이해가 일치되고 명분만 있으면 쉽게 타결되는 것이므로 이 안은 쉽게 북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 제2의 6.29 선언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김주석이 공동통일에 옹할 수 있도록 명분은 줄 수 있는 마지막 카드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당을 합법화시켜주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남쪽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2. 최대의 반공, 최선의 반공은 용공에 있는 것이다.  
첫째로, 일부의 학생을 포함하여 일부의 운동권의 사람들이 맑스 레닌주의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따라서 행동하는 원인의 태반은 우리의 반공정책에 있는 것이다.  
동구에서의 공산주의의 실패는 물론 세계적인 공산주의의 조락현상을 모를 까닭이 없는 그들이 그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그같은 금단의 행동을 자행하는데서 오는 스릴과 긴장감을 즐길 수 있고 통상인이 행하기 어려운 행동을 함으로서 스스로 영웅심에 도취할 수 있기 때문인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공산당을 합법화시켜주면 그같은 스릴과 긴장감을 맛볼 수도 영웅심에 도취된 행동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히 공산당이 합법된지 오래된 서북에 있어서와 같이 공산당이 성장할 수가 없을 것이다.  
둘째로 운동권의 사람중 북의 공산사회로의 이주를 희망하거나 기도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들도 공산주의의 실패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이 군주도 통일방안에 따라서 구성되는 연방의회등 연방정부기구에 남쪽의 공산주의출신자와 운동권출신인사가 참가하

지 못하기 때문에 실리가 보장되지 않는 운동을 계속할 사람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4. 남쪽에서 생겨나는 공산당은 북쪽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하게 되어 以夷制夷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 맑스 엔겔스가 예측하지 못하였던 현상들

1. 핵무기의 출현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투쟁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 즉 열핵전쟁으로부터 인류를 보전해야 하는 명제에 마주치게 되리라는 점을 상상할 수가 없었다. 혁명을 위한 군사적 수단의 사용은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뿐이므로 무력혁명을 생각할 수 없게 되리라는 점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2. 장차 과학기술의 혁명이 자본주의 발전의 새로운 원천이 되어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3. 자본주의의 무한한 자기수정 능력을 간과하여 개인자본주의가 산업자본주의화하고 복지자본주의화하여 선진 자본주의사회의 노동자들이 공산화를 바라지 않게 되리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자본주의의 복지화 전형이 북구 3국의 사회민주주의로서 자본주의의 자기수정은 공산사회의 경지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4. 컴퓨터의 출현등 정보매체의 고도의 발달로 인한 정보사회가 출현하여 대소의 자본가(기업가)들이 안방에 앉아서 세계의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적절히 생산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중앙계획없이도 자본주의의 가장 취약점이었던 생산의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고 계속적 발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5. 현재의 공산주의사회의 정체현상은 공산독재의 극단적인 관료주의가 개인의 자발적인 창조성을 제약한데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대의 소련 지도자들이 맑스 엥겔스의 100년전의 처방을 맹신하여 기히 나타나기 시작한지 오래된 이상의 현상들을 의식적으로 회피하고 외면하여 온 결과인데 심지어는 체코, 헝가리 등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민주적 공산사회 건설노력을 무력으로 탄압하여 맑스 레닌 체제만을 강요한데 있다.

고르바초프의 위대성은 맑스 레닌의 과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회건설을 생각한데 있다.

### 참 고 사 항

1. 북의 체제의 속성과 중공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북에서 동구 특히 루마니아와 같은 사태가 야기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일성 사후에는 후계자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한 통제가 가해질 것이므로 국민들의 항거는 더욱 어렵게 되어 북의 체제의 붕괴에 의한 통일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므로 김일성이 살아있고 집권하고 있는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통일의 적기일 것입니다.
2. 건의안중 분방의 원수직을 겸하는 연방대통령의 종신제 임기때문에 1인의 장기집권의 시비가 염려된다면, 남쪽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병행하여 대통령은 군사와 외교만을 관



장하는 상징적인 국가원수로 하면 될 것입니다.

3. 연방헌법제정 국민투표와 연방정·부통령 및 연방의원 선거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발동하여 여야간의 찬반운동을 배제하고 즉시 국민의 찬부를 묻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4. 당연한 일이지만 연방의회는 외교와 군사에 관한 입법과 조약의 인준 및 예산심의가 권한의 전부이므로 분방의회의 권한을 크게 제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5. 예산은 남북의 균등분담방법과 차등분담방법이 있습니다.
6. 이 방안 이외에 남북이 다같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찾아낼 수가 없을 것이므로 조속히 김일성을 설득할 수 있는 밀사를 파견하여 북의 동의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 국토통일원 회신(견해)에 대한 회답

##### 1. 상호불신과 통일저해요인의 제거문제

근본적으로 이념과 체제가 상이한 우리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방교류협력만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과 통일저해요인을 제거하고 통일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100년이 지나가도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원의 견해대로라면 북쪽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의 기회가 올때까지 통일에 대한 노력을 유보하자는 결론이 될 것입니다.

다만 대국민 대외국인에 대한 홍보적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분석해 볼 때 현금의 남북간에 있어서의 상호불신과 통일저해요인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랫동안 양측의 교류가 없어서 서로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비록 서로의 교류는 없었다 하더라도 양측이 서로 상대방의 모든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교류조차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는것이 아닙니까.

서로가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극한적인 대결관계에 있는 우리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에 전면적인 교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경제력이 대등할 때일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지난 196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는 우리 남한의 경제사정이 북쪽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측의 교류제의를 받아드리지 못하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역으로 북측의 경제사정이 남한에 비해서 현저하게 낙후되어 있는 관계로 남한의 교류제의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오늘날 특별한 제도적인 보장장치없이 남북간에 전면적인 교류가 실현될 경우 개방(교류)압력에 밀려서 경제적으로 상대적 열세에 있는 북한의 체제는 붕괴될 것이고, 지배층은 파멸될것이 자명한 일인데 북한의 지배층이 자기파멸을 자초하게 될 교류(개방)에 응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방안은 대내, 대외의 홍보수단이지 진정한 통일방안일 수가 없는 일입니다.

## 2. 통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조건)

이익을 달리하는 상이한 두개의 정치집단간의 통일(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집단의 지배자간의 이익을 다같이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창출해 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서 서로가 믿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서로간의 불신을 씻고 통합(통일)을 위한 합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금반의 민정·민주의 통합과정을 살펴보면 위의 명제가 극명하게 들어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사, 정치적 관행, 정치원론에 의할 때 누구나 민정·민주의 통합보다는 평민·민주의 통합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두 야당의 통합은 야당통합의 선례도 있었고, 야당으로서의 기능통합의 원리와 명분에도 맞고 또한 그들의 야당적인 속성과 지난날 구민주당에서 부터 민중, 신민, 통일민주당등 오랫동안 한집안 식구였다는 구연을 돌이켜 보더라도 누구나 민주·평민의 통합은 생각할 수 있었으나 민정·민주의 통합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4당체제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당의 통합을 시도하려면 평민당과의 통합을 먼저 생각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은 차기대권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서로가 양보할 수 없는 김영삼과 김대중 두 사람의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표면에 내세운 명분이야 어떻든 간에 민정·민주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 것은 현실적으로 민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이 헌법상 5년단임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도 민정당내에 차기의 대권경쟁에서 김영삼, 김대중을 이겨낼만한 후계 주자가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민정당은 김영삼을 영입하여 계속 집권이 가능하게 될 수 있고, 김영삼은 통합신당의 차기의 대권주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양당과 양당 지도자 간의 이익의 일치점을 창출해 낼 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각책임제 개헌을 할 경우에는 지도자의 교대과정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재집권의 가능성까지를 예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통합(통일)을 이룩할 수가 있었던것이 아닙니까

이상의 통합의 논리는 경우가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의 남북의 통합통일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외교와 군사권만을 관장하는 연방정부의 공동대통령제와 부통령제의 도입에 의하여 연방헌법으로 김일성 부자의 세습을 보장하여 주고 남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받고 남한의 실정에 맞게 운용의 묘를 살려나가는 방법이기에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제도가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어느쪽도 못믿을 까닭이 없고 또한 어느지도자도 얻는 것만이 있을뿐 잃는것이 없기 때문에 쉽게 합의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즉 양측의 지도자가 다 같이 민족통일의 주역으로서의 영광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면서도 기존의 남북간의 내부의 지배관계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 3. 군부주도 통일방안의 요점(건의안)

연방헌법에 의한 연방국가기구의 제도적 장치에 의하여 상

호간의 불신과 통일의 저해요인을 일시에 제거하고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인간의 보수적 심리경향을 이용하여 통일을 달성하고 유지하면서 남북이 점차로 동질화의 길을 걷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단일체제화하는 완전한 통일을 성취하려는 것입니다.

그 첫째의 장치가 종신임기제의 공동대통령제와 부통령제의 도입에 의하여 북한의 김일성 부자가 후일의 염려없이 통일에 응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일단 개방 개혁의 길에 들어서면 개방(민주화) 압력에 밀려서 계급독재(당의 지도적 지위)도 포기하게 되고 복수정당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사회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의 고도의 수정형태임으로 이 시점이 남북이 동일체제화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 두번째의 장치가 연방의회의원의 종신임기제와 겸직허용제의 도입에 의하여 북한의 노동당과 군부의 지배층이 현재의 직위에 머물러 있으면서 연방정부 수립에 협력하고 스스로의 감군을 실행하고 통일의 유지발전에 헌신토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화려한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지도 모르는 무력통일이나 폭력혁명을 생각하지 않게 하여 실질적인 단일체제로의 완전한 통일로 유도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어떤 체제로 부터 큰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자는 그 체제의 수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군부의 실력자들에게 과분한 신분과 보수를 종신토록 보장

하여 주려는 까닭은 남북의 군부가 진심으로 합심협력하여 통일을 유지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안정된 통일의 지속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4. 통일협상시기에 대하여 혹자는 김일성 사후가 더 유리하리라고 말하지만 김일성 사망후의 후계자가 그 누구가 되든간에 그 자신의 지배력의 취약성 때문에 오히려 협상자체를 기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지도력과 지배력을 다 갖추고 있는 김일성과 협상하는 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할 것입니다.

5. 협상상대에 대하여는 김일성 부자 본인들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90. 1. 10, 90. 2. 21

# 민족단합의 구심점과 평화통일을 위한 건의문

김 종 인 (마포구 성산2동)

## 머 리 말

전세계 모든나라의 여러가지 국가상징은 한마디로 나름대로의 역사성과 국민 내지 민족의 특수성을 표징하고, 전진적인 미래상을 내포하고 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우리나라 여러상징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상과 같은 의미를 찾기 어렵고 비현실적·비합리적이고 각 상징간에 유기성이 없다는 것이 여러 면에 걸쳐서 산견됩니다.

그래서 현 여러 상징의 불합리성과 불만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안을 감히 제시하는 바입니다.

### 국호에 대하여

모든 명칭은 자타가 동일하게 호칭해야하고 그래야만 그 명칭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는데 우리 국호는 엄연히 법정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국내용에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대적인 국제사회에서는 「코리아」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상대편으로 하여금 우리 법정 국호대로 호칭하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이론도 있겠으나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범세계적으로 오랜 세월동안 회자보급 되어있고 여러 면에 기록되어 있는 관용어가 우리 요구대로 개정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에 맞추어 우리 국호를 개칭하자는 것입니다.

이 국제어인 코리아의 유래를 살펴보면 주지하다시피 옛날 고구려 또는 고려의 와전으로 형성되었다고 하겠는데 다행하게도 오랜 우리 민족사를 살필때 이 고구려, 고려 시대가 가장 자주성이 강했고 씩씩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명칭에 불쾌감보다 오히려 민족의 긍지를 느끼는 바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치못할 한자문화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 한자로 된 국명을 「高麗亞」로 표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로 표음이 국제어와 근사하다는 것과 표의 역시 높은 이상과 아세아를 뜻했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한 한자권인 일본에서는 우리와 같이 「고리아」로 중국에서는 「꼬리야」로 발음되는 것이 또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차라리 코리아의 어원인 고려로 하자는 주장도 있겠으나 이것은 복고적이고 후세에 전고려 후고려 등으로 복잡성이 있고 또 고구려→고려→고리아 등식으로 승화하는 것이 역사의 흐르는 과정에 순응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고려를 중국에서는 「꼬우리」, 일본에서는 옛부터 「고라이」 또는 「고마」라고 불러서 현 국제어와도 불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韓민족과 漢민족의 동일한 발음에서 오는 혼란도 미리 막아야 할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 현실에 따르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 국기에 대하여

모든 도안은 일견해서 그 뜻하는 바의 전달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태극도안이 우리가 염원하고 바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감명을 주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또 태극을 우주상징이라고 주역철학자들은 주장하나 현 우주과학시대에서의 합리적인 타당성이 희박하고 아울러 너무도 그 대상이 광활무변하고 그 의미가 애매모호해서 민족적인 구심점 파악이 어렵고 태극기의 내용설명에 있어 자신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는지 역시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의 나라 국기설명은 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내 국호설명에 자신이 없다면 이것도 수치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태극논리를 풀이하려면 부득이 타민족의 고전문헌을 들추어야 하니 이 역시 자주민족으로서 자랑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의 국정과 동기가 자랑스럽지 못합니다. 즉 임오군란의 수습차 박영호씨가 도일선중에서 착상한 것이라는 것만을 여기에 밝혀둡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도하여 별지와 같은 旗印을 시안하였습니다. 이 기는 무슨 음양이나 사상팔괘따위의 복잡불가해한 뜻은 없고 일반대중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 명료합니다. 이 기인의 概意는 大空을 향하여 아침해가 수평선상에 솟아올라와 우리 국토인 대지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즉 대공은 우리민족의 전도가 무한대로 양양하다는 것이고 아침해는 그날 그날 인간생활의 첫 신호임과 동시에 전진과 희망을 뜻합니다. 대양의 “물” 자체는 어떠한 힘으로도 그 교류의 완전분리가 불가능하고 항상 자율적으로 합일하고 평면을 형성한다는 것이 “물”의 본성이고 보

면 우리민족의 통합단결과 민주주의원리인 자유와 평등사회를 뜻하는 것이고 대지인 우리국토는 黃穗萬波인 민생의 넉넉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황색인종의 우리민족을 의미합니다.

이 기명을 개천기라고 이름지었습니다. 이 개천기의 취의를 좀더 부연하자면 지금까지 거론한대로 빛나는 희망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옥일승천격으로 무한대 전진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나라의 국기에서 흔히 “해”와 “별”을 보는데 “해”와 “별”의 등위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겠고 같은“해”일찌라도 “아침해”는 그 의의가 다르다고 보고 세계 어느나라 국기보다 철학적 과학적으로 훌륭하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국토가 아대륙의 동방에 위치해 있고 우리민족의 태양 숭배의 광명사상과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이 모두를 종합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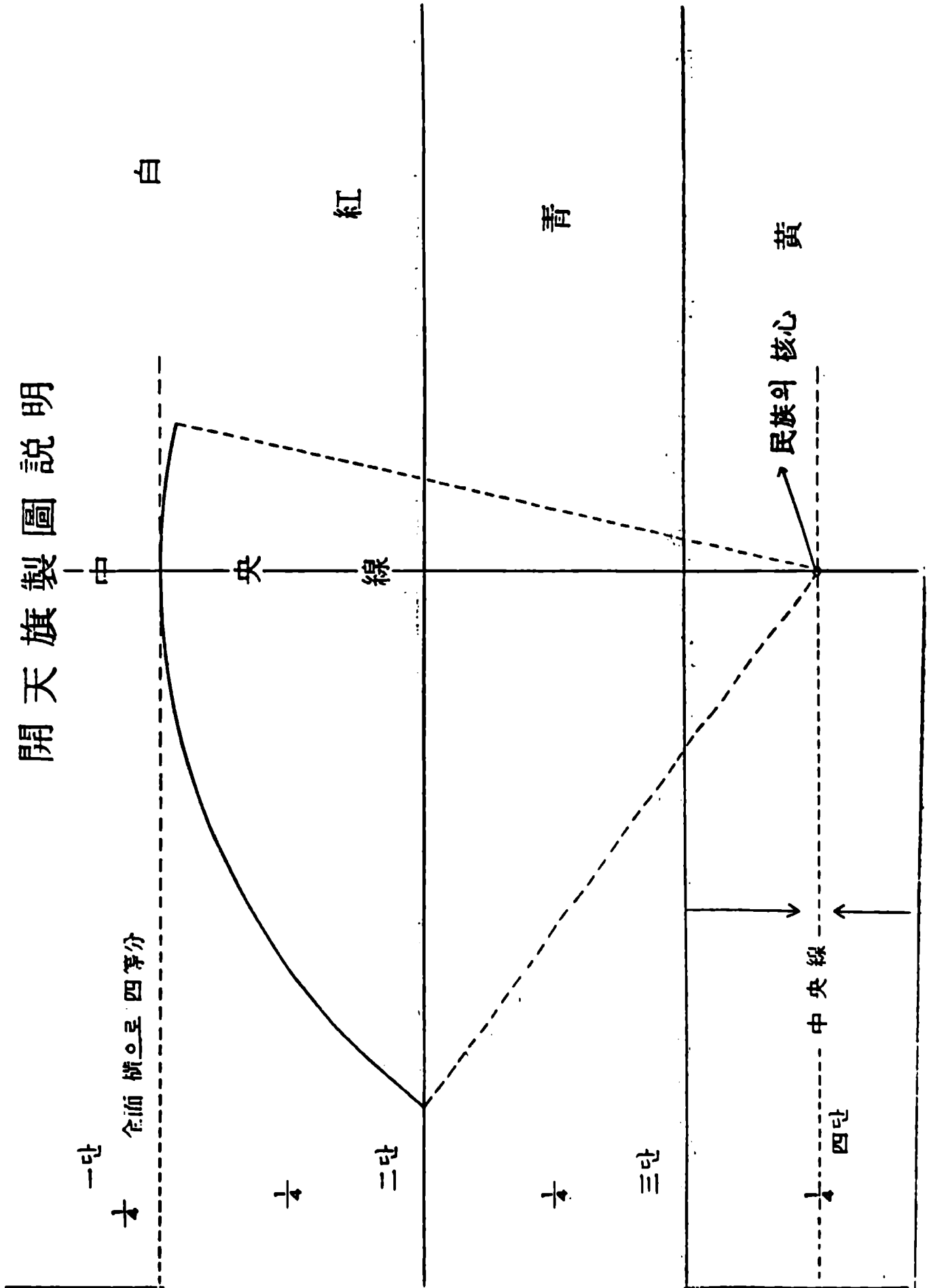
아울러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닌 능률하고 약동하는 아침 나라로 민족개성을 개조하자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방의 해뜨는 나라라고 말했답니다. 여기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 개천기 제도설명

어떠한 넓이든지 세로로 절반을 접어서 중앙선을 정합니다. 가로로 4등분합니다. 제일 하단을 가로로 절반을 접으면 세로로 그어진 중앙선과 교차되는 점이 나옵니다.

이점을 중심으로 2단 안에 들도록 콤파스를 돌리면 아침해가 그려집니다. 제도방법이 기폭 전체를 접어서 각 부분을 안배하기 때문에 각 비례가 정확하고 또 상하가 분명하고 표리가 없습니다.

착색은 3 원색으로 했습니다.( 별도참조 )



## 애국가에 대하여

국가 역시 그 뜻하는 바가 고무적이고 전향발전적이어야 할 터인데 우리 애국가는 그 점이 미흡합니다. 그 한 예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이 「마르고 닳도록」은 물론 무궁을 뜻하는 것인데 이 무궁의 비유에 창일과 융성이 있고 쇠잔과 고갈이 있다면 어찌해서 후자인 쇠잔과 고갈을 인용해야 하는가? 다음 「하나님이 보우하사」는 다분히 의타심과 요행심의 표현이고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는 외침으로 부터 방어 내지 현상유지에 급급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이 가사 창작당시의 시대성을 이해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는 엄연한 독립국가로서 당당한 긍지와 원대한 미래상을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사를 지어봅니다.

- ① 동녘하늘 밝아온다 금수강산에  
우리민족 앞날이 밝아온다  
빛난역사 억만년 이어나가자  
높은이상 고리아다 우리나라만세
- ② 아침해가 솟아온다 금수강산에  
우리민족 희망이 솟아온다  
새역사의 창조에 힘을모으자  
높은이상 고리아다 우리나라만세

될수있는대로 평의간명하게 지어봤습니다.

## 국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꽃의 심미기준은 물론 아름다워야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향기와 과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격에 비유하면 향기와 과실이 없다는 것은 부덕과 무실과 같다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국화를 선정할때는 그 꽃의 기질도 발랄해야 하고 그 꽃나무 역시 풀이나 웅졸한 관목보다 억센 교목이면 더욱 훌륭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화 무궁화는 이상에서 지적한대로 라면 국화로서 부적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화로 매화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매화의 향기나 과실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겠고 제일일찍 개화하며 그 기질의 억셈은 설중매라는 한마디로 족할 것입니다.

여기서 민족의 상을 찾고자 합니다.

## 수도지명에 대하여

우리나라 수도지명이 “서울”이라 함은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혼동으로 언어교육상 혼란이 있다 하겠습니다.(서울이 서울에 있다는 식의) 그래서 만약 국호가 개칭된다면 여기에 맞추어 수도지명을 “고리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호와 수도지명이 비슷하면 국제사회의 인식도 빠르리라고 믿습니다. 국호와 수도지명이 비슷한 나라의 예를 들자면, 브라질리아, 과테말라, 멕시코 시티, 파나마, 알제리 등을 들 수 있고, 도를 옮겼을 때의 경우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맺 는 말

지금까지 여러 국가상징의 대안에 대하여 민족적 염원을 상호유기적으로 집약반영시켰다고 내 나름대로 믿으면서 이 모두를 체계있게 정리한다면 민족정신의 하나의 교본도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국가상징 개정이라는 국가적 대사업은 어떠한 역사적 대전환기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안이 황당무계한 발상이라고 자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숙원인 민족통일이 이뤄져야 하고 꼭 이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원대로 평화적 남북통일이 된다면 남북다같이 종래의 국가상징 대신 반드시 새로운 제3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믿고 이에 대한 참고로 이것을 구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국민정신의 지주였던 여러 국가상징을 함부로 다루고 비판하여 그 존엄성을 훼손한데 대하여 심심한 사과를 올리며 차제에 이북의 그것을 아는바가 없어서 다루지 못한것을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인으로서는 최선과 만전을 기했다고 사료하나 뜻을 같이하는 강호제현의 아낌없는 비판과 검토있기를 바라나이다.

90. 1. 29

#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규책하며 통일방안에 침제한다

최 종 성 (경남 마산시 두척동)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조국의 평화적 자주통일 독립에 이바지하고자 이 글을 쓴다.

1989. 9. 11 일 발표한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성패전망에 대한 나의 견해와 방안을 말하고 그 성패의 결과가 오로지 정치인들의 마음 돌리기에 달려있음과 이제까지의 정치인들은 조국의 운명을 멸망의 함정에 끌어 넣고 있음을 규책함과 동시에 그 誤導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나로서는 1988. 7. 7. 노대통령의 개방선언과 금번 9. 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어떠한 異議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7.7 개방선언의 결과가 국내에서는 부작용만 속출하고 북한으로부터는 역이용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9.11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역시 낙관할 수가 없고 그 결과는 비관적이다. 왜냐 그 원인과 이유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민족적 자주성 상실때문이다. 노대통령은 9.11 통일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주, 평화,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라고 말하였다. 만일 이 “자주”라고 하는 것을 통일후, 자주 통일과 동시 자주를 바란다든가, 또는 대한민국이 이미 민족적 자주가 확립되어 있다고 간주한다면 이는 크나큰 오산이다. 선, 자주바탕, 후, 통일을 추진하지 않고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없다고 보는 것이 나의 견해다.

1948년 남한에 친미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 친소 단독 정부가 수립될 때 벌써 우리의 민족적 자주와 주체

성은 사라져 버렸다. 이와같이 민족적 주체성이 상실된 남한 친미 40년 연속 정부와 북한의 친소 친중 40년 연속 정부가 합작하여 통일정부를 세워 본들 그것은 혼혈 정부에 불과하고 자주 독립 정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민족적 자주, 민족적 주체성을 확립하여 그 자주의 바탕위에 통일 정부를 세우면 혼혈이라 할지라도 자주의 혈손으로 흡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주장하는 민족적 자주, 민족적 주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일본국을 두고 생각해 보자. 일본국은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일본은 민족적 주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국민의 정신이 통일되어. 있어서 민주주의도 잘 되고 국운이 번창한다.

일본의 민족적 주체는 바로 천조대신이라는 전통국신, 즉 전통황실이 나라의 주체가 되어 천조대신의 신주가 국민의 주체가 되고 천조대신의 신주가 국민의 心志로서 일본국민의 정신을 염주처럼 하나로 꿰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 어떠한 풍파가 일어나더라도 나라를 위한 국민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천조대신이라는 국가 단위의 신앙종교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지도이념이 확고하여 교정일치의 국가인 것이다.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되는 미국 역시 하나님이라는 유신론적 주체사상이 확고하여 국민들이 지공무사하고 교정일치가 잘 되고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이다. 그밖에도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들은 거의가 다 민족적, 국민적 자주와 주체성이 확립된 나라들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홍익인간이라는 평화애호의 건국 이념과 개천절이라는 개국 국경일이 있는데도 국민들은 건국 이념을 무슨 소설적, 미신적 일종의 신화로 여기고 (특히 기독교 신자들이) 개천절 국경일은 남의 자식의 생일날 만치도 못하게 지낸다.

민족적 주체성이 상실된 예는 얼마든지 있다. 최근의 일례를 말해보고자 한다. 보안법이란 국법은 전체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성직자 김수환추기경에게는 불고지 죄가 적용되지 않고, 김대중 평민당 총재에게는 불고지 죄가 적용된다고 할 때 두분다 대한민국의 한사람의 국민임에는 틀림 없다.

그런데 이런 기현상도 있는가. 이러한 일의 원인이 바로 자주와 주체성 상실 때문이다. 성직자에 해당되는 교황청법을 존중해서 그리된 줄 안다. 그러나 그 성직자의 범주는 어디까지나 천주교 교황청의 법이지 대한민국의 국법은 아니며 성직자의 자격 역시 천주교회 범위내의 성직자인 것이지 국민 전체의 성직자가 아니고 단군교계의 성직자도 아니며 유교, 불교, 천도교, 기타 종교의 성직자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천주교 신도들은 전체 국민의 일부분이지 국민전체는 아닌 것이니 우선 공과 사의 구별에서 어긋난다. 이 문제가 유아무야 사라져 버려서 말할 것 없지만 만약에 김대중 총재가 불고지 죄의 처벌을 받았더라면 교황청의 법이 나라의 제일의 위치에 올라 있고 국법은 제 2의 위치에서 따라 다니는 꼴이 될 뻔 하지 않았는가. 이와같이 민족적 자주, 민족적 주체성이 마비되고 사대근성만이 판을 치고있는 현하 대한민국의 상황속에서 한민족 공동체가 뭉쳐지고 자주통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것은 마

치 미꾸라지가 변하여 용 되기를 바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선에 급선무는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며 민족적 자주, 민족적 주체성 회복에 있고 통일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며 민족적 내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민족적 자주, 민족적 주체성 확립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자.
2. 동학사상과 혁명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3. 동학창도일을 국경일(국민의 공휴일)로 제정하자.
4. 헌법에 국가단위의 종교 자유를 삽입하고 동시에 동학(천도교)을 나라의 제일 종교로 법제화 승격하자.

90. 2. 2.

# 김일성 신년사와 문목사 “방북”에 관련한 견해.

박 찬 웅 (3Massey, SQ#401. Toronto, ONT M4C 5L5)

## 金日成主席의 新年辭를 읽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주석이 지난 1월1일 금수산 의사당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

### ○ 고려연방제의 허구성

“우리에게는 북과 남이 공동으로 합의하고 선포한 조국통일 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이 있으며 그것을 구현한 합리적인 통일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놓은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다같이 접수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방안으로서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석이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성있는 방안”이라고한 고려연방제란 남북한의 현체제를 그대로 두고 군사와 외교만을 연방정부에 맡긴다는 전혀 현실성없는 방안이다. 미국도 연방제고 소련도 연방제지만 두나라 다 각각 전국이 같은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서로 상반된데다가 38선에서 140만의 군대가 대치하고있는 적대 상황인데 이것을 그대로 두고 어떻게 연방제를 하자는 것인지? 게다가 외교와 국방은 일원화한다니 더더구나 알 수 없는 일이다. 김주석은 남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 콘크리트 장벽문제

“무엇보다도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에 쌓아놓은 콘크리트장벽부터 허물어버려야 합니다.

“콘크리트장벽은 민족분열과 북남대결의 상징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장벽을 그대로 두고있다는 것은 우리민족의 수치입니다.”

남한측이 콘크리트장벽을 쌓았다면 이는 북한의 무력침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다. 남한에는 북한에서 볼 수 없는 자유와 번영이 있다. 북한은 1950년에 6·25 전쟁을 도발했을뿐 아니라 지난 40년간 별아별 도발과 테러행위를 감행해왔다. 정부의 최우선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인이상 남한정부와 군은 무엇보다도 국토방위에 만전을 기해놓고 통일을 협상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6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고 2만의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콘크리트장벽도 쌓았다. 이것은 오늘과 내일의 역사에 추호도 수치스러운것이 아니다.

정말로 수치스러운것은 남한이 방어용 장벽을 쌓은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침용 땅굴을 파놓은 일이다. 4천만 남한국민의 가슴을 멍들게한 김신조테러, 랑군테러, KAL기 납치, KAL기 폭파, 조업중인 남한어민에 대한 빈번한 납치행위등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는 인민의 기본권의 철저한 박탈과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공산세습독재체의 확립이 우리 민족사에 두고두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김주석은 장벽제거를 호소하기전에 38선일대에 집결시켜놓은 80만대군과 수천대의 탱크를 줄이고 도발행위를 중지하여 남한국민들에게 무력남침의 야욕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 자유왕래주장에 대하여

“콘크리트장벽을 제거하고 북과 남은 자유로운 내왕을 실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차별없이\* 상대측 지역을 자유로이 내왕하면서 제한없이 접촉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자유내왕을 실현하는데 머물지 말고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를 서로 전면개방하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a) 김주석의 자유왕래 전면개방주장은 지당한 말씀이다. 행여나 앞으로 그가 변심하여 이 주장을 철회할까봐 두렵다.

b) 그런데 이토록 개방적인 김주석이 왜 남북한서신교환에 반대하고 왜 북한에서 인민에게 북한내의 자유왕래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가?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평양시민은 북한내 모든 지방을 여행증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거주지 군내에서만 자유 여행할 수 있었던 다른지역 주민들도 도안에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하는 조치를 추진해오다가 최근 동구권에서 개혁 물결이 일자 이를 갑작스럽게 보류했다는 소식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찌기 상상도 못했던 인권유린이며 일제시대에도 이조시대에도 없었던 일이다. 북한국민들은 이토록 묶어놓고 남한국민에 대해서만 북한자유왕래를 충동질하는것은 불순한 처사다.

c)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교포들의 수가 1989년에는 500명선에 달했고 90년에는 1천명이 될것이라는 소식이다. 500명이라면 대충 김포공항에 하루에 들어오는 교포수가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들에 대해 남한정부는 전연 개의 치않는데 북한정부는 이들 방문객들에게 일일히 안내원(?)을 붙인다. 이것이 무얼하는 짓인가! 이러면서 남한정부에게 “서로

제한없이 접촉하며 활동하자”는 제의 또한 허망한 소리가 아닌가!

☆ 남한정부는 이런 모든 김주석의 국민탄압에 항의하고 최소한 1) 세습독재제도 폐지선언과 2) 국민의 국내여행자유보장이 실천될때까지 김주석의 통일에대한 모든 헛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

○ 세계 자주화의 물결

“세계에 자주화의 물결이 세차게 흐르고 있는 오늘...”

a) 김주석이 말하는 오늘날 세계에 흐르는 “자주화의 물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동구라파와 중화인민공화국 및 몽고의 인민들의 공산독재에 항거하는 물결, 남아프리카의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항거의 물결, 그리고 불턱연안 3개국에서 일어난 소련제국주의에 항거하는 물결이 아니든가! 겉으로 보기에 민중이 항거하는 상대는 다르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조류는 전인류가 그것이 외세이건 내세이건 여하한 독재에도 여하한 억압에도 이제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각성인것이다.

그래서 누구나 이 물결을 “민주화의 물결”이라고 일컫는데 김주석은 이를 궁색하게도 “자주화의 물결”이라고 표현했다. 자신이 루마니아의 차우체스코 이상가는 독재자라는것을 알고있기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b) 김주석은 북한국민에게 철저한 자유박탈과 빈곤을 안겨놓고 미군철수와 통일만을 외치고 있으니 그 저의가 무엇인지 딱한 노릇이다. 적화통일해서 남한국민에게도 그런 덤터기를 씌우겠다는 말인가? 아니면 통일해서 이제부터라도 북한국민에게 자유와 번영을 안겨주겠다는 것인가?

○ 전체국민의 의사

“오늘 우리민족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오로지 조국을 통일하려는 하나의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으며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고자 말겠다는 꺾을수 없는 의지와 신념에 넘쳐 있습니다.”

a) 남북동포와 해외동포가 모두 “오로지 조국을 통일하려는 하나의 열망으로” 살고있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초점을 잃은 말이다. 특히 북한국민은 무엇보다도 독재의 쇠사슬에서 풀려나 정신적으로 자유스럽고 경제적으로 충족하게 살기를 원한다.

b) 김주석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광범한 지지”라고 막연하게 말했는데 과연 김주석을 지지하는 남북한국민이 얼마나 될까?

1987년 12월 한국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전국투표율 88.5%를 기록한 가운데 노태우 36% 김영삼 27.5% 김대중 26.5% 김종필 7.9% 신모 0.2% 무효 2%라는 득표율을 보였다. 여기 투표에 참가한 국민중에는 김주석을 지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기권이 11.5%가 되지만 그중에서 김주석을 지지해서 기권한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니 남한국민중 김주석지지는 5%를 넘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구라파 공산국가들의 최근의 사태를 알리고 자유선거를 실시한다면 김주석이 30%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독재자는 언제나 국민을 독재의 쇠사슬에 묶어놓고 전국민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법이다.

# 民主運動과 統一運動

## — 文牧師와 金主席의 對話에 關하여 —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이후 네차례에 걸쳐 투옥당하면서 줄기차게 한국의 군사독재와 싸워 1987년의 6·29 선언까지 물고 가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해온 문익환목사는 1989년 1월에 전민련상임고문으로 취임한 뒤 3월 20일에 서울을 출발 동경과 북경을 경유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주석과 만나 통일문제를 놓고 두차례(3.27, 4.1) 회담했고 4월 2일에는 祖平統 허담위원장과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국가보안법위반이라하여 그가 4월 14일 김포 공항으로 귀국하는 즉시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 10월 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 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 ○ 문목사의 구속 및 재판회부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이 한국인의 북한여행을 국사범으로 다루고있는것은 잘못이다. 더구나 노대통령이 작년 7·7성명으로 북한을 민족공동체로 규정하고 상부상조하기로 발표해놓고도 한국민의 북한여행을 막는다는것은 모순이다. 남한국민이고 북한국민이고 누구나 자기지역뿐만아니라 상대방지역에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도록 쌍방당국은 보장해줘야 한다. 더구나 남한은 명색이 자유민주국가인데 북한여행을 했다고 투옥을 하다니 언어도단이다.

더구나 문목사는 1918년생으로 71세인데 옥중에서 병들었으니 보석을 허가함이 당연하거늘 이를 거부하고있는 재판부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 문목사에대한 나의 존경심

나는 해외에서나마 한국의 민주회복운동에 동참하면서 늘 문익환 문동환 형제목사를 존경해왔다. 더구나 이 두분 목사의 양친되시는 문제린목사 내외분을 토론토에서 가까이 모시면서 여러해동안 목요기도회나 한국민주사회건설협의회(民建)운동에 동참해온 관계로 문목사형제분에 대해서는 만나기전부터 동지애와 친근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문목사가 실정법을 여기면서 북한을 다녀온 충정과 용기에 대해서도 다시금 경의를 표한다.

또 내가 북미대륙에서 처음으로 반독재진영에서 한인회장으로 입후보하여 1986년 12월에 당선되었는데 런닝메이트인 두 부회장중 한분이 문익환목사의 서랑인 박성수씨였다. 나는 박씨와 만 2년간 같이 토론토의 한인회일을 맡아봤다. 또 문목사의 妹氏 되는 문신희여사와는 같은 토론토에서 자주 만나며 지내는 사이다.

나는 6·29 후 비로서 한국정부로부터 여권갱신을 받아 12년만에 고국을 방문, 1987년 10월 23일에 수유동 527-30으로 문목사를 찾아가 문목사와 92세가 되신 자당 김신묵여사께 인사를 드렸다.

× × ×

나눔기획에서 발간된 “나는 왜 평양에 갔나 — 문익환목사 공판기록 —”에 실린 문목사의 글에대한 나의 견해를 이에 밝히고자 한다.

○ 문목사의 김일성관

내가 이해못할일은 남한의 민주화를 위해 남한의 독재정권과

격렬하게 싸워온 문목사가 북한의 인권상황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보다도 백배나 더 참담하고 탄압의 주역이 바로 김일성주석인데 어째서 그에 대해 저항감이 없는가하는 점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김주석과 협력을 해야할텐데 그를 욕하면서 어떻게 그의 협력을 구할수 있겠는가 하는 배려에서 나온것인지? 그렇다면 통일을 위해 남한의 대통령의 협력도 얻어야할텐데 문목사는 그간 남한의 독재자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없이 격렬하게 싸워왔다. 민주운동은 독재를 타도하고 국민이 주인되게하는 운동인데 약한 독재에는 격렬하게 싸우고 심한 독재에는 저자세로 나간다면 이것은 모순이요, 민주운동으로부터의 전열이탈이 아닌가?

나는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문목사가 김주석을 보는 눈이 지나치게 관대함에 저항을 느낀다.

“저는 김주석의 통일의지가 확고하며 동시에 통일문제에 협조하는 그의 자세 또한 매우 유연하다는것도 확인한 셈입니다.

( p. 72 )

“적어도 김주석은 통일을 이룩해놓은 지도자로서 역사에서 물러나고싶어 한다는것을 여러가지 증거로 알 수 있었습니다.”

( p. 85 )

“주체사상의 철학적인 근거인데 그건 휴머니즘 즉 인본주의입니다.” ( p. 86 )

“인민이 주체가 아니라 인민을 비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개인숭배적인 주체사상,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들어가서 김주석에게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북쪽에서는 이미 그것을 알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 p. 87 )

### ○ 문목사의 통일론

“제가 김주석에게 “남쪽의 통일열기는 이미 아무도 끌 수 없을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분단 50년을 넘기는것은 민족적 수치라고 생각합니다.”고 했더니 김주석은 크게 공감하면서 “잘하면 될수도 있죠.” 하면서 “문목사의 통일론은 민주이자 통일이고 통일이자 민주주의라지요?” 하길래 “그것은 70년대의 통일론입니다. 지금은 민주와 자주와 통일! 이 셋이 하나입니다”라고 했더니 “나와 같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 p. 70 )

a) 문목사의 통일론은 “민주와 자주와 통일” 이라고했다. 그리고 이에대해 김주석은 이것이 자기 생각과 같다고 맞장구를 쳤다.

b) 지금 김주석이 독재를 펴고있는 북한땅에는 민주도 없고 자주도 없고 통일도 없고 그러한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남한땅에는 통일은 안보이지만 민주와 자주가 싹트기시작했다. 문목사는 민주와 자주가 남한보다 북한에 더 있다고 착각하고 계신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c) 민주와 자주와 통일이 하나라는 말은 개념의 혼돈에서 온것이다. 민주에는 자주가 포함되는 것이니 자주를 따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민주와 통일은 별개의 개념이다.

### ○ 교차승인문제

“저도 분단을 고정시키는 교차승인은 반대합니다. 그러나 과도기적인 단계로서도 교차승인제는 여지가 없습니까?”고 했더니 김주석은 이에 단호하게 반대하였습니다.” ( p. 70 )

“북쪽은 1960년대이래 일관되게 연방제안을 주장해왔으나 남쪽은 계속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을 주장해왔습니다. 북의 시

각에서 볼때 남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독일식분단을 획책하는것... ”

( p. 77 )

a) 교차승인이란 각 당사국들의 합의아래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고 소련과 중공이 남한을 승인하여 남북한을 공히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으로 만들자는 안이다.

교차승인을 하면 분단이 고착된다는 김주석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국제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되면 거기에 안주해서 분단이 고착되고, 국제사회에서 자격미달상태이면 그것이 불편해서 통일을 위해 노력을 배가할것이라는 말인것 같은데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대결하는 족족 참패를 당할것이니 만나는것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김주석의 속셈이 아니겠는가.

b) 그러나 김주석은 이 결정에 대해 후회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남한의 국력과 국제신용이 신장하는 경우 중공과 소련이 북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한을 승인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c) 문목사는 “독일식 항구분단” ( p. 71 ) 이라고 비난하지만 독일은 각성한 동독국민이 “민주화”를 요청하여 한국에앞서 독일을 통일할 전망이 크다.

#### ○ 고려연방제

문 ; “북쪽이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는 남과 북을 두 단위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남과 북의 현체제를 존속, 공존시키는 것입니까? ”

김 ; “그렇습니다. 그러나 군사, 외교는 연방정부의 주관하에 두자는 것입니다.”

문 ; “그것에는 저도 이의가 없지만 그일을 한꺼번에 이룰려면 부지하세월이기때문에 군사, 외교를 연방정부아래 통합하는 일

을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일은 고려할 수 없겠습니까?(중략) ”  
라고 했더니 의외로 쉽게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협상을 통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고 합의해 주었습니다. 그  
러나 유엔에 한나라로 가입한다는건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강조했  
습니다. ( p. 71 )

“연방제라는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지방자치제  
이기때문에 연방제는 곧 민주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연방제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아닙니까” ( p.77 )

a) 지금 이순간에 남한의 60 만대군과 북한의 80 만대군이  
수천대의 탱크를 맞대고 대치하고 있고 20년간 남북회담을 해  
봤지만 가장 기초적인 서신교환조차 합의못하는 주제에 연방제  
가 무엇이고 지방자치제가 무엇인가. 이것은 황당무계한 소리다.

b) 김주석은 남북이 각각 자치를 하되 군사와 외교만은 연  
방정부의 주관하에 두자고 한다.

남과 북의 정권이 서로 원수지간으로 있는데 남과 북의 군  
대를 합쳐놓고 어느 한사람에게 지휘권을 맡긴다면 그날로 한  
쪽으로 먹히고만다.

c) 어떠한 연방제도 어떠한 통일도 이념과 제도가 같을때  
만 성립될 수 있다. 남북한국민이 다 나라의 주인이 되어 민  
주화가 된 연후에야만 접목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1) 북한의  
고려연방제 2) 남한의 한민족공동체 체제연합 3) 문목사의 3 단  
계 연방통일안 4) 평민당의 공화국연방제 등 모두가 현실성이  
없다.

#### ○ 미군철수문제

문: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는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김; “변함이 없습니다.” ( p. 74 )

“통일원에서 발표한것을 보니까 88년도 북한의 GNP가 한국의 8분의 1입니다. GNP가 8분의 1밖에 안되는 나라가 쳐내려올까봐 무서워서 미국이 가면 당장 적화가 될것같이 호들갑을 떠는 이러한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아프가니스탄국민들이 소련을 물리쳤어요. 소련이 쳐내려온다고해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요. ” ( pp. 79 ~ 80 )

a) 미군철수는 남한국민이 정할 문제다.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세습독재요,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체제로서 빈곤을 초래했다. 그러면서도 80 만대군을 두고 그간 발견된 남침용 땅굴만도 2개가 있다. 남한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유가 있고 경제적 번영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위해 60 만대군을 보유하고 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이에따라 2만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자기 나라를 방위하는데 자기 힘만 가지고 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미국과 소련밖에 없다. 나머지 나라들은 다 다른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 국방을 튼튼히 한다. 이 군사동맹에 의해 외국군이 주둔하는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이므로 이것은 자주적인 것이며 하나도 탓할것이 없다.

b) 미군주둔이 통일저해요인인가?

비교해서 고찰할때 나라의 체질상 남한군의 기습북침가능성은 작고 북한군의 기습남침가능성은 그보다 크다. 또 이와 견주어 주한미군이 북한군의 기습남침을 방어하는 견제력은 크다. 이러한 분석으로 미루어 미군의 주둔은 남북한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보다 완화시킨다. 단 김주석의 입장에서는 미군주둔이 적화통일의 절대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군이 있다고해서

남북회담에 지장을 줄것이 없다. 아마 미군이 없었다면 북한측이 더많은 생떼를 쓰고 폭행이나 총격사건도 더 빈번히 일어났을 것이다.

현재 동독에는 소련군이 38 만명 서독에는 미군 25 만과 캐나다군 7 천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이 동서화해에 불리하게 작용한것이 없다. 외국군이 60 만명이 주둔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11 월 9 일 동서독간의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론이 꽃피고 있다.

김주석과 문목사는 미군을 통일저해요인으로 간주하는데 나는 진짜 통일저해요인은 외세인 미군이 아니라 내세인 남북한의 독재라고 본다. 왜냐하면 미군이 있건 없건 통일은 쌍방이 민주화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통일운동은 덮어놓고 “통일”을 외치는 일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독재를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믿는다. 여기에 문목사와 나와의 통일에 대한 시각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c) 북한의 GNP가 낮으니까 안심해도 좋은가?

좁은 땅덩이에서 기습공격을 당하는 경우에는 GNP가 8 배가 아니라 80 배라도 어이없이 당할수가 있다. 그리고 김주석의 체질로보나 전력으로보나 군비로보나 남한은 이에대해 만전의 국방태세를 갖추어야한다. 정부의 첫째가는 임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이기 때문이다.

GNP 뿐만아니라 현재의 국제정세의 조류를 봐도 김주석이 경거망동으로 나올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우리가 지켜야할 법익 - 자유와 번영 - 은 크다. 미군의 주둔을 바라는 것은 「호들갑을 떠는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자는 것이다.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 미군이 꼭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를 바라는 국민을 소박한 민족감정을 내걸고

모욕해서는 안된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아프가니스탄처럼 물리치면 될것아니냐는 말은 폭론이다.

○ 이산가족문제

문; “다음으로 이산가족문제를 제기했더니 이는 자유로운 민간교류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것이 아니냐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한정부가 진정 통일을 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 p. 74 )

a) 남북한 1천만 이산가족의 아픔! 그것을 아랑곳없이 “자유로운 민간교류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해결될것”이라면서 시치미를 떼는 저 음흉한 심보! 72년에 남북공동성명 이후 17년이 지났는데도 남북회담에 한발짝도 진전을 못보면서 어느 세월이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라도 확인할 수 있겠는가!

b)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서신교류제외에 불응하면서 현실성없는 통일론만 내세우고있는 김주석이 적반하장으로 “남한 정부의 통일의지를 의심한다”고 아주 애국자연하고 있다. 문목사가 이러한 김주석에 동조하는것이 안타깝다.

○ 문화교류

문; “남에서 출판되는 책들을 파는 서점을 북쪽 몇도시에 여는 일, 이에대한 응답은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습니다.” ( p. 75 )

문목사는 순진하게도 북한의 상황과 김주석의 심중을 너무도 모르고 있다.

김주석은 전국민세뇌공작의 차질을 우려하여 국민들의 국내여행조차 금지하고있는 형편이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것이 외부 문물의 국내유입이다. 그런데 문목사가 이런 순진한 제의를 하니 묵묵부답할 수 밖에 없는데 문목사는 이것을 “긍정도 부



정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 주체사상

문 “주체사상이 무엇입니까?”

김 “어느 나라나 다 주체사상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강조하는 까닭은 우리가 약소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문 “그러면 주체사상을 민족주의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김 “그렇습니다.” ( p. 75 )

a) 정치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정직하고 겸손하게 정치만하면 되는 것이다. 정치가가 국민에게 사상을 교육하는 것은 무엄한 탈선행위고 국민은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 남한에서도 이승만의 일민주의, 박정희의 충효사상등이 한시대를 주름잡았다.

b)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이것도 따지고보면 국수주의 배타주의 전체주의의 요소가 다분히 합친것이 아닌가! 김주석의 주체사상은 거기다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봉건주의까지 합쳐놓은 것이니 사상치고 이런 기형아가 있을 수 없다!

× × ×

다음은 같은 책자에 실린 문목사의 글에대한 나의 논평이다.

○ 민중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정부는 인민민주주의와 동일시하여 좌경용공이라고 탄압합니다. 저는 민중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자유민주주의라고하는것이 이승만정권이었고 박정희정권이었고 전두환정권이었고 현재의 노태우정권(중략)”

“자유민주주의는 가진 소수특권층, 그것이 장을병교수의 계산대로하면 전국민의 4%인데 이러한 사람들의 자유만을 자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도적 국민대다수의 자유를 박탈해서 소수가 누리는 자유,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최악이며 자유가 아니고 독재입니다.” ( p. 65 )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가난한 농민들이 일체가되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살아가야한다는 그런 얘기죠.” ( p. 67 )

a) 여기서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등의 용어가 나왔는데 그러한 용어만 가지고는 그 민주주의의 진위를 가릴 수 없다. 북한에서 현재 시행되고있는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정권하의 자유민주주의도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였다. 지금의 노태우정권은 어떠한가? 이것은 다르다.

첫째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됐으므로 정통성이 있다. (총유효 투표수의 37%밖에 못뺐지만 야당이 갈라졌고 선거법이 미비해서 그가 당선된 것이다.) 둘째로 언론의 자유와 야당의 활동이 보장된 가운데 선거가 치루어졌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가보안법같은것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문목사 같은분이 옥고를 치루고있는 것인데 이것은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통해 시정해야할 문제다. 따라서 현재의 노정권은 민주주의로의 과도정권이라고 나는 간주한다.

b) 문목사가 오늘의 노정권을 독재라고 몰고 남한의 노동자와 농민들을 해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나는 문목사의 민중민주주의가 집권했을 경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지 불안하다.

#### ○ 흑백논리

“지난 45년동안 우리들의 사고를 지배해온 분단논리, 흑백논리가 문제입니다. 북쪽 共氏네동네에는 절대로 좋은것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된다고하는 논리, 또 남쪽 民氏네 동네에는 나쁜것이 있을수가 없다. 그래서 북쪽이 좋은데도 좋은것이 있다고 말할하면 고무, 찬양이 되고, 이쪽의 나쁜점을 얘기하고 시정을 요청하고 비판을 하면 이것은 좌경용공이요, 이적행위라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이 흑백논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덕 전반에 걸쳐서 이 민족을 속속들이 불신과 대결과 갈등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 p. 41 )

천번만번 옳은 말씀이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共氏네동네의 좋은 점을 고무 찬양하고 나쁜 점을 비판하자. 또 民氏네동네의 좋은 점을 고무찬양하고 나쁜 점을 비판하자. 덮어놓고 자기편을 두둔하지말고 냉철하게 사리를 관찰하는 이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런데 근래에 共氏네동네의 독재얘기만 하면 “흑백논리를 펴는 분단지향적 반통일론자”라고 규탄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목사가 지적하듯 이제껏 우익독재진영에서 즐겨 쓰던 수법을 이번에는 좌익에서 원용하고있는 것이다.

○ 공산주의활동의 합법화

“저는 공산당도 합법화된 사회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아닙니까.” ( p. 82 )

이것 또한 천번만번 옳은 말씀이다. 남한에서는 공산당이, 북한에서는 민정당이 합법화돼야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남북한에서 꽃피기전에는 통일이란 고귀한 선물이 우리의 가슴에 안겨지지 않을 것이다. 서독에서 공산당이 합법화돼있고 동독의 내각에는 총 28명의 각료중 9명이 기독교민주당등 야당에서 나와있다. ( 1990년 1월 ) 우리는 독일에서 배울점이 많다.

# 민족정신 통일과 조국통일에 대한 제언

이 형 후 (용산구 동빙고동 육군아파트)

## 1. 문제인식

7000 만 우리 민족은 하나같이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통일을 위해서 민족정신부터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민족사학자 백암 박은식은 「한국통사」를 편찬한 목적을 “대개 국가는 민족의 형태이고 역사는 민족의 정신이다. 지금 민족의 형태인 국가는 허물어졌으나, 민족의 정신은 홀로 존재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것이 한국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민족정신이 멀하지 아니하고 존속한다면, 민족의 형태인 국가는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때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서 독립을 위하여 했던 말이지만, 현시점에서 바꾸어 말한다면 “민족의 형태인 국가는 분단되어 있다 할지라도, 민족의 정신만 살아있다면 민족은 살아있는 것이고, 또 언젠가는 민족의 형태인 국가는 통일이 된다”는 논리가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2천여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조국을 잃었지만, 그들에게는 민족적 긍지와 역사의식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토라(Tora)와 탈무드(Talmud) 즉 민족정신이 있었기에, 결국 민족의 형태인 국가는 살아났고, 또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외국 땅에서 살고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나라(외국)사람인것 같지만, 그들은 외국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다. 본국에서 전쟁이 나면, 국적이 어디로 되어있든 간에 민족을 위하여 조국으로 싸

우려 간다. 또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전쟁모금이 본국으로 보내어 진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정신이다.

우리 민족도 쇠퇴된 민족정신(맥, 역사, 전통, 문화, 도덕, 윤리, 예의, 풍습, 가치기준등)을 살리고, 정신적인 지주를 찾아서 의지하고, 맹세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민족정신은 하나로 뭉쳐지고, 통일도 이루어진다.

## 2. 민족정신의 문제점

가. 구심점이 없다.

대한민국이 실시하고 있는 정신교육은 구심점이 없는 평행선식 교육이다. 모두가 “잘하자”하는 쪽으로 교육하고 있고, “어디로 잘하자”하는 “어디로”의 교육목표가 없다. 정치가, 종교인, 경제인, 학생, 노동자등 모두가 자기의 주장이 최고의 애국이고 민족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과 극을 형성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정신교육은 태어나서 죽을때 까지 김일성 하나만 알아야되는, 한 개인의 우상화 교육으로만 되어있다. 이 교육이 북한주민 구심점화 교육으로 이야기 한다면 그런대로 되어 있지만, 김일성이가 7,000 만 우리 민족전체를 대표할 수 없고,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는 없다.

위와같이 민족의 정신교육 현실을 인식하고 통일의 근본이 되는 민족정신부터 하나로 될 수 있는 민족정신 구심점을 찾아서, 남과 북이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교육을 해야겠다.

나. 종교, 종파로 분열되어 있다.

북한에는 자유로운 의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는 별

로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정치적 필요로 종교 기구가 보존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국에는 종교부흥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종교난립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또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다. 종교는 인간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고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장점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먼저 종교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때문에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종교가 교리해석의 차이와 재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같은 종교라 할지라도 여러가지의 종파로 나누어지고 있다.

셋째로 나누어진 종교나 종파가 서로의 교세확장을 위하여 타종교를 비방하고 신도확보에 경쟁적이다.

넷째로 외래종교를 민족정신에 비추어 볼 때 사상, 전통, 생활방식등에 맞지 않는다.

다섯째로 같은 민족이고 국민이면서 종교의 차이로 혼인도 꺼려하고, 심지어는 뜻이 맞은 젊은이들의 정사도 생기고 있다.

여섯째 직장에서도 같은 종교끼리 암암리에 과벌이 형성되며, 종교로 인해서 출세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상과 같이 종교가 끼치는 사회적인 문제를 몇가지 지적했지만, 우리 민족정신에 맞는 종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의 종교로 되었을 때는 민족정신 통일에 암적 요인이 되고, 분열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 다. 김일성 개인의 정권상속 욕구

외세에 의해서 조국이 분단되었고, 서로가 이념과 체제를 달

리 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과 민족정신 통일에는 이념도 체제도 문제가 안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권력이 계승되어 가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따라 민족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민족이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양보가 가능하지만, 북한의 김일성이는 모든 권력을 독차지 하고, 아들에게 까지 유산으로 넘겨 주려고 하는 욕심때문에, 민족의 역사도 자기중심으로 왜곡하고, 민족정신도 민족이 주체가 아닌 김일성을 주체로 돌려놓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의 현상유지와 상속이라는 “김일성의 욕심”때문에, 이념과 체제라는 명목으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것이 민족정신통일과 조국통일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된다.

## 라. 가치기준의 혼미

### (1) 자기중심적인 사리판단

우리말에 같은 말로서 뜻이 다르게 兩心, 養心, 良心이 있다. 兩心은 “두가지 마음”이라는 뜻으로, 표리부동한 사람의 마음이다. 가치기준을 “자기리”에다 두고 良心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良心이 심안에서 보여지는 兩心이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민주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의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객관적인 사리판단은 주관적인 자기중심으로 흘러서 “자기리”에 기준을 두고 판단한다. 즉 자기에게 리가 되는 곳(지역, 사회단체, 종교, 족벌, 출신교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지역감정이 생기고, 갈등과 혼돈이 생긴다.

### (2) 돈(Money)을 먼저 생각하는 가치기준

오늘날의 세상은 돈이 너무나 많은 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

의 세상이다. 생활의 근본이되는 의, 식, 주도, 부, 귀, 영, 화도 돈이 해결한다. 권력과 명예도 돈이 있어야 한다. 죽어가는 생명도 돈이 있으면 살린다. 이러한 돈의 중요성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가치판단기준의 최우선 순위를 돈으로 잡고, 良心을 두 번째로 잡는다. 良心에 가책을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돈이라면 강도짓도 하고 인신매매도 한다.

그러므로 돈의 가치수준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良心의 가치수준이 높아지는 세상이 되면,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마. 우리의 전통문화가 서양문화로 대치되고 있다.

'88 서울올림픽 대회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대한민국에는 굉장한 전통문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감탄하고 돌아간 것처럼, 현실이 그렇지 못한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에 외국으로부터 빵 한조각, 껌(Gum) 한통 얻어먹으면서, 그들의 정신과 문화를 배웠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는 너무 많이 쇠퇴하였고, 너무나 많은 것이 서양화 되어있다. 우리는 우리의 얼과 넋을 팔아서 빵 한조각 사서 먹은 셈이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도 남(이민족)을 도와주어야 할 때가 왔다. 남을 도와줄 때는 우리의 정신을 가르쳐 주면서 도와주어야 한다. 많은 것이 서양화 되어있는 현재의 우리문화를 가르쳐 주면서 도와줄 수는 없다. 쇠퇴한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살려서,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남(이민족)을 도와주어야 한다.



### 3. 민족정신 통일방안

#### 가. 종교를 초월한 민족정신 통일

(1) 신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상적인 존재다.

무지하고 무기력한 인간이 초능력적이고 무한한 자연의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신을 생각한다. 이는 그당시 그 사람들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하나님, 부처님, 알라, 천지신명, 산신령, 용왕, 터줏대감, 삼신할머니등 많은 신들을 생각해 냈고, 철학적 의미도 부여하게 되었다.

(2) 정신은 교육받은 대로 행동한다.

정신이라는 것은 형태도 없고 지향하는 행동방향도 없다. 이러한 아무것도 없이 존재하고 있는 정신에다가 교육이라는 것을 주입시키면, 그 정신은 교육받은 대로 방향을 잡고 인간을 그 방향대로 행동화하게 한다.

만약에 기독교 성경을 정신에다 교육한다면, 그 정신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님을 절대자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기도한다.

또한 그 정신에다가 불경을 교육한다면, 부처님 쪽으로 방향을 잡고, 부처님을 절대자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기도한다.

그리고, 천지신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천지신명을 절대자로 생각하고, 기도한다.

(3) 신, 극락, 천국 모두가 환상이다.

불교에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라는 부처님이 있다. 이 부처님은 중생이 진심으로 념하면, 념하는 중생이 생각하는 형태(아이, 어른, 남자, 여자, 미인등)대로 나타나서 도와준다.

이와같이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형태대로 나타나서 도와준다.

이러한 행위들은 정화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사람이나, 돼지머리 놓고 산신께 비는 무녀들도 똑같은 것이다.

여기서 “나타나서 도와 준다”는 말을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할때 신이 나타나는 것에는, 기도하는 사람의 집념이 있어야 하고, 집념할 때에는 힘(力)이 생기고, 기적도 생기며, 환상도 생긴다. 그러므로 신이나, 극락, 천국 모두가 환상뿐 모든것은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

(4) 신이나 종교나 모두가 일체유심조다.

앞에서 설명들인 바와 같이 신도 인간이 생각해 낸 것이고, 신에게 기도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도 인간의 정신작용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집념과 정진에 의해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공, 기적, 환상등이 생긴다. 따라서, 신이나 종교 모두가 일체유심조다.

(5) 종교를 초월해서 내 민족정신으로 하나되자.

신과 종교 그리고 기도에 대한 상기와 같은 의미를 안다면, 다른 민족이 생각하고 있는 신과 종교, 풍습, 전통등을 배우고 순종할 것이 아니라, 신이나 종교를 초월해서, 우리 민족의 것(정신, 전통, 풍습, 윤리등)을 배우고 익히며 교육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민족의 주체가 되고, 민족정신이 하나가 되는 길이다.

나. 이념을 초월한 실질적인 “삶의 질” 추구

(1) 천국에도 조건이 있다.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세계를 천국이라 한다면, 천국에는 “삶의 질”이 최고의 수준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근심걱정(Anxiety)이 없고 편안해야 되며, 부정함이 없이 풍부하고 만족해야 된다. 그리고 천국에는 상하의 종속관계

가 없이, 누구나 똑같은 절대적인 평등이 있어야 한다. 그밖에도 천국에는 선, 화합, 평화등 좋은 것만 있어야 되고, 그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천국이 될 수 없다.

(2)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궁극적 목표는 천국 실현이다.

자본주의의 세계도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삶의 질”을 최상으로 하는 천국 실현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 그 자체만으로는 천국실현이 어렵다. 인구가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 전문화되어서, 정부가 관여하는 제도가 하나씩 둘씩 늘어나게 되고, “삶의 질”을 최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조금씩 수정해 가고있다.

공산주의세계도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다. 그러나 실현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개혁하며,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3) 이념을 초월해서 민족정신 통일하자.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그러므로 민족앞에서 이념이나 체제같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민족앞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권상속까지 고집한다면 당분간은 북한동포들의 추종을 받으면서 유지는 되겠지만, 역사는 그를 민족의 반역자로 생각할 것이다. 반대로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일보를 양보한다면, 그는 영원히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받을 것이다.

대한민국도 서독이 동독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같이 북한을 받아들이고, 김일성이가 민족을 위하여 욕심만 버리면, 남·북한의 대화로 한가지씩 한가지씩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가 인정하고 이념을 초월해서 조국통일과 민족정신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다.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백의민족의 良心” 설정

良心은 선악, 정사, 시비, 곡직을 판단하여 자기에게 명령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지식이 사회적으로 습관화되고 풍습화된 인식에 의해서, 인간의 행동이 그 인식안으로 한정되는 감정적인 색조의 형태 즉 도덕의식과 같다.

대한민국 헌법 제 19 조에 “모든 국민은 良心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良心도 종교, 도덕, 윤리등에 적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표현된다. 그러므로 良心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良心의 자유”는 무의미하며, 자기 利로 기울어지고 판단기준이 혼미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있는 백의민족의 良心이 있어야 한다. 백의민족의 良心은 백의민족의 범주다. 성경이 하나님의 범주인것 같이 백의민족의 범주는 우리의 맥, 전통, 문화, 풍습, 예의, 도덕, 윤리, 생활방식등, 순수한 우리의 것으로 규정지어진 종교를 초월한 백의민족의 정신이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수많은 良心중에서 백의민족의 범주가 되고, 정신이 되는 백의민족의 良心을 설정해서 이 良心에 순종하고 충성하며 맹세하고 가치판단에 기준이 되도록 해야겠다.

라.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를 찾아서 구심점화하자.

(1) 우리민족은 단일민족으로서 백의민족이다.

우리민족은 신석기시대가 끝나고, 동아시아 역사의 주인으로서 동이족이 형성되었고, 이들이 한민족의 주류가 되었다. 한민족은 동일한 유전인자를 가진 단일민족이며, 소박하고 순수한 성격을 흰옷으로 표현했던 백의민족이다.

우리는 남한에 있는 민족이든 북한에 있는 민족이든, 똑같이

단군성조의 자손이다. 언어와 문자가 같고, 문화와 전통이 같다. 반만년 역사속에서 회·노·애·락을 같이했으며, 동교동락한 민족이다. 지금도 부모형제가 남과 북에서 떨어져 사는 한 핏줄이다.

## (2) 백의민족의 정신세계 “선”

우리민족의 정신세계를 살펴보면, 민족 고유의 사상과 철학은 천인합일의 사상인 “선”이 민족고유의 정신세계라 하겠다. 이는 고조선시대의 제천의식과 천부경(81자),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신라의 팔관과 신라사선(영랑, 술랑, 남랑, 안상), 삼한의 소도, 그리고 고려의 팔관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유학이 국가통치이념으로 확고히 자리잡으면서 재가화상이라는 이름으로 민간에서 명맥이 이어졌으며 얼마전까지만 해도 마을마다 성황당이 있고, 집집마다 터줏대감, 삼신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우리민족의 정신세계를 볼 때, 오늘날 물질문명과 기독교 등 많은 외래문화에 의해서 “선”사상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백의민족의 정신속에는 찬물로 목욕하고 흰 옷입고 천지신명께 지성드리던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 즉 양심은 남아 있다.

## (3) 백의민족의 정신적 지주 “백의민족의 良心”

良心이 천심이고 불심이라면 내세에 천국과 지옥을 심판하는 하나님과 염라대왕도 良心이며, 선사상 속에 담겨있는 비길데 없이 곱고 순수한 모습과 지성에 감천하는 백의민족의 마음도 良心이다.

그러므로 백의민족의 한사람 한사람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소박하고 순수한 良心을 백의민족의 정신적인 지주로 하고,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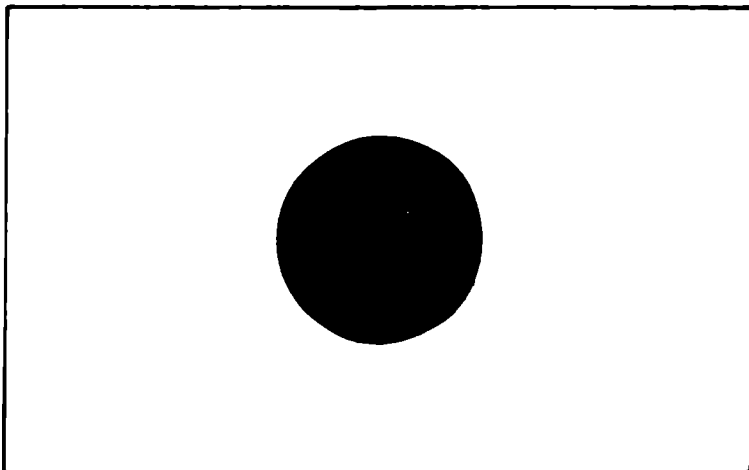
족이 이 정신적인 지주를 구심점으로 하여 민족 스스로가 한 덩어리가 되도록 남북대화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정신적 지주」를 최우선적으로 합의하고, 명문화 공포해서 구심점화 하자.

바. 정신적 지주를 민족기로 상징

(1) 정신적인 지주를 민족기로 상징하자.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민족』이고, 백의민족의 순수한 良心이 민족의 정신적인 지주라 한다면, 민족이 이 정신적인 지주로 구심운동화 되도록, 남북한의 합의하에 『민족기』로 상징하자. 그렇게하여 현재의 국기옆에 같이 게양한다면 민족기는 백의민족이 살아가는 정신적인 목표가 되며, 우리가 민족기를 볼 때마다 민족정신 구심운동에 가속이 붙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7,000 만 백의민족은 민족과 민족의 정신인 『민족기』에 저절로 스며들며 충성과 맹세를 하게 된다.

(2) 우리 민족기를 이렇게 !



청색은 우주다.

우리의 마음의 날개를 펴고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다.

백색은 백의민족이다.  
순결하고 고귀한 얼을 가진 민족이다.  
의에 살고, 의에 죽는  
순수한 良心을 가진 민족이다.

청색 속에 백색은  
우주 속에 백의민족이 존재한다.  
고귀한 얼, 순수한 良心이 존재한다.

백색의 구(원)는  
백의민족의 순수한 良心들이  
하나로 뭉쳐진 良心珠다.

따라서 백의민족은  
원만하고 순수한 良心으로 하나가 되어  
영원히 만방으로 번영한다.

우리의 민족기를 이렇게 한다면!  
백의민족과 백의민족의 순수한 良心으로 상징되며  
남한에 있든, 북한에 있든, 달나라 별나라에 있든  
우주 속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민족기에 경례한다면!  
민족에게 경례하게 되고  
순수한 良心을 경배하게 된다.

우리의 민족기에 맹세한다면!  
민족에게 맹세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순수한 良心에 호소하게 된다.

우리의 민족기가 세계 방방곡곡에 게양된다면!  
순수한 良心 즉 백의민족들이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고  
국헌의 영향권 밖일지라도  
스스로 민족의 범주 안으로 스며들 것이다.

이민족이 우리 민족기를 본다면!  
그것은 백의민족과 백의민족의 순수한 良心들이라  
그들은 저절로 우리민족의 것을 찾게 되고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민족기를 이렇게 하고 이름을 붙인다면!  
우주공간 속에 백의민족이 존재한다는 뜻에서  
「청백기」로 민족에게 건의한다.

#### 4. 결 론

우리민족이 뿌리와 역사 그리고 민족정신은 가지고 있지만,  
조국은 외세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정신은 종  
교와 이념에 의해서 분열되어 있으며, 물질문명에 의해서 가치  
기준이 흐려지고 전통문화가 쇠퇴되어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  
실을 인식하고 민족정신을 한곳으로 뭉치게 하고 조국을 통일  
하는 것이 7,000 만 우리민족의 염원이다.

우리는 태극기에 충성과 맹세를 하면서 정신을 통일하려고 하  
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정신과 맞지아니하여 충성과 맹세가 무  
의미하다. 그러므로 이념과 종교의 벽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기  
준을 정립하고 민족이 살아가는데 목표와 기준이 되는 민족성  
서(백의민족의 良心) 편찬과 충성과 맹세를 할 수 있는 청  
백기를 제작함으로써, 백의민족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무한한 우



주속에서 정신적으로는 구심력을 받아 청백기의 良心珠처럼 하나로 뭉쳐지고, 물질적으로는 원심력을 받아서 세계 어느나라 어느곳에 든지 번창해 나간다.

표면이 이상적으로 연마된 한반도 크기의 대형 렌즈(Lens)에 통과된 햇별이 초점에서는 쇠덩어리도 녹인다. 이와 같이 7,000 만 백의민족 정신이 청백기로 초점을 이룬다면, 우리민족 정신이 결집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는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어 놓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고 증언을 한다. 우리도 이제는 청백기에 맹세하고 증언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위증이 있으면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고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기의 良心을 버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청백기야말로 백의민족에게는 하나님도 될수 있고, 부처님도 될수 있으며, 절대자가 될수 있다.

90. 3. 22

## 연변을 통한 문화적·학문적 교류를 요청함

오 석 근 (중화인민공화국 길림성 연길시 연변대학교)

어제 장관님의 방송을 듣고 서신을 드릴 마음이 생겼습니다.  
( 1990년 4월 5일 )

저는 서부독일의 후랑크푸르트에서 살다가 지금은 연변의 연변대학에서 독일어와 민속·종교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 있을 때, 박정희, 전두환정권 시대에는 민주화 운동도 하고, 통일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남북의 양 정부가 화해하고, 통일의지를 나타내지 않는 이상 밑에서 아무리 운동을 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성있는 일을 해 보고자 독일정부의 도움을 얻어 이곳에서 저의 보잘것 없는 학문이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연변은 우리 민족의 이민 역사가 가장 오래고, 수적으로도 200여만으로 가장 많으며 또 우리 민족이 밀집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자치주가 있고 모든 간부들이 조선족이며 수많은 조선족 ( 이곳에서 조선은 정치적이라기 보다는 전통적이며, 또 漢族과 韓族을 구별할 수 없어 이렇게 씁니다 ) 소학교 ( 국민학교 ), 중학교가 있으며 우리 민족의 힘으로 세워놓은 대학이 있습니다. 또 모두가 항일운동에 참가했던 애국자들의 자손이거나, 적어도 일제의 압박에 못이겨 이민은 사람들 입니다. 그리고 조선족 전통이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일제로 북의 방송은 혁명적이거나 국가원수에 대한 노래 뿐이

고 남쪽것은 음정도 가사도 모두 외국냄새가 물씬 풍기지만 연  
변 방송에서는 순수한 우리 노래들을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느 나라, 일본, 미국, 구라파, 호주 등에 가서  
사는 우리 동포들 보다 소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무  
엇이든지 있으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인지는 몰라도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 살고 있  
는 동포들이 뜻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조그만 사업도 하고 또  
아는 지식을 쏟아 놓기도 합니다. 저를 더욱 감동케 하는 것  
은 미국에 양자로 갔던 여성이 무엇이나 자기 부모님의 민족  
을 위해 일해 보겠다고 이곳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  
다.

그리고 연변 조선족은 정치적으로도 편견이 없습니다. 현재는  
이곳 동포들이 남쪽에도 가고 북쪽에도 가며, 또 북쪽과 남쪽  
에서 손님이 와서 서로 만나 이야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우리 대학손님호텔(초대소)에는 북쪽에서 온 태권  
도 사범이 있는가 하면 남쪽에서 온 교수들도 있으며 식당에  
서는 서로 만나기도 합니다.

통일은 별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서로 자주 만나고 감정이 통  
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주고 받는것이 있으면 통일이 아닐까요?

저의 생각에는 이제 연변은 통일에 한 몫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보고, 또 우  
리 동포들을 좀 도와주고 문화적, 학문적 교류를 하는데에도 가  
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께서도 이곳에 많은 배려와 정력과 관심을 기울이신다  
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서신이 장관님께 직접 가기는 어렵더라도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회답을 주시고 계속 연계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90. 4. 27

## 평화시 설치구상에 관한 제언

이 재 철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한민족 통일 도시건설에 대한 건의문을 대통령각하와 관계 장관님께 건의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통일을 위해 수많은 남북대화를 했으며 교류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결과없이 현재 원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때 한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는 경제적인 교류를 하여 북한에 우월성을 보이는 것보다 한민족이 동일한 입장에서 대화의 마음부터 교류를 시작해야 된다고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한국이 북한으로 교류하여 들어가는 것도 좋은 현실이지만 북한도 한국에 올수 있는 통일로를 일부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대화에 북한의 의견도 어느정도 수용되어야 한민족 통일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볼때 이제 남과 북한의 고조상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보일러 라인에 밸브작용이 필요합니다. 용기에 압력이 넘으려 할때 압축에어를 빼어내는장치와 같이 우리의 남북대결 상태도 체육 및 경제라는 소극적인 것보다 대담하게 실질적인 문제에 들어가 서로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는 남과 북의 혼합체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통일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염원은 기필코 우리시대에 통일이 이룩되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의 실현을 위해 수차의 방법이 공개되었지만 사실화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남북회담을 생각할때 우선 남북의 최고 수뇌회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서라도 남북 최고수뇌회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남북 심장부의 최고수뇌의 통일회담이 선결되지 않는한 그외 회담은 세월만 놓칠 뿐입니다. 이번에 과감히 다시 실현되어야 할 남과 북의 통일단계는 실제 통일이된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휴전선 강원도 철원 월정역까지 과감히 전철화도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와같이 휴전선 일대나 남북의 어느지역에서 한계를 만들어 남북이 서로 혼합체제로 서로 제한없이 정치및 문화 각종 상거래를 하는 실제 남북통일체제가 이루어져야 상호이해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이념·사상을 초월한 과감한 결단만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이와같이 통일도시를 건설하여 남북 모든 교류를 이곳에서 합니다. 만약 북한에서 참여하지 않더라도 소련, 중국이 통일시에 일시 거주, 참여함으로써 북한도 참여하지 않을수 없는 통일도시 현실화 해나가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연구나 학술이 아니래도 모형 자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면으로 원형을 만들고 주요한 부속은 하나씩 만들어 맞추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이 가도 이와같은 남북의 통일방법은 일차적으로 꼭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통일방안은 우리의 염원인 남북통일을 위하여 남북공동 통일도시건설을 건의합니다.

1. 북한 내부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남북관계를 통일도시에서 교류합니다.
2. 통일도시의 개발은 휴전선 중심부 또는 남북 어느지역을 선정하여 북한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통일도시를 건설함이 명확합니다.(정치, 문화 상거래)
3. 이와같이 남북 통일도시를 건설할때 일부 북한이 직접 참여 건설합니다.
4. 이와같이 통일도시에 거주할 때 북한주민이 생활할수 있는 단지를 조정합니다.
5. 이와같이 사실화되면 일부 건설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6. 각종 남북의 정치 및 상거래를 통일도시에서 합니다.
7. 어떠한 정치 이념사상도 통일도시에서는 고무할 수 없습니다.
8. 이곳 통일도시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망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9. 이곳에서 남북교류는 남북이 정한 법에 위촉되지 않습니다.
10. 통일도시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법문제는 이곳에서 관리할 수 있는 남북 공동재판소를 설립합니다.
11. 남북 통일도시에는 한국과 북한이 서로 정신, 사상이 확고한 시민이 절반씩 이만 내지 삼만으로 거주합니다.
12. 이렇게 남과 북이 교류하며 생활하게 되면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통일 신도시 건설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것이며 한국과 북한에 생활인식이 확연히 나타날 것입니다.
13. 만약 통일 신도시 건설에 북한이 참여 건설하지 않아도

- 소련에 한민족 교포가 거주할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합니다.
14. 만약 북한이 참여하지 않아도 북한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문화예술을 통일시에서 교류합니다.
  15. 통일도시에서 거주하는 시민은 허가한 출입증으로 남과 북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16.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은 남과북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17. 만약 북한에서 이와같은 확실한 민족통일에 도시건설 및 거주와 거래를 거부할 때는 더이상 통일의 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18. 만약 북한에서 이와같은 통일방안을 거부할 경우 소련과 중국에 문화예술 상거래를 이곳에서 형성 완전히 개방하며 소련, 중국이 이곳 신도시에 일시 진출하여 모든 교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 위와같이 한국과 북한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면 한국과 북한의 최고수뇌회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 회담의 진행은 한국과 북한이 서로 지정한(소련, 중국, 미국, 일본) 순위로 랑데뷰 여행을 하면서 회담을 전개하고 귀국하면서 한국과 북한을 교환 왕래하며 회담을 합니다.
  21. 이와같은 사실은 전세계에 이목이 집중되는 중대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22. 통일도시가 완성되면 남북 최고수뇌는 이곳에 통일 최고대표 수뇌로 이곳으로 왕래하며 근무합니다.
  23. 남북 최고수뇌의 통일도시에서 근무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통일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24. 이렇게 되더라도 북한의 체제는 그대로 현존하는 남과 북



의 현실은 어느시기까지 외면할수 없게 됩니다.

25. 만약 이렇게 통일도시에서 혼합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통일이 쉽게 이루어지리라는 것보다는 꾸준한 인내와 교류로 마음의 연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6. 이렇게 되면 남북 선거방법의 상당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27. 북한의 출마자가 없더라도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시 북한주민도 투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선거때에는 북한주민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28. 북한주민의 선거투표율 인정한도를 정합니다.
29. 통일시를 형성하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금융통화) 통일도시에서 사용하는 화폐를(돈) 하향 조정하여 새로이 발행할 공동은행 통화를 정해야 합니다.
30. 이곳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남북 어디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31. 통일시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남북으로 점점 교환 확대하여 갑니다.
32. 통일도시건설 방안을 실시하려면 현재와 같이 일산 분당같은 사태가 없어야 합니다.
33. 현재 어느정도 시위와 투쟁이 진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회의 경제적인 돈의 흐름이 동결되어가면 민심의 교란이 생깁니다.
34. 이것이 새로운 양상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35. 지금 새로운 사태가 발생하기전 진정시키는 결단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합니다.
36. 위와같은 내용은 접수시까지 작성자의 공개된 사실이 없으며 본인 외 모방은 금물입니다.

# 통일조국의 땅투기 대책

오 상 현 (전북 전주시 송천동1가)

국토통일원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로 시달리시는 가운데 여기 국민 한 사람이 또 일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몇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첫째, 만약 우리나라가 통일된다면 북한의 토지분배는 어떻게 됩니까?

둘째, 북한의 토지가 북한 주민에게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팔고자 할때 어떠한 식으로 남한 사람이 그 토지를 살 수 있게 자격을 주려고 합니까?

셋째, 통일조국에도 땅투기가 일지않게 할 방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현재 일고 있는 부동산투기를 지연 또는 막아 볼 생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막연하고 대답하기가 어려우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런 계획은 훌륭하신 여러분들이 다했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두번째 질문과 연관되는 것입니다.

북한 토지를 살 수 있는 자격을 남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줄려는지?

저는 각 은행에 새구좌를 만들고 통장 이름을 '토지자격권'

이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부동산 붐과 경제안정, 통일후 공평한 토지 분배’ 대략 이런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도 토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은 통일의지와 연결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저축을 더 하게 해서 검소한 풍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 공상이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고, 해야 될 일일것이 틀림 없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실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실을 알고 제 생각과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 제 미래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는 어리석은 임시방편의 정책을 만들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토지정책)

현재의 강경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이 몇년만 일찍 시행되어도 성공했을것 입니다. 또한 정부의 개발 정보가 너무 일찍 새어 버려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승부를 “통일조국 토지공평분배”에 걸고 여러 관계자님들의 노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질문에 조금이라도 대답을 기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또는 통일을 누구보다도 기다립니다. 신은 반드시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통일후의 대책은 장관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 봅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하면 웃죠. 그러나 막상 일이 닥치면 후회한답니다.

더욱 멋있고 완벽한 계획도 있겠죠. 또 저와 똑같은 의견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만약에 —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 통일 조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모두 공상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된다면 토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 집행하고 싶습니다.

하찮은 일로 괴롭게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0. 5. 30

이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부동산 붐과 경제안정, 통일후 공평한 토지 분배' 대략 이런것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난한 사람도 토지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은 통일의지와 연결되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저축을 더 하게 해서 검소한 풍조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 공상이었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고, 해야 될 일일것이 틀림 없습니다.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실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실을 알고 제 생각과 여러사람의 의견을 들어 제 미래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는 어리석은 임시방편의 정책을 만들지 않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토지정책)

현재의 강경한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이 몇년만 일찍 시행되었어도 성공했을것 입니다. 또한 정부의 개발 정보가 너무 일찍 새어 버려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승부를 "통일조국 토지공평분배"에 걸고 여러 관계자님들의 노력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제 질문에 조금이라도 대답을 기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또는 통일을 누구보다도 기다립니다. 신은 반드시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통일후의 대책은 장관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 봅니다. 누구나 이런 말을 하면 웃죠. 그러나 막상 일이 닥치면 후회한답니다.

더욱 멋있고 완벽한 계획도 있겠죠. 또 저와 똑같은 의견도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만약에 —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 통일 조국의 지도자가 된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모두 공상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된다면 토지정책을 합리적으로 수립 집행하고 싶습니다.

하찮은 일로 괴롭게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90. 5. 30

# 평화통일방안 건의

윤 태 현 (충북 제천시 남천동)

평화통일을 논하기전에 우선 먼저 95년까지 다같이 잘사는 복지기금(여러가지 각 종류의)과 대한민국과 북한이 공존하기 위한 방위기금을 아주 강력한 수단인 부유층(과소비층)에 대한 충격적인 과세로 수백억원의 성금과 기금(복지와 협력)을 확보한 후에 평화통일을 논의해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6.25사변을 체험하지 못한 대다수의 젊은이들이 국민의 8할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영미격언에 「Knowledge is Experience」라고 체험하지 못한 인식은 생생하게 몸에 익은 산인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국민까지도 6.25사변은 남침이라고 할뿐만 아니라 당시 북한에서 직접 전쟁준비를 한 북한의 정무원도 긍정하였는데도 오늘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의 일부는 아니 상당수는 아직도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현실에 정의사회로 전진하려는 뜻있는 모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도록 생활면에 있어서 구석구석까지 구김살이 없고 불만이 없어 양미간에 내천(川字)자를 그리지 않고 치안범죄가 극히 적은 명랑사회를 만드는 것만이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95년까지 남·북물자교역과 관광왕래만이라도 가능하게되면 지상 최고·최대의 성공이라고 확신합니다.

90. 6. 25

## 한반도의 군축과 평화통일을 위한 전의의 일

평 화 · 군 축 협 의 회 (중구 정동 1-23 한국여성단체연합내)

우리는 한국전쟁이 일어난지 40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전쟁상태의 종식을 보지 못한채 남북의 군사적 대결이 오히려 첨예화되고 있는 가슴아픈 민족의 현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민족의 살길은 오로지 현재의 남북관계를 조속히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고 서로간의 신뢰와 화해를 이룩하며 자주·평화·민주적 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음을 천명하고자 한다.

오늘의 세계는 전후 40여년간 지속되어온 냉전과 대결의 얽타체제를 극복하고 화해와 협력, 통합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으며 어제의 적을 오늘의 동반자로 맞아들이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동서독은 45년의 분단을 청산하고 실질적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며 남북예멘은 23년간의 대립적 단절을 극복하고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였다. 2차대전후 분단되었던 나라들 중 오로지 우리 남북한만이 대결과 긴장을 해소할줄 모르며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외면하고 있으니 5천년 역사를 자랑해온 한겨레로서 이 무슨 수치며 비극이란 말인가?

남북한 정부는 1972년 7·4 공동성명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원칙으로 하는 화해와 통일을 약속하였건만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체제의 수립은 커녕 이산가족의 재회나 방문조차 성사시키지 못한채 군사적 대결체제를 강화해 왔다. 남북한 정부 양측이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는 진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면 어찌 이렇게 한반도를 냉전의 얼어붙은 땅으로



버려둘 수가 있단말인가?

우리는 북방외교와 최근의 한·소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개선하고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남북한의 화해나 접근이 없는 남한당국과 소련 및 동구권과의 일방적 교류나 협력은 자칫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역기능으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정부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군비통제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2차대전후 냉전적 대결상태로만 일관해온 유럽에서는 실효성을 가질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방식은 한반도에서처럼 전쟁상태가 종결되지 않고 적개심과 불신, 상호위협과 긴장이 팽배해 있는 곳에서는 평화를 실현하는 적극적 수단이나 충분한 방안이 되지 못한다. 군사력이나 장비, 핵무기 등의 구체적인 실태를 밝히지 않으면서 기동훈련을 참관시키고 병력이동을 사전 통보한다해서 어떻게 신뢰가 구축되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말인가?

남한당국이 적극적으로 군비축소 및 평화실현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이유로서, 북한이 남한보다 군사력이 우세하고 남침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반면에 북에서는 남한에 세계 최강의 미군이 수만명 주둔하고 있고 핵무기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두배의 인구나 다섯배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자체를 북쪽의 안보에 위협요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남한당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남한의 안보 및 군사력 강화가 북한에게는 군사적 위협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을 왜 무시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남한에 배치된 미군과 핵무기에 맞서기 위

해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남한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어떻게 설득력있게 저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한국전쟁 40년을 맞으면서 남북한 당국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관심의 결여를 개탄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한 및 한국전쟁 당사국들간에 정치·군사회담을 비롯한 다각적인 대화와 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군사적 대결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함이 없이는 남북간에 신뢰의 구축이나 교류 및 협력의 실시,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문제의 처리도 진전을 볼 수가 없다. 뿐만아니라 한반도를 초토화시키고 7천만 민족 전체를 과멸시킬 핵전쟁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족적 양심과 평화통일의 의지를 지닌 각계의 목소리들을 모아 남북한 당국과 미국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남한정부 당국에게

1. 북한이 1988년 11월 7일 제기한 “포괄적인 평화실현 방안”과, 1990년 5월 31일에 제안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안”을 검토하여 평화협정과 불가침선언, 핵무기의 철거와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와 작전명령권 이양, 남북간의 군비감축과 상호통제의 내용을 포괄하는 한반도 평화실현방안과 일정을 조속히 마련하라. 우리는 적어도 이러한 평화실현의 계획과 실천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완수되어, 분단 반세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필수적임을 우리는 강조해 마지 않는다.

2. 이 방안의 발표와 함께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이나 정상회담, 정치군사회담 등을 추진하고, 미국을 비롯한 한국전쟁 당사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인접 국가들과의 회담과 협상을 즉각적으로 전개하라. 회담의 성과와 신뢰형성을 위해서는 정부당국자간의 회담뿐 아니라, 민간차원에서의 대화와 교류·방문을 병행시키도록 하라.

3. 남한당국은 북한의 개방을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스스로 경직된 사고와 자세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북한동포와의 접촉이나 남북왕래는 물론 국민들의 통일노력마저도 이적행위로 단죄하는 현행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남북화해를 촉구했던 7·7선언으로 형성된 개방의 분위기에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익환목사, 문규현신부, 임수경양 등은 민족화해의 차원에서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

### 북한정부 당국에게

1. 북한당국은 독자적인 핵무기의 개발이 주한미군의 철수나 남한에서의 핵무기 철거, 군비감축과 같은 한반도의 평화실현 노력들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약 개발을 추진중이라면 이를 즉시 중지하고, 핵안전협정에 조인하여 한반도 전체의 비핵지대화에 공헌하도록 하라.

2.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전쟁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체결이 필수적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 협정에는 휴전협

정에 조인한 미국과 북한뿐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고, 평화에 책임을 져야 할 남한측이 동참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은 평화협정체결을 위해 3자회담과 함께 남북당국자 회담을 수용하라.

3.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군사적 대결 및 긴장의 완화에 못지않게 남·북으로 갈라지고 단절된 민족간의 대화와 신뢰형성이 중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당국은 군사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도 남북 이산가족의 교환방문이나 학술, 예술, 체육 등의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교류·방문 등을 실현시켜야 하며 경제적 교류협력 및 합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남북대화는 중단되어서는 안되며, 정치군사 분야와 비정치적·인도적 차원에서의 대화·교류가 병행되어야 한다.

#### 미국정부 당국에게

1. 미국정부는 한반도의 분단과 40여년간의 분단체제 지속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데 한반도정책을 즉각 강구하라.
2.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해서는 군사적 긴장완화가 필수조건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핵무기 즉각 철거, 평화협정의 체결, 작전권 이양 및 주한미군의 철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은 동서화해와 세계평화의 조류에 맞추어 한반도에서 위의 과제들을 조속히 이행하라.
3.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환태평양 군사훈련을 중지하고, 대한 군사판매계획을 한

반도 평화실현 방안에 맞추어 시정하라.

## 서 명 자 명 단

### 종 교 계

박형규, 조용술, 안병무, 김관석, 장기천, 이정학, 신삼석, 김준영,  
김경섭, 최성묵, 강신석, 박봉배, 박종기, 정철범, 이재정, 김재열,  
강문규, 김상근, 권호경, 오충일, 홍근수, 홍안의, 홍성현, 이해동,  
이명남, 박영모, 김영원, 김정웅, 장성룡, 박효섭, 김동완, 이해학,  
박덕신, 김영주, 임홍기, 김용우, 김병균, 이철우, 정명기, 노영우,  
이춘섭, 황인성, 김광훈, 오용식, 정지강, 남정우, 백도기, 김종오,  
박종렬, 전병생, 정태준, 신동욱, 최병상, 김성순 ( 개신교 )  
김승훈, 황상근, 류강하, 문정현, 안충석, 이계창, 송기인, 정형달,  
이수현, 박창신, 허철수, 김영필, 장용주, 배종호, 김승오, 남국현,  
김진화, 김선태, 전종복, 박성팔, 정양현, 박찬길, 이성우, 이 동,  
박종충, 남학현, 문양기, 김학록, 한연흠, 박대웅, 송홍철, 윤종일  
( 천주교 )  
월주, 지선, 진관, 법성, 도승, 성연, 시공, 법광, 진우, 원종, 법안,  
본원, 연기영 ( 불교 )

### 여 성 계

이효재, 이우정, 박순경, 조화순, 조아라, 박용길, 박순금, 윤문자,  
윤정옥, 김애영, 이미경, 한명숙, 서진옥, 김윤옥, 김희선, 손은하,  
신 선, 김경천, 윤순녀, 이영순, 김지선, 유춘자, 정현백, 장하진,  
손덕수, 허성우, 최갑순, 최윤정, 김순희, 지은희, 안상님, 최영실,  
나선정, 최혜자, 김화자, 성봉희, 김혜원, 성명옥, 김경태

## 학 계

김진균, 장을병, 이영희, 김찬국, 이삼열, 한완상, 김상기, 강남훈,  
이지형, 문병란, 박영근, 송재소, 박현서, 김영규, 임형택, 임명방,  
서관모, 강정구, 배동인, 신순철, 김시엽, 유진채, 이문영, 양재혁,  
김병욱, 이시재, 최갑수, 김의수, 노정선, 김인걸, 강대인, 김홍명,  
김세균, 하일민, 이준모, 안병욱, 오세철, 윤용진, 임종대, 이영호,  
윤구병, 김상곤, 서광일, 허평길, 유초하, 서창호, 최상천, 김상일,  
여운승, 이종대, 박종화, 김성재, 김창락, 손규태, 박호성, 조희연,  
서광선, 김용복

## 문 화 계

김정한, 백낙청, 김지하, 남정현, 이기형, 박완서, 신경림, 김규동,  
조성국, 고 은, 김윤수, 강영균, 구중서, 김정현, 민 영, 손장섭,  
송기숙, 신학철, 조 념, 주재환, 최일남, 현기영, 김정현, 채희완,  
노동은, 이장호, 강혜숙, 김영수, 조건영, 천규석, 천승세, 윤정모,  
이애주, 이시영, 안종관, 강형철, 송기원, 송 영, 최원식, 김영현,  
김성동, 김용태, 원동석, 유흥준, 김준권, 홍선용, 문호근, 임진택,  
정지창, 김명곤

## 보건의료계

홍창익, 서한태, 장임원, 홍성훈, 심재식, 전홍준, 양길승, 김용익,  
황상익, 문병수, 배기영, 김기락, 서인근, 최병수, 김병후, 김록호  
( 의사 )

전경근, 이충국, 정 청, 이준규, 오종우, 박경정, 고광성, 손호현,  
이문령, 한영철, 송학선, 진동균 ( 치과 의사 )  
임종철, 임익근, 모애금, 조수월, 하영환, 서홍길, 이호재, 이영권,  
김영한, 서지영, 김용찬 ( 약사 )

## 법 조 계

한승헌, 황인철, 홍성우, 최병모, 이석태, 조용환, 김형태, 천정배,  
박원순, 이양원, 박승욱, 윤종현, 김선수, 박주현, 김한주, 백승헌,  
이오영, 김진국, 박성민, 조영래

## 평화 연구·운동단체

신창균, 김낙중, 김명식, 조성우, 최 열, 김정남, 권형택

-이상 312명, 무순-

90. 7. 17

## 남북한 상호개방 문제에 대한 소견

강진석 (노원구 중계동 417-30)

금번 7월 20일 남북한 상호개방문제에 대한 노태우 대통령의 선언문이 공표한바와 같이 한국측에서는 남한에 대하여 일괄개방한다는 것을 언급하셨고 적극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북한당국은 북한의 전지역을 개방할 경우 자기들이 북한사람들에게 수년전부터 북한은 지상낙원이니 또는 의식주도 남한보다 풍부하다느니 자유롭고 번영된 사회에서 생활한다는 등 갖은 기만과 선전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절대 개방해주지 않을 것이며 개방해줄 여러가지 여건이 부합되지 않고 있음으로 북한 전지역의 개방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자는 6.25 동란 당시 평남북경계에서 피포되어 1950년 12월부터 휴전될때까지 북한의 각지역을 행군하며 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실정을 잘 관찰하였으므로 현재 북한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 소재지는 6.25 동란 당시만 해도 보잘것 없는 초라한 라 소도시로 형성되어 있었으나 6.25 동란으로 그나마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휴전이후 이제 겨우 복구했다는 것이 남한의 면소재지나 리동부락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교통의 정상운행은 물론 숙박시설도 없을뿐더러 배급제로 인한 식생활 등 여러가지 여건이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제안하는바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전반적인 개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우선 서해안지대의 도시를 중심으로 한 농촌 그리고 동해



안지대의 도시와 농촌 등을 주로 개방함으로써 교통의 편리한 조건도 있지만 북한은 휴전 이후 주로 서해안지대와 동해안지대를 복구, 발전에 치중했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위 지역은 북한당국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안들이 남북한 쌍방이 합의된다면 장차 서해안지구와 동해안지구를 중심으로 상호교류하며 방문하고 중소기업의 진출, 문화예술의 진출 그리고 각종 기술지원 등 획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해운통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소간벽지의 중소도시도 그 영향을 받아 자연 발전할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자가 제안하는바 북한당국이 그나마 거절하고 개방을 봉쇄한다면 북한사회의 경제발전은 물론 북한사람들의 생활형편은 종전과 다름없이 어려운 생활로 일관될 것이며 남북한의 갈등은 날로 심화되고 동질성 회복은 물론 동포애도 차츰 멀어져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래서 필자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전쟁의 체험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이땅에 꼭 평화가 정착되고 한반도에 공존공영의 시대를 꼭 실현시켜 나아가서는 통일을 위한 성업에 만분의 일이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에서 이 원고를 작성해 올리는 바입니다.

90. 8. 15

# 정부주도 단일창구 통일정책을 강력히 요청함

김 재 두 (종로구 세종로 282 미래문제연구회)

세계는 이념보다는 생활경제적 의미의 인류복지 욕구로 민주화, 개방화되고 있습니다.

동·서독은 통일이 아닌 재결합이지만 우리나라는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판문점 범민족대회의 참가문제를 보고 이 정부의 방종하는 통일정책에 비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인식을 같이하는 전승세력인 절대다수국민(우익이나 보수로 쓰지말라) 98%와 전민련이나 전대협같은 2% 국민을 동일시 시키는 점에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볼셰비키 소련 공산당 혁명당시 2억의 인구에 30~40만이 혁명을 했던 똑같은 맥락의 행동은 우리 국민이 용서할수 없습니다.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 종교세력의 존재도 국가의 존립가치와 국민합의 및 정부의 존립가치위에 설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합의로 수립된 정권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거시적이지 못하고 왜 이렇게 무능한지 한탄스럽습니다.

북한에 가고파서, 좋아서 가려는 사람은 북측의 안전보장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보내면 되지 않은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돌아와서 이적을 하는 사람은 처단하면 될 것 아닌가. 통일의 지름길은 인적, 물적, 통신의 교류가 급선무이다.

정부가 모든것을 법으로 운용하지 말고 국민적 합의 도덕, 규범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어느나라, 어느정권을 막론

하고 자체내부의 분열이 극심하면 정치, 경제, 외교도 실패할 뿐 아니라 국가멸망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나라 사회단체의 이념이나 조직을 대표하는 것이 전민련이나 전대협이 아니므로 관문점의 선정적인 선전장에 보낸다면 현 내각을 대 국민배신 행위로 경고하지 않을수 없으며 대북 민간교류는 정부의 주도하에 사회단체들의 이념이나 조직의 성격을 파악해서 교류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90. 8. 17

# 통일범국민위원회 신설

강 불 입 (동대문구 청량동)

지금 우리는 여러면에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강도높은 목소리가 통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라고 볼 때 하루속히 통일의 기반을 국민에게 알려 정부, 재야의 목소리를 한 곳으로 모아야하겠습니다. 해서 정부의 주도하에 각계 각층을 망라한 통일범국민위원회같은 것을 신설, 이 기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을 창출하는것이 가장 합리적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와 같은 무질서한 통일논의를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북괴에게 말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하의 영단을 믿고 그래야 사회도 혼란을 면할 것이고 국정의 장애를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각하의 영단을 바라겠습니다.

※정부, 각정당, 학계, 농민, 언론, 종교, 예술인, 문화인, 서민, 중산층 약 120명 정도로 구성.

89. 8. 21

## 남북통일을 위한 제언

허영재 (노원구 상계2동)

국토통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장관님 이하 관계부처에서 맡은바 임무수행에 애쓰시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민족대교류기간에 관광등의 목적으로 방북신청을 접수하였던 6만 2천여명중 한 사람으로서 부푼 희망과 기대를 안고서 한 핏줄인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와 수려한 금수강산을 보고오려 하였으나 북한측이 명단접수조차 하지않아 참으로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9일 “오늘의 문제” TV프로를 통하여 홍 장관님의 성실하신 답변과 정부의 지속적인 통일노력에 대한 계획등을 말씀해 주심으로 다소간 이해가 되었으며, 이어 8월 20일 저희집에 도착한 위로의 편지까지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정부당국의 통일정책 수행에 만의 하나 도움이 될까하는 생각에서 다수는 아니지만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개인적인 제안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야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훨씬 광범위하고 멀리 내다보시는 여러분들의 고견도 있겠지만, 저의 단순한 생각에는 우선 남·북한을 대표하는 우리 노태우 대통령 각하와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야만 진정한 남북통일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당국의 다각적인 노력과 선언, 또

는 발표를 통하여 9월초 남북 총리회담까지의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 왔습니다만 과거의 예를 살펴볼때 그렇게 희망적인 결과는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려 하지만 북한에서는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는 관계없이 계속 실망적인 결과만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남북통일을 위한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과 제안을 하여도 루마니아와 같은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북한측으로서는 통일을 위한 허심탄회한 대화의 광장으로 나오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김일성 주석의 마음이며 그의 생존시, 또는 사후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정일씨의 마음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 두사람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한 통일을 향한 진실한 대화의 광장은 요원한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 두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료란 통일을 위한 쌍방간의 공동목표에 포함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모두는 통일을 원합니다. 통일을 원하는 공동목표는 평화, 행복, 그리고 자유 동일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사실 서로 원하는 것이며 결국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목표에 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통일이 되고 또 평화와 행복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건강과 생명을 상실하면 아무런 소

용이 없을 것입니다.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이나 건강과 생명은 매우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김일성 주석의 건강유지를 위한 집단화된 인간 실험(?)을 하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약 24년간 건강유지와 생명을 오래 연장시킬 수 있는 도(道)를 깨닫고 그에대한 믿을 만한 여러가지 증거 특히 과학적인 증거를 토대로 실질적인 건강유지와 생명을 지금보다 몇 배 연장시킬 수 있는 증거와 재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가 신빙성있고 가능하다면 그들은 분명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결국 산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와 평화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념을 떠나서 이제 세계라는 지구촌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의 건강을 염려해준다는 것은(빨리 죽기를 원하거나 멸망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화를 트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첫째, 순수한 민간차원의 접촉이 바람직 할것입니다.(정부측이나 정당이 아닌)

둘째, 북한측에서 볼때 전혀 거리낌이 없이 대화를 나눌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정치적, 군사적인 입장에서 중립을 유지한 사람)

셋째, 장관님이나 대통령각하 또는 관계부처의 책임자의 사실 파악을 통한 객관적 이해 및 승인(그래야만 본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뿐 아니라 또한 건강과 생명유지에 관한 본 증거는 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 이므

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당국 또는 각종정당 및 단체를 통한 남북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시겠지만 본 제안도 무시하지 마시고(속된말로 믿겨야 본전은 되니까) 일단 한번 검토하시고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본 제안은 가설이나 추측에 근거한 재료를 가지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특히 선진각국에서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사실그대로의 믿을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진실은 사람의 마음을 틀림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남북평화통일은 우리모두의 염원이므로 갖은 방법과 지혜를 다 짜내어 추진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며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러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신다면 1,2부로 나누어 각 1시간씩의 (2시간)브리핑을 준비하겠습니다. 단, 설명이 다 끝나기전의 속단이나 회의적인 소극적 태도는 사양합니다.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단지 여러분의 객관적인 판단과 공감을 얻을수 있게 2시간 정도만 허락하신다면 현명하신 여러분이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더욱 확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시대 절대 절명의 통일을 향한 우리의 목표가 반드시 이루어 질것으로 확신하며,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장관님 이하 관계부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



넙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라며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90. 8. 23

# 남북한 통일에 대한 건의

(영동포구 여의도동 광복회관)

1. 온 국민의 염원인 남북한 통일성취를 위한 귀원의 노력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당회는 우리나라가 지난날 일제의 국권침탈을 전후한 1895년 을미의거로 부터 1945년 8월 14일에 이르는 동안 국내 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국권회복을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였거나 일제에 항거한 생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부로 부터 건국훈장을 받은 분과 그 유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유일의 독립유공자 단체로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보다도 남북한 통일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것은 우리 선열들의 숙원이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이었기 때문입니다.

3. 당회에서는 선열들의 숙원을 하루속히 이루기 위하여 통일성업 달성에 미력이나마 이바지하고자 사계의 권위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광복회 남북한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발족하였사오니 귀원에서는 당회를 통일문제 논의대상 사회단체로 포함하여 주시고, 유기적인 유대있기를 바라오며, 아울러 통일문제에 대하여 당회 의견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건의드립니다.

- (1) 우리나라는 남북분단 40년이 넘도록 이른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념적으로 상반된 방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아직도 남한 적화통일야욕의 꿈

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원칙적인 통일논의를 내세우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통일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나 그러한 논의가 국가의 기본질서를 무시하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2) 통일논의는 국민 각계각층에서 여러 형태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가 이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여 통일정책에 반영해 나가야 하며,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북제외의 접촉창구를 알선 지도편달하여야 합니다.
- (3)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통일정책과 사회 각계의 발상에서 제기된 민간차원의 통일논의가 서로 그 특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조체제와 역할분담 위에서 범국민적 통일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4)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항일 독립운동의 근본목적이 전도된 분단조국의 현실속에서 몇분 남지않은 원로 독립운동가의 만남같은 것은 통일을 촉진하는 바람직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 첨부 1.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발족에 즈음하여 1부.  
2. 통일문제연구위원 명단 1부. 끝.

## 통일문제연구회발족에 즈음하여

우리의 수많은 순국선열이 민족제단에 바치신 희생으로 1945년 조국이 광복되었으나, 선열들의 뜻과는 달리 타의에 의하여 남북한이 소위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어 근 반세기에 걸친 이념의 대치로 본의아닌 동족상잔의 자해와 자학을 하게 되었음은 우리 민족사에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개방과 국제화의 대변혁으로 인류는 새로운 역사발전의 전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북한이 고립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같은 동포로서 공존, 공생, 공영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북한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개방과 개혁을 통해 남북한이 민주적으로 통일할 것을 소원하며, 남북의 이질화 중에서도 어느 부문인가 동질성의 근사치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날 독립운동선상에서 비록 노선과 방법을 달리 하였다 할지라도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의 목적을 같이 하였다는 데는 남북한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 동질성을 구체화할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의 독립유공자가 서로 왕래하며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이산된 독립유공자의 가족상봉이 이루어 지도록 다음 사항을 상호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 (1) 독립운동 정신에 입각한 남북한의 상반되는 이념의 해소 방안
- (2) 민족주체 의식으로 독립운동사의 상호 재조명
- (3) 독립운동사료 교환 및 학술회의 개최

- (4) 독립운동사적지 상호순례 및 독립유공자 유가족 상호방문  
 (5) 기타 통일에 관한 사항

통일문제연구위원 명단

- 1) 위 원 장 : 이 강 훈
- 2) 본회 임원 : 설 창 수 박 대 종 유 홍 수  
 조 인 제 서 상 교 임 형 선  
 김 광 언 전 재 덕 민 유 생  
 신 공 철 문 회 택 태 윤 기  
 정 대 영 ( 13명 )
- 3) 유관단체장 : 김 승 곤 박 영 준 이 종 갑  
 김 삼 열 안 춘 생 조 일 문 ( 6명 )
- 4) 일반 회원 : 김 신 김 준 엽 김 명 수  
 정 기 엽 정 영 호 김 상 길  
 이 문 원 김 인 호 김 우 종 ( 9명 )

90. 8. 27

# 북한방문의 개방화

이 근 범 (성북구 하월곡동)

존경하시는 노대통령님

불철주야 대한민국의 국정을 돌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한 요즘 미려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36세된 작은 병원에서 구급차 운전수로 일하는 이근범입니다. 드리오 말씀은 우리 한민족이 분단된지 사십여년이 넘었지만 통일의 염원은 아득하기만 한것 같기에 좀 개방적인 통일여로의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권은 이 당에서 저 당으로 옮겨가고 이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바뀔수 있습니다만 우리 한민족은 영원히 바뀔수 없는 것임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느 한 정당의 총재로서가 아닌 우리 한민족의 민족지도자로서의 대통령다운 정치를 펼치신다면 한시대의 대통령으로 존경 받으시기 보다는 우리 민족의 대통령으로 영원히 존경받으실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 물러가라고 외치는 대학생이나 신부 운동권 인사들을 모아서 북한을 방문케 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폐쇄된 공산주의로 소문이 나있는 북한에 들어가 직접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험함으로써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분단된것은 우리 민족과 강대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차츰 차

춤 녹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두 사람의 밀입북으로 통일 일이 되고 안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북한이 오판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국력을 키우시면서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두서 없는 글을 용서하시길 바라며 국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몸 건강하시고 하느님의 가호가 함께하시길 빕니다.

89. 8. 29

## 통일 정신운동 추진요청

조 병 헌 (대구시 중구 대봉2동)

대통령각하께서 통일문제에 많은 고뇌를 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통일은 우리나라 국민성과 여건 및 외교와 경제력만 가지고는 이루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쪽 지도자와 국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보통사람은 좋은 이웃과 친척 친구가 있으면 경제력이 빈곤해도 계속 살고 싶어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는 계속 배우고 싶어하고 좋은 사장님 밑에서는 계속 일하고 싶어 합니다. 사할린에서 방문한 교포들도 꼭 고국에서 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친구가 그곳에 있으니까요.

저의 주위의 몇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북통일이 되면 무엇을 하겠느냐고.

한결같이 금강산, 백두산, 대동강 구경, 심지어 평양기생 보러 가고 평양중심가에 카바레 차리고, 싸롱 차리고, 이북의 싼 인력 데려다 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한테 물어봤을때 전공과목대로 무슨 병을 치료하고 무슨 수술을 이북동포에게 해주고 유명한 의사가 되겠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북의 주민이 남한을 생각할 때 올림픽도 치르고 경제가 발전된것은 알 것이나 남한사회는 엉망이며,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는데 근로자가 100년을 저축해야 하고, 딸을 출가시키는데 10년을 저축해야 하며, 온갖 범법자와 경찰이 24시



간 상주근무하며 서울시내를 통과하는데 몇시간이 걸리고 남한 전체의 산과 강은 오염되고 오물투성이란 것을 방송을 통해 홍보를 받았을 것이어서 양쪽의 생각과 정신상태가 이러하니 대통령각하, 우리는 통일을 꼭 이룬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정신운동을 제정해서 공포하시고 국민의 마음가짐과 해야 할 일을 홍보하고 지금 국민의 관심밖에 있는 새마을기구를 통일정신 운동기구로 개편해서 적극 추진함이 옳은 줄로 압니다.

대통령 각하, 옛날에 만석군 부자집이 1, 2년 흉년이 들고 부리는 사람중에 게으름뱅이가 있다 하더라도 만석군 부자집은 망하지 않으나 상전이 재산관리를 소홀히 하면 만석군 집은 망한다는 것을 어릴때 들었습니다. 본인의 두서 없는 글귀에 용서를 비읍니다. 할말은 많사오나 이만 줄이고 대통령 각하의 건강과 임기후에도 많은 존경을 받으시기를 기원하옵니다.

90. 8. 27

## 반공법 폐지 및 방북인사 석방요청

최 익 수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존경하는 장관님!

삼복더위도 기울어지고 때는 바야흐로 초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국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실까요. (약하옵고)

소생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이며 칠천만 민족의 일원으로서 생각해보고疎하옵나이다.

도대체 북한의 김일성주석 및 그의 추종자들 또한 남한의 노태우대통령과 위정자님들께서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를 하시는 것인지 칠천만 민족의 통일염원을 위한 것인지 위정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통탄할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사소한 조건을 빌미로 칠천만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대화를 지연시키는 작태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답답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통일원 장관님, 보내주신 서면 첫장 하단에 서술된 사실을 다 받아들여도 통일의 캄캄한 긴 터널의 출구가 보일락말락, 칠천만 민족은 터널을 통과하자니 숨통이 막혀서 죽어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살아남은 사람도 기진맥진 탈진상태가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보안법을 존치하면서 공산당과 대화를 하려는 위법이 아닐까요.

위정자님들께서는 위법을 해도 되는 것이고 보통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하는 것인가요?

위정자들만 위한 정치이고 반통일의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옵는 홍장관님.

물론 튼튼한 의식의 반공관념에서 민주적인 통일은 지당하시  
옵니다. 그러나 반공법을 그대로 두고는 국토통일은 커녕 대화  
도 어렵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장관님 우리의 (국방) 국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미  
군도 철수하지 않고 지키고 있으니 과감하게 반공법을 폐지하고  
방북인사를 석방시켜 보는것이 옳은 일, 국토통일의 길이라고 사  
료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 정책이 시행착오가 된다해도 어떤 위  
험이 있을리 없고 정책시행하신 분께서는 국토통일의 위대한 역  
사의 주역으로써 기록되어 후세에 길이 빛나리라고 사료되옵니  
다.

장관님, 위정자님들을 설득시켜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국토통일원 장관님, 허가받지 않고 방북한 인사들도  
모두 돌려보냈는데 허가받고, 방북한 사람들을 억류한다거나 신  
변보장을 안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상태가 될터이니 그 책임  
은 저들이 면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김일성 주석도 칠천만 민족의 일원이며 노태우 대통령도 칠  
천만 민족의 일원이지요.

공산주의법도 국토분리법이고 반공법도 국토분리법이라고 사료되  
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소생이 이번에 범민족대회 전야제때 연세대학교에 유일하게 전  
북 참가단 30명중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전세버스에 몸을 싣  
고 참여해 보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그들에게 희의를 느꼈어요.

존경하는 국토통일원 장관님.

疎하고 싶은 사실이 한이 있겠습니까만은 워낙 천박한 학식으로써 두서없는 줄필을 疎하려 하오니 떨리는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장관님의 넓으신 아량과 현명하심으로 굽어 살피시옵소서  
끝으로 장관님의 무운건승과 국토통일을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줄필을 놓겠습니다.

90. 9. 1

# 민족통일과 세계대평화 창출을 위한 소고 (원효사상의 현대적 해석과 그 수용방안)

김 청 안 (종로구 창신동 130 안양암)

## 1. 會三歸一思想과 和靜思想

원효성사는 한마디로 말하여 제2의 석존이라 할 수 있을만큼 불타의 전사상과 진리를 하나로 꿰뚫어 그를 용해하여 바다와 같은 일미진실의 세계를 펼쳐보이신 성인이시며 위대한 철학자이시다. 한데 이 바다와 같은 일미진실의 세계란 불교의 이상인 本覺의 세계로서 悟道の 경지를 말한다.

본시 불교에는 이 일미진실의 세계에 도달하기 이전에 수행과정에서 三乘의 교법을 이수하여 三乘果( 聲聞果, 緣覺果, 菩薩果)를 얻는 단계가 있다. 말하자면 물이 바다에 이르러 해수를 이루기에 앞서 강에 이르러 강수가 되고 淮에 이르러 淮水가 되고 하에 이르러 하수가 되는 것과 같은 과정이라 하겠다.

그런데 여느 세계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대도를 이루는 불교에서는 이 三乘의 경지에서 마지막 일미진실의 세계 즉 一佛乘의 경지에 들어감이란 실로 어렵다. 그래서 저마다 그 길을 찾는다는 것이 수행자들은 각기 종파와 교파를 세웠다. 불멸후 100년대에서 부터 인도와 중국에서 小乘 20 부에다 空·性·相 등 교리적인 부파와 아울러 毘曇, 成實, 般若, 智論, 攝論, 三論, 涅槃, 法相, 華嚴등 각 종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났던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교단은 교파나 종파끼리 시비하고 논란하는 마굴이 되었다.

이때에 신라 원효성사가 부르짖었던 사상 가운데 그 대표되

는 하나가 會三歸一思想이었다. 三乘(모든 종파들의 사상)을 회통하여 一乘에 돌아가게 하는 사상인 것이다.

하루는 원효성사가 어전에서 金剛三昧經論을 설했다. 필시 일미진실의 세계와 회삼귀일사상을 춘추 무열왕 앞에서 설했으리라. 한데 그때 국왕은 이 회삼귀일사상을 어떻게 받아드렸을까를 잠깐 생각해 본다. 당시 불교가 국교화 되었고, 신라를 佛緣國土로까지 생각하며 어전에서 百高座 법회를 개최하면서 한편으로는 오매불망 삼국통일을 염원하고 있었던 국왕은 필시 원효가 설하는 이 회삼귀일사상을 바로 삼국을 통일하여 일국을 이루는 삼국통일의 원리적인 사상으로 받아드렸던 것이 아닐까고 미루어 본다. 그것은 그 사상을 정치적으로 연역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기 때문에서다. 설사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삼국통일의 이상이 신라의 대승불교사상의 토양에서 우러났고 거기에서 一味眞實세계를 신앙하는 신라인의 신념과, 그 세계를 동경하고 열망하는 신라인의 단결된 힘에 의해 통일국가가 이루어졌다면, 신라는 분명히 이 회삼귀일사상을 정치적으로 연역하여 삼국통일으로써 민족적인 일미진실세계를 창조했다고 보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하여튼 그때 신라는 통일을 이룩하여 그 국토와 국가와 역사와 문화를 우리에게 넘겨주었고, 우리는 이를 받아 불행하게도 지금 민족분단 아래에서 시급을 다투어 남북통일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우리의 통일철학의 원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더 말할 여지없이 신라의 통일철학의 원리적이념인 회삼귀일과 일미진실세계 구현이 바로 우리의 통일철학의 원리적

인 이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통일신라의 승계국가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통일신라인의 동족후손이며 또 분단 민족통일의 원리적인 사상은 당초 통일국가의 원리적인 사상과 다를수가 없겠기 때문이다.

성사가 부르짖었던 두번째 대표적인 사상은 和靜思想이었다. 쟁론을 和會하고 會通한다는 사상이다. 이 사상 역시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인도와 중국에서 종파와 학파들이 대립과 갈등으로 쟁론만을 일삼았는데서 胚胎되어 횡적으로 百家의 異執을 화회하고 융섭하고 회통하여 마침내는 바다와 같은 일미진실세계를 구현하는데 있었다. 지극히 圓融無碍한 철학으로서 당시 이 사상은 교단에 새로운 일대 활력을 불어 일으켰다.

한데 쟁론을 화회한다는 이 사상이 어찌 불교철학에만 국한되는 사상이 되겠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할 것 없이 인류세계의 제반논란에 있어 해당되지 않은데가 없는 실로 광범위한 효용을 갖는 원리적 사상이라 하겠다. 오늘날 남북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서도 그 열쇠가 되는 사상이 되겠고, 이 데올로기의 양극화로 분열된 세계를 통화의 세계로 건설할 수 있는 사상도 바로 이 사상이 되겠다.

教義에서 보면 「百千經論이 다 一乘으로 통하는 同一佛乘이며, 五種性人(중생들의 다섯가지 성능)이 다같이 일승을 타고 佛位에 오른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써 성사는 三乘과 五種性人의 각각 다른 견해와 집착과 편견과 異執과 異說들을 모두 타파하고 화회하고 회통하고 융섭하여 반목과 대립과 배타와 갈등을 지양하고 초극하여야 구경의 일미진실세계에 들어갈 수 있음을 크게 설파했다.

이 사상은 오늘날 논란과 쟁론으로 숨이 막혀드는 세계의 정

치를 위시한 모든 분야에 연역해석한다면 이는 어느 철학도 접근하지 못하는 세계문제 해결의 훌륭한 방법론이 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오늘날의 원효성사가 있는 것이다. 1300년전 신라 통일시에는 회삼귀일 즉 삼국통일의 원리적 사상의 가치를 들고 신라인의 선두에 등장했고, 오늘날에는 會二歸一 즉 남북통일과 세계양대 진영 통화의 원리적인 사상에다 그 방법론이 되는 和靜思想의 가치를 들고 민족과 인류 앞에 등장하여 민족적인 평화통일과 인류적인 세계평화 건설로써 그 구경이 되는 일미진 실세계에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철학은 여기에서 민족사와 인류사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음이 너무도 당연하다 하겠다.

## 2. 몇몇 드문 역사적 찬송과 작금의 재조명 현장

나는 여기에서 성사 입적이후에 성사를 극구찬양하고 받들었던 몇몇 기록을 살펴보고 작금에 있어 시대적으로 재조명되는 그 현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사는 물론 그 교학이 어느 한 종파에 속하지도 한 경론에 치우치지도 않았고, 또한 그는 한 스승에게서 수학하지도, 많은 문도들에게서 섬겨지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일체에 걸림이 없는 생사를 초탈한 사람)의 한 도승이었다. 그가 입적한 후에는 그의 百部論著가 먼지속에 쌓였다가 고려때 義天 大覺國師의 눈에 띄었으리라. 大覺國師는 祭芬皇寺曉聖文에서 성사를 「우리 海東보살」이라고 일렀고, 또 「당신의 용자를 우러러 뵈오니 옛날 석가가 설법하신 영산회상에 동참한듯 하옵니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이어 국사 재세



시인 숙종 6년에 와서 비로소 성사에게 和靜國師의 諡號가 내려졌고 碑가 세워졌음을 보게 된다. 그 뒤에 성사의 사상은 이웃 일본에 전해져서 사의 저서 遊心安樂道는 일본 정토종의 소의경전이 되고 있고, 일본의 국보인 華嚴緣起 6권은 일명 華嚴祖師繪卷이라 불리우며 그 주인공은 元曉와 義湘과 善妙로서 현재 京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근대에 와서는 趙素昂 선생이 1933년에 독립운동을 영도하시던 망명지에서 그의 撰述인 新羅國元曉大師傳併序에서 「사람은 누에이며 스님은 그 중에 나비로다」라고 하면서 성사를 장문으로 극찬하고 있다. 무려 1300년의 역사를 내려오면서도 이렇듯 진심으로 성사를 찬양하고 奉戴하는 기록은 드물다. 성인은 성인의 눈이 아니면 보지 못하는 탓도 있으리라. 오히려 이웃 일본에서 성사를 더 받들고 있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이다.

한데 현대에 접어들어서였다. 1954년 5월 교단분규 당초의 일이었다. 「한국불교를 살리는 길은 元曉聖師를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사를 종조로 모시는 대한불교 원효종이 창종되었다.

그러고서 썩 후인 1986년 3월 30일에 성사 열반 1300주년을 맞아 그 기념행사의 하나로 聖師全書 국역간행사업 발기와 아울러 원효사상 세미나를 한국일보사 대강당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때였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성사가 어전에서 회삼귀일사상을 강술했을 때, 春秋 武烈王이 이를 삼국통일의 원리적인 사상으로 받아드렸다고 미루어 생각되듯이, 이 세미나에서도 전문학자들이 성사의 화쟁사상을 강화했을 때, 청중들은 한결같이 이를 남북평화통일의 원리적인 사상으로 받아드렸음이

너무도 분명했다 하지 않을수 없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서는 근년에 있어서의 불교사상 강화가 그와같이 성대하고 또 진지하게 시대적인 대호응을 받을 수가 없었겠기 때문이다. 이는 성사의 어전 설법이후 또 한번의 기연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아뭏든 성사의 철학은 이것이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서 1986년 9월 아시안게임 전날밤에 문화공보부에서는 KBS TV에다 「한국대표인물」이란 타이틀로 성사의 일대기를 기록영화에 담아 전 아시안에게 소개하고 되었고, 1987년 11월 1,2일에 국토통일원에서는 한국, 일본, 자유중국,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원효철학을 연구하는 석학 4, 50명을 초빙하여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성·원효 대 심포지움」을 성왕리에 개최하는 한편 방대한 원효연구논총을 발간한 바 있었다.

이와같은 일련의 사실들은 성사가 한국불교사상 또는 민족정신문화사상 제1인으로서의 불멸의 금자탑을 쌓았기 때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철학사상이 분단된 한민족의 평화통일과 양분된 인류의 통화를 위한 사상이 되기 때문인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하겠다. 더구나 국가에서 발표한 국제적인 보도와 학술대회였으므로 추호도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불교사상 또는 민족정신문화사상에서의 성사의 위상을 굳이 논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나 몇몇 대표적인 사적 기록으로써 이 글의 논증을 삼아 놓는다.

### 3. 민족정신문화사상 성사의 위상

불멸후 인도의 龍樹菩薩과 중국의 智者大師와 한국의 元曉聖師를 각각 그 나라 불교계의 대표자로 꼽고 있는 것은 이미 동방문화사상계의 정평이라 하겠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元曉不

羈條에는 그의 位階를 初地菩薩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翻經三藏들은 석존의 고장인 인도의 龍樹보살과 馬鳴보살의 저서를 존칭하여 論이라 일렀듯이 성사의 저 金剛三昧經疏를 論으로 격상시켜 金剛三昧經論이라고 제명하고 이를 극찬하고 있다. 그것도 그들 나라 중국의 기라성 같은 고승 한사람의 저서에도 疏를 論으로 격상시킨 사실이 없었음에도 소위 小國이라는 신라인에다 그나마 중국에 유학한 사실조차 없는 원효의 疏를 論으로 격상시켰은 즉,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사의 金剛三昧經論이 얼마나 탁월한 저서인가를 십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거기에다 동방문화사학의 대가인 大堂 최남선 선생은 그의 저 「조선불교」(부제, 동방문화사상에 있어서의 그의 지위)란 논설에서 원효의 通佛敎思想에 대해 평론하기를 「인도 및 서역의 서론적 불교 支那의 각론적 불교에 대하여 조선에서는 최후에 결론적 불교를 건립하였다」하였은즉 이 말은 원효를 석존이후에 제1인으로 지칭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성사의 저서는 무려 102부 303권(현존 20부 23권)으로서, 그는 불교사상 10명의 百部論主(1부를 1경으로 간주)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대저술을 남기어 놓았다.

보다도 특히 위대했던 점은 그가 화쟁사상으로 한국적인 通佛敎를 創導했던 사실과, 스스로 小姓居士가 되어 무애박을 두들기고 무애노래를 부르면서 방방곡곡을 두루 돌아다니며 대중 불교 운동을 몸소 실천한 보살행의 시현등이라 하겠다. 어찌 이를 다 매거하겠는가. 이만으로도 과거의 그는 분명히 민족의 들도 없는 성인이요, 오늘날의 그는 분명히 인류를 구제할 성인으로서의 진면목을 십분 과시하고 있다고 해서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결과적으로 오늘의 위상

을 차지하게 된 것은 당연중에서도 당연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여기에서 제목의 말미의 수용방안을 밝히기 위해 붓을 성사를 낳은 대한민국과 성사가 신명을 받쳤던 민족 쪽으로 돌려야 하겠다.

#### 4. 그의 사상 수용방안

일찌기 영국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서 발간한 「세계백인위인선」에는 한국인으로는 문인에 원효성사와 무인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정 수록되고 있어 세계 각국 학계의 엘리트들은 성사의 사상의 위대성을 연구하며 추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자국의 위인중에서도 유독 민족의 대표라고 일컫는 성사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추앙은 물론 이땅에 그를 섬기는 聖域 하나조차 조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에 치른 서울 올림픽만 하더라도 올림픽 역사상 일찌기 없었던 기록적인 대성공을 거두어 세계로부터 극구 찬사를 받았던 것도, 실은 그 저변에서 민족문화사상의 뿌리가 되고 있는 성사의 양대사상을 주축으로한 신라정신에 근원을 둔 평화를 사랑하는 한민족정신의 시대적인 대발동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미치어질 때, 이같은 성사에 대한 민족적인 망각은 실로 통한으로까지 느껴진다. 생각하면 고구려 살수대첩에서부터 인도양 안다만의 KAL기 추락사고에 이르기까지, 민족이 일만번을 넘어 외침을 당하고도 오천년을 내려오면서 단 한번도 민족적인 분통을 침략으로 발산하지 않고 오히려 찢어지는 아픔을 웃음으로 바꾸어 가면서 세계의 대평화운동인 올림픽으로 승화시켜 보였은 즉 이것이 한민족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신라인이 이 땅을 佛緣國土로 까지 생각하면서 정

혼을 사루어 지혜와 덕을 닦았던 보살도의 인욕의 정신과 회향의 정신의 발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계의 어느 민족역사에서 이 정신을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는 분명 살신성인이나 또는 求法修道人의 정신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같이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새삼 발견하게 된다.

각설하고 아뭏든 이를 뿌리없는 과실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속속들이 아리이는 민족역사를 결코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만시지탄이 있으나 우리는 바로 이 시간부터라도 이 민족정신의 뿌리에 그 원천이 되는 성사의 연고지에다 국가 차원에서의 성역을 하루빨리 조성하고, 그 성역에는 성사의 철학 그대로를 수용하여 바다와 같은 일미진실세계 구현을 위하여 세계평화를 창출하는 평화의 대전당을 세워야 할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첫째로 이 성역에는 성사를 모시는 전당이 있고, 성사의 철학을 위시한 민족 전통적인 정신문화를 연구하고 수련하는 도장이 있어서, 거기서 민족정신과 민족정기를 배양하므로써 결집된 힘은, 민족적인 일미진실세계를 창출하는 민족정신의 총본산이 되어야 하고, 둘째로 이 성역에다 세계평화를 창출하고 개도하는데 필요한 국제적인 기구와 시설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국제적인 모순, 갈등을 연구하고 회의하고 화쟁하고 상호 융섭하므로써 인류적인 일미진실세계를 구현하는데 이를테면 그곳은 명실공히 세계평화 창출센타가 되어야 할 것이다.

## 5. 세계평화 창출의 핵심적 원리

앞에서 이 일미진실세계 구현의 방법으로 성사의 회삼귀일사

상과 화쟁사상을 말했거니와, 현대 세계의 장벽은 너무도 높고 두터워서 이 두 사상으로 그 벽을 무너뜨리고 뚫기에는 실제로는 더러 지난한 事象도 없지않아 있을 것이므로 하여 나는 여기에 그의 핵심적 사상이 되는 성사의 悟道哲學을 들어 놓는다. 그래서 至難한 事象에 대하여는 이 사상으로 그 벽을 송두리채 녹여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일어나면 백천가지 일이 일어나고, 마음이 멀하면 백천가지 일이 멀한다」(心生則 種種法性, 心滅則 種種法滅)란 진리이다.

유사이래 지금까지의 인류는 집단적으로는 침략과 그에 따르는 방위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세계 각국에는 고래로부터 전쟁과 무기를 주관하는 국방부서는 서로 과시하며 있었어도 평화와 화쟁을 주관하는 평화부서(?)란 그 이름조차 없었기 때문에서다. 오늘날 유일한 세계평화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만 해도 전쟁위기와 전쟁중재를 관리하고 있을뿐, 사전에 민족간의 쟁론에 대한 화쟁과 평화를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류평화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다 하겠다. 왜냐면 역사이래 인류는 침략과 방위만을 생각하고 연구했으므로써 이 지구상에는 침략적인 전쟁과 방위적인 전쟁만이 일어나 인류 역사는 마치 전쟁사와 흡사하다 하지 않을수 없다. 이것이 心生則種種法生의 원리에서가 아닌가.

그러므로써 인류는 지금부터라도 인류가 회구하는 평화와 화쟁만을 생각하고 연구하므로써 앞으로 지구상에는 평화와 화쟁 사건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평화와 역사, 화쟁의 역사 나아가서는 인간애의 역사로 그 패턴을 정반대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도 또한 心生

則種種法生の 원리에서인 것이다.

따라서 침략을 생각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일체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心滅則 種種法滅의 원리에서인 것이다. 이는 바로 성사의 핵심사상이자 석존의 최고진리이며 한국불교의 중심사상이 되는 華嚴哲學의 一切唯心造의 진리인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 진리에 대해 인류는 지금까지 한없이 우매했고 물질문명은 지극히 암흑했었다. 그래서 가증스럽고 미런스럽게도 인류는 스스로 벽을 쌓아 길을 막았고 무기를 만들어 침략을 했고 다같은 인류끼리 또한 전쟁끼리 살상을 하고 탄압을 하고 착취를 하는등 악덕이란 악덕을 골라 자행하지 않았던가. 적어도 민족을 단위로 한 집단적으로는 말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대오각성하여 저마다의 「마음」 하나만 이제 그 채널을 바꾸어 놓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게되면 지구상의 벽과 벽은 영구히 무너지고, 지구를 열번 파괴하고도 남을 미사일도 고철이 될 것이며, 전쟁을 준비하는 힘으로 평화가 흐르는 길을 닦을 때, 끝내는 바다와 같은 일미진실의 평화세계는 구현될 것이다. 이것이 세계평화를 창출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실은 우리는 이미 지난해 9월 17일에 있는 서울 올림픽 개회식장에서 이 인류의 대평화사업을 세계만방에 선포한 바 있었다. 거기에서 161개국 세계의 대표들은 인종과 이념과 체제와 언어와 종교 이 모든 벽을 넘어 破天荒的인 인류 평화의 이 대제전을 감격 감탄하면서 滿腔의 박수를 보내 주었고, 50억 인류는 하나같이 이를 지켜보며 경탄했다. 이는 바로 인류 역사적인 이 대사업의 개막이었고 그리고 이 대사업의 절반의

성공이었다. 시작이 절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써 나는 여기에  
서 이 위대한 인류 대평화 사업을 올림픽 폐막과 함께 끝낼  
것이 아니라, 서울 올림픽이 이 사업의 개식장이 되어 지금부  
터 이 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이 민족이 아니고서는 세계 어느 민족도 이 사업을 실  
시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성사의 철학이 아니고서는 세계 어  
느 철학도 이 사업의 근원철학이 될 수 없겠기 때문에서다.  
그러므로써 나는 이를 이 민족이 하늘에서 받은 영광된 소명  
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감히 외람되게 이렇게 그 길을 설정  
해 보는 것이다. 민족은 결코 이를 중단하지 않을 것을 믿으  
면서, 그리고 일찌기 영국에서는 그의 식민지인 인도를 내어 놓  
을지언정 대 문호 셰익스피어를 내어 놓을 수 없다고 했다.

지금 영국의 스트래드퍼드 어폰 에이번에 있는 셰익스피  
어의 생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려드는 문학의 순  
례지로 되어 있다. 거기서 그들은 영국적인 휴머니즘, 어찌면 그  
들의 전통적인 신사도를 전 세계인에게 심어주고 있는지 모르  
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땅 반쪽을 내어 놓는 한이  
있어도 성사 원효를 내어 놓을수 없다해서 마땅하리라. 그는 한  
국의 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만이 앞으로 이 지구상의 인  
류를 구제할 수 있겠기 때문이며, 막 동방에서 솟아오르는 눈  
부신 아침 태양이기 때문이다. 하므로써 민족은 성사에 대한 성  
역을 하루 빨리 조성하여 그의 철학으로써 인류를 구제하는 세  
계 대평화사업을 올림픽 선언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여야 할 것  
이며, 끝으로 하나 덧붙여 놓자면 오늘날 공산권 국가와의 경  
제교류협력의 또한 이 대평화사업의 간판아래서 추진하는 그 일  
환사업으로 삼을 때 바야흐로 인류는 평화세계란 새로운 역



사의 장으로 진입하게 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마땅히 이 새 역사의 창조자가 될 것이다. 또한 만약 미구에 금강산이 공동 개발된다면 이곳은 이 민족의 영산이며 신라 원효성사의 住錫處로서 이곳을 이 대사업 추진에 근본도량으로 삼는다면 그 이상의 適地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일미진실의 法도량이고 화엄사상의 도량으로서 지금도 法起菩薩이 상주설법하고 있고 원효성사가 화쟁철학을 강설하고 있는가하면 반면으로 그 주위에 펼쳐진 삼엄한 한민족의 남북 분단현실은 민족통일과 인류평화를 절실하게 웅변하고 있으므로써, 이는 다음과 같은 일석육조의 효과를 견을수 있는 곳이라 하겠다. 즉 첫째 그곳은 세계제일의 관광명소가 되고, 둘째 그곳은 한국대표인물인 성사의 성역이 되고, 셋째 그곳은 세계평화창출센타가 되고, 넷째 그곳은 세계적 비극의 고장인 한국의 남북분단현장이 되고, 다섯째 그곳은 인류정신문화가 바야흐로 동양 한국으로 회귀하여 결집되는 성지가 되고, 여섯째 그곳은 지역내 남북관광교류로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순화작용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 금강산이 성사에 대한 성역설치의 제1 후보지라면 제2 후보지로는 경주시 내동에 있는 망월사와 그 배면의 남산골 노천박물관 일대를 꼽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세계의 명화 「모나리자의 미소」 이상가는 신라 조각 三體佛像의 미소가 있는가하면, 그 일대는 신라조각품 마애불상의 群集地로서 신라예술의 극치가 살아있는 곳이며 또한 거기에는 원효종의 기본재산인 임야 6만여평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90. 9. 11.

# 통일정신과 통일에 관한 수칙제정

정 진 형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통일을 원치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통일정신과 통일의 수칙을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굳게 실천할때 그 효력이 있다고 봐서, 이나라 통치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힘을 북돋아야 될때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정치인 및 사회일각에서 저지르는 부조리를 오늘 이자리에서 깨끗이 과감하게 청산하고 통일을 서라도 준법정신과 질서확립을 확고히 한 테두리에서 도덕심이 풍부한 속에서 관·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2천년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바탕위에 통일이 싹터야만 무난히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일정신과 통일에 관한 수칙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1. 법을 엄하게 질서를 확고하게 할 것.
2. 오륜삼강 도덕심을 교육에서 체질화할 것.
3. 기성인 우리노인들도 모두 모범을 보여 동방예의지국의 바탕을 다질 것.
4. 학생들은 농성난동은 이제 그만하고 공부, 연구 열심히해서 발명가 내지 노벨수상을 목표로 할 것.
5. 노사분규도 이제 그만하고 회사는 사원에게 사원은 회사에게 상호 협조해서 89년도에 엄청난 손실을 금년부터는 그만한 흑자로 돌린다는 신념에서 최선을 다할 것.
6. 통일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농성도 자제할 것.

사의 장으로 진입하게 되고 따라서 대한민국은 마땅히 이 새 역사의 창조자가 될 것이다. 또한 만약 미구에 금강산이 공동 개발된다면 이곳은 이 민족의 영산이며 신라 원효성사의 住錫處로서 이곳을 이 대사업 추진에 근본도량으로 삼는다면 그 이상의 適地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바로 일미진실의 法도량이고 화엄사상의 도량으로서 지금도 法起菩薩이 상주설법하고 있고 원효성사가 화쟁철학을 강설하고 있는가하면 반면으로 그 주위에 펼쳐진 삼엄한 한민족의 남북 분단현실은 민족통일과 인류평화를 절실하게 웅변하고 있으므로써, 이는 다음과 같은 일석육조의 효과를 견을수 있는 곳이라 하겠다. 즉 첫째 그곳은 세계제일의 관광명소가 되고, 둘째 그곳은 한국대표인물인 성사의 성역이 되고, 셋째 그곳은 세계평화창출센타가 되고, 넷째 그곳은 세계적 비극의 고장인 한국의 남북분단현장이 되고, 다섯째 그곳은 인류정신문화가 바야흐로 동양 한국으로 회귀하여 결집되는 성지가 되고, 여섯째 그곳은 지역내 남북관광교류로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순화작용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곳 금강산이 성사에 대한 성역설치의 제1 후보지라면 제2 후보지로는 경주시 내동에 있는 망월사와 그 배면의 남산골 노천박물관 일대를 꼽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에 소장된 세계의 명화 「모나리자의 미소」 이상가는 신라 조각 三體佛像의 미소가 있는가하면, 그 일대는 신라조각품 마애불상의 群集地로서 신라예술의 극치가 살아있는 곳이며 또한 거기에는 원효종의 기본재산인 임야 6만여평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90. 9. 11.

# 통일정신과 통일에 관한 수칙제정

정진형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통일을 원치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줄 믿습니다. 그러나 통일정신과 통일의 수칙을 모든 국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굳게 실천할때 그 효력이 있다고 봐서, 이나라 통치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그 힘을 북돋아야 될때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정치인 및 사회일각에서 저지르는 부조리를 오늘 이자리에서 깨끗이 과감하게 청산하고 통일을 서라도 준법정신과 질서확립을 확고히 한 테두리에서 도덕심이 풍부한 속에서 관·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2천년대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는 바탕위에 통일이 싹터야만 무난히 통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통일정신과 통일에 관한 수칙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1. 법을 엄하게 질서를 확고하게 할 것.
2. 오륜삼강 도덕심을 교육에서 체질화할 것.
3. 기성인 우리노인들도 모두 모범을 보여 동방예의지국의 바탕을 다질 것.
4. 학생들은 농성난동은 이제 그만하고 공부, 연구 열심히해서 발명가 내지 노벨수상을 목표로 할 것.
5. 노사분규도 이제 그만하고 회사는 사원에게 사원은 회사에게 상호 협조해서 89년도에 엄청난 손실을 금년부터는 그만한 흑자로 돌린다는 신념에서 최선을 다할 것.
6. 통일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농성도 자제할 것.

7. 통일정신에 입각하여 사치풍토를 근절할 것.
8. 놀러다니느라 비좁은 틈에 끼어 욕보지 말고 2천년대를 기  
준목표로 뚝뚝모아 놓았다가 통일되면 강원도, 금강산 구경  
가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 할 것.
9. 놀러다니며, 지친 농부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것.
10. 담배꽁초 하나라도 자기의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할줄 아  
는 습관을 가질것.

10대 원칙을 통일정신으로 온 국민이 한데 뭉칩시다. 통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은 잘 되어 있다고 보며 능력이라 면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은 세계 어느나라 사람도 당할수 없 는 강인하고 영리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 몇가지 예를 들면, 기능올림픽 8년째 한 사실, 반도체 기 술발전, 히말라야 정상 정복, 아시아경기, 올림픽등을 해낸것을 보면 못해낼게 없는 능력과 여건이면, 우리나라 과거를 돌이켜보면 일제 압박 끔찍한 6.25로 시달려 왔지만 지금은 세계로 문이 활짝 열려 적대시하던 공산국가 강대국까지도 머리숙여 교류하 자는 것을 생각해보면 올림픽을 잘한 이후 앞서 말한 비상한 머리를 갖춘 젊은 청소년들 힘이 아닌가 생각되며, 본인이 청 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된 30여년 경험한바에 의하면, 모든 청 소년들을 내아들 내손자와 같이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하도록 격려 칭찬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 번 잘못하고 한번 잘했으면 잘못된것만 나무랄게 아니라 잘한 것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고 흡족하게 해주면 올바른 사람 되는것을 여러사람 봐 왔고, 선도위원하면서 모범청소년을 군수 또는 서장에게 말하여 모범표창도 여러사람 해주게 했고 지금

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생각으로는 정부도 지금까지는  
벌을 위주로 했다면 앞으로는 상을 위주로 하는게 좋을듯 합  
니다. 잘하는 청소년들에게 격려와 칭찬을 흠족하게 해주어 사기를  
드높여 주어 모든 사람들이 본보고 서로 더 잘하려는 경쟁심  
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90. 9. 21

# 통일을 위한 긴급건의

김 상 구 (인천직할시 서구 석남2동)

경제교류다 금강산 개발이다 합도 통일을 전제로 함일진데 결실을 얻는데 낭비하지 않는 시간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독일과 같이 이산가족의 자유왕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투자나 기타의 방법으로는 소기의 목적달성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선심정책을 쓴다해도 유치원에서부터 남한배척교육으로 시작해서 이동에 여행증이 필요하고 주민조직으로 5담당제가 편성되어 있는 그들의 체제이고 보면 성과를 얻는데 수많은 난관과 의문점이 있다. 고로 아래에 유의해서 통일업무에 임해줄 것을 제언하는 바입니다.

1. 북한은 통일을 김일성 주체사상의 연장선상에 놓고 추진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1항의 이유로써 개방을 두려워하고 있는데다 서두에 기술한 내용대로라면 우리의 각종 제안·정책이 뚫고 들어갈 틈새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북한사회에서 국민의 봉기같은 것도 기대할 수 없다.
3. 그러한 그들에게 단번에 연 20억에 가까운 상거래 제안을 한 모양이니 왜 그렇게도 조급하고 졸속하냐 말이다. 집권당이 야당을 매수하듯 또는 북한집단을 서구인 대하듯 한 대서야 정책입안 당국자들의 정치연륜이 아깝다. 씨커스의 동물도 재주는 배가 고파야 하지 만복일 경우라면 재주를 부리지 않는다.
4. 따라서 그들의 태도를 관찰하면서 서서히 선심정책을 추진

하지 않는다면 일방통행으로 끝날 위험을 안고 있다 하겠다.

5. 상기한 제항의 내용에 의해서 독일과 같은 이산가족의 왕래부터 타결지으란 것이다.

풀이 : 독일의 통일에 동독국민들의 노도와 같은 환성을 얻어낸 것은 이산가족들의 내왕에서 얻어낸 자유세계의 우월성의 선전이 잘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점을 똑바로 인지하라는 것이다. 생각을 해보라. 남한국민이 방북시에 가지고 갈 자유세계의 다양한 선물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런데서 기반을 닦아놓은 후라야 10억이든 20억이든 간에 선심정책술이 올바르게 받아들여질 것이 아니겠는가.

6. 이산가족 상봉이란? 감옥에 있는 죄인을 면회하듯 지정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단언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고향산천을 돌아보고 출생한 집에서 며칠이고 휴식을 취할수 있는 것이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래야만 상기한 제목적을 달성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7. 대륙국도 아닌 좁은 국토에 연방제란 있을수 없다. 부득이하다면 도 단위로 하는 연방국을 만들자고 하라. 이렇게 된다면 김일성 집단은 붕괴되는 것이다.

8. 국체는 공산이다, 자본이다를 논하기에 앞서 이 지구촌에서 어느 부락이 제일 자유롭고 부를 이룩하고 있는가를 조사해서 선정하자고 한다면 김일성 주체사상은 나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풀이 : 가령 A라는 국가의 제도가 그들 국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부를 누리게 하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자는데에 김일성체제를 강



요해 을 면목이 없을것이 아니겠는가 이런식으로 설득을 해야지 기타의 논쟁으로는 부지하세월일 것이다.

9. 언필칭, 남한의 미군주둔을 큰 문제거리로 삼는듯 하다. 여기에 대한 답으로 6·25가 없었다면 미군의 주둔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솔직히 북한의 후원국은 중공과 소련이고 남한은 미국임이 사실이다. 유사시에 북한의 후원군 내도시간은 단 15분이면 충족하다. 그러나 남한의 후원군이 도달하는데는 선발대라도 수십시간이 소요되고 본진이 도달하려면 20여일이 소요된다. 이런데에서 남한에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역설하라. 따라서 통일작업에 있어서 철군문제는 통일이 되는 최후의 순간, 그것도 6·25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시에의 것이다.

결론 : 최소한으로 이산가족의 자유왕래실시가 1년정도는 경과후에 각종 선심정책을, 그것도 서서히 실천해 나가란 것이다. 그래야만 5.항의 풀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 것이며 옹고집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개방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이산가족의 왕래에서 얻어내자는 것이 필자의 지론입니다.

90. 10. 12

## 선내치 후통일 논의

김 기 통 (전남 여수시 수정동)

근계 시하 만추지절을 맞이하여 홍장관님의 건승과 태내도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하나이다. 소생은 만 72세의 노령의 실향민으로서 지난 8월에 홍장관님으로부터 보내주신 귀중한 서신을 받아보고 즉시 회답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홍장관님께서 남북고위급회담에 참석차 평양에 다녀오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 시국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드리고저 집필하게 되었사오니 관용있으시길 앙망하나이다.

남북고위급회담에 대하여 자기네 주장대로 고려연방제로 무력적화통일을 해내겠다는 기본방침을 관철하려고 가진 전술을 획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고급 공무원들의 자세와 여야의 극한대립과 여당인 민자당내의 계파간의 대립 내분갈등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는 통일논의는 제쳐놓고 남북대화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정부여당의 신뢰하락의 문제가 일익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만은 믿을수 있는데 그 이하의 장관 및 당수뇌부는 자기들의 사리사욕에 몰두하고 있다는 여론입니다.

특히 경북도지사의 뇌물사건과 여천군수의 읍장임명을 미끼로 한 5,000만원의 뇌물사건 등이 정부 및 대통령에 대한 신임도를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둘째로 국회의원들은 당선만 되면 10만 선량이란 인식은 아랑곳 없고 당리당락과 사리와 치부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겠습니까?

지난 10.27 조선일보에 통일벼 가공특혜 20억폭리 자주미업자 기한후 32만가마 추가배정받아 도정공장 11곳 적발 국회의원 경영하고 있는곳 포함의 기사내용을 읽어본즉 평민당 소속 해남 국회의원 김봉호, 동당소속 국회의원 담양, 장성 김길곤, 전의원 민병초 등이 경영하는 도정공장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셋째로 지난 10.27 조선일보에 한국정·재계 「북방주」에 취해있다는 기사. 재일동포 「한반도에 위기닥친다」는 출판화제, 무절제한 통일논의로 내정소홀의 기사. 9.24 조선일보에 전 남노당 총책 박갑동씨 인터뷰 “KAL폭파등 북 사과받은 후 통일협상” 기사. 10.31 조선일보에 사로맹 수사, 안기부 발표 등의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산넘어 산의 걸림돌이라고 추리됩니다.

아무튼 시일이 걸리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 안정이 확정된후 우리가 원만하게 김일성이 두손을 들고 굴복할 때에 비로소 통일협상을 이룩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성이 일익 호언장담하고 있는 것을 우리 남한측에서는 냉소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세는 금물입니다. 현재 남한전역에 확

산되어 있는 전민련, 전대협, 사로맹등 수많은 좌경단체는 자기  
네편(즉 우당)이라고 계산하여 우리 남한측의 허점을 노려 결  
정적인 시기에 기습공격한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장관님께서도 황해도 출신인 실향민으로 알고 있습  
니다. 제정 러시아(즉 아라사)가 국민의 3%에 해당하는 극  
좌분자들에게 굴복하여 정권이 붕괴되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TV화면에서 학생 및 시위군중들이 경찰관을 향하여 화  
염병을 투척하는 장면과 그를 진압하는 전경들이 최류탄을 발  
사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이것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고 물  
으면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답변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시위를 진  
압하다 죽으면 개죽음이고 시위를 하다가 죽은 학생이나 군중  
은 열사로 추대하는데 참으로 잘못돼도 여러가지로 잘못된 일  
이라고 사료됩니다. 너무나 장문을 털어놔 죄송합니다.

90. 10. 31

## 제3차 남북고위급 회담 남측대표단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의회

1. 우리가 지난 1,2차 회담의 경과를 살펴보면, 양측의 주장은 미시적으로 보거나 정권적 시각에서 볼 때는 몇가지 차이들이 발견되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안목으로 볼 때는 사실상 별 차이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즉 (1)남과 북은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고 준수한다. (2)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3)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분쟁과 의견대립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4)남과 북은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아직 뚜렷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가 제안한 것이냐 라는 식의 회담주도권 다툼내지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같은 정권적 차원의 계산 때문이 아닙니까?
2. 남북 불가침선언은 남북당국이 공히 주장해온 것입니다. 북의 경우는 물론, 남한도 역시 74년 1월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88년 노태우 대통령 유엔연설, 금년 1차 고위급 회담에서의 강총리 기초연설을 통해 이미 주장해오던 바가 아닙니까? 유엔연설에서는 '남북한간의 기본적인 상호 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한다는 견지에서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선언할 것을 제외합니다'라고 분명하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제와서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입니까?

굳이 차이를 찾자면, 강총리의 제안에서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당국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으며 군비경쟁을 중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전 민족과 세계에 선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신뢰구축 조치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불가침선언이 단지 '선언'이기 때문에 실질적이지 못하다면, 그 선언 채택과정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반 조치들을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북측의 남침위협을 내세워 막대한 예산을 국방비에 소모함으로써 주택, 교통, 교육 등 국민의 사회복지요구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이고 보면, 북의 남침위협을 제거하고 과도한 국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혹시 북측이 불가침선언을 회피하더라도 오히려 남측이 적극 설득해서 합의를 도출해내야 할 성격의 사안이 아닙니까?

지난 번에 불가침선언 즉각 합의를 거부하는 이유로 국회, 국민의 동의, 국정 최고책임자 서명 등을 내세웠는데, 남북이 다시는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는 것에 반대할 국민이 누가 있으며 7.4 공동성명은 김영주, 이후락 양인의 서명만으로 발표되었는데 굳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만 채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억지란 말입니까? 더군다나 85년 국

회회담준비 과정에서는 불가침문제를 다루자는 제안에 대해 이는 정부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거부해놓고 이제와서는 새삼 국회를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혹 국회동의를 필요하다면, 양측이 채택에 합의한 후 각기 절차를 밟아 추후 공식선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6. 마지막으로, 우리는 최근 베를린 3자회담으로 인해 구속된 조용술 목사, 이해학 목사와 조성우씨의 경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과 3개월전에는 주최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인터콘티넨탈 호텔이라는 장소와 제반 편의까지 제공하면서 회담을 주선하여 놓고는, 무엇이 달라졌다고 구속한단 말입니까? 북과의 만남이 문제가 된다면, 공개리에 만난 세 분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비밀리에 가족을 만난 고위급회담 대표단들의 행동이 문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통일은 정부당국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7,000만 민족구성원 모두의 문제임을 직시하시고, 이러한 의문을 갖고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회의에 찬 눈초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성스러운 민족통일의 위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만일 필요하다면, 북측대표단에 대해서도 통일의 실질적 진전을 위하여 북측에 요구되는 바의 제안을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90. 12. 7

# 통 일 의 길

황 원 섭 (충남 서산시 양대3동)

## 머 리 말

현재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통일 문제는 통일론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여 국토통일론, 남북통일론, 민족통일, 조국통일론 그리고 북에서 주장하는 북남 즉 적화통일론이 무려 40여년 동안이나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을 위하여 남북 당국자 회담이 추진되어 오고 있다고 하는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들의 통일문제는 칠천만 겨레 온 동포가 다같이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민족적 과제라고 하는것도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통일은 고사하고 40여년이 지나서면서도 아직 통일의 실마리조차 풀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이 안되고 있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 걸림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북을 원망하고 이북에서는 이남인 이곳을 원망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왜냐하면 아무리 통일 방안과 그 방법이 다양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는 비록 아무리 애써 통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될 수도 없고 또는 되어서도 안될 변칙적인 통일론과 변칙적인 통일방안이 있는 반면에 평화적으로 쉽게 통일될 수 있는 원칙적인 통일론과 그 방법이 있다고 보는바, 현재 남북이 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인 통일 방안은 도외시하



고 변칙적인 통일방안만을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변칙론과 원칙론에 대한 개념적 논리와 그들의 이념적 성격을 파헤쳐 통일의 촉진제가 다소라도 되었으면 하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감히 붓을 들어 순서없이 몇자 적어 보려 한다. 그렇다고 해서 보잘것 없는 이 글월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함에 있어서 필자들이 단문한 탓으로 표현능력 부족과 통일문제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붓을 들게된 동기는 필자 본인들이 동학도의 후예들이 천도교 교도들로서 스승님들과 선렬들의 유업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목적 구현인 사명감 때문에 조국통일을 위하여 일편단심 비록 얼마 되지않는 평생 들이기는 하지만 한 평생 신앙과 수도 생활의 집념에서 얻어진·사고력의 배경이니 만큼 문장상 표현의 잘못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이점 많은 충고와 이해를 구하면서 순서없이 몇자 적어 본다.

主 筆 者	黃	元	燮
	申	靈	植
	金	昌	鎰
	趙	德	眞
	鄭	英	載
	羅	宗	眠
	金	昌	燮

## 차 례

1. 변칙적인 통일방안
2. 원칙적인 통일방안
3.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원인
4. 「統」字에 대한 자음의 뜻
5. 조국개념과 민족 관념  
첫째 조국이란 무엇인가  
둘째 민족관념과 민족정기
6. 국호에 대한 중요성
7. 국기에 대한 중요성
8. 통일에 대한 결론
9. 새로운 價値觀이란
10. 宗教統一과 思想統一

### 1. 변칙적인 통일방안

변칙적인 통일방안이란 : 이곳 대한민국에서 주장하는 한반도 통일론과 이북에서 말하는 가짜 조선나라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말하는 조선반도 통일론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국토 통일론과 남북통일론 그리고 북에서 주장하는 적화통일인 북남통일론이다.

남북이다 북남이다 하는 그 단어들의 개념의 뜻은 물론 일반적 견해로는 단순한 지정학적 개념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남북이다, 북남이다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복잡 미묘한 상대적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까닭으로 남은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북은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만큼 남북통일이념의 뜻은 이곳 대한민국이 이북의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역까지 통일한다는 뜻이 되고 북남 통일은 이와는 반대로 소위 조선 민

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이곳 대한민국 영역까지 통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이 통일 방안은 어느 쪽이든 침략 행위가 아니고서는 통일이란 성취될 수 없는 성질의 통일 방안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어느 한쪽의 승복이 없는 한은 맞서 싸워서 어느 한쪽이 승복을 하든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승복할때까지 기다려야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불가피하게 된다. 그래서 6.25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를 남겼고 남북회담과 같은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또 이것이 바로 분단 40여년이 지나도록 통일이 안되고 있는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여건과 현실하에서 아무리 남북회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근본적 개념의 원칙적인 통일방안이 모색되지 않는 한은 통일의 성과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서라도 복잡 미묘한 상대적 개념의 변칙적인 통일 방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쉽게 통일될 수 있는 근본적 개념의 원칙적인 통일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 2. 원칙적인 통일방안

원칙적인 통일방안이란 근본적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하는 조국통일과 민족통일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근본적 개념이란 북에서 말하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이곳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인 분단되기 전 본디의 뿌리 단군조를 국조로 하고 국호는 조선으로 국기는 태극기로 하는 진짜 조선나라 진짜 조선사람 진짜 조선민족 통일론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때 統一이라는 (「統」자의 자음도 여기에 서는 거느릴 통자의 자음의 뜻이 아니고 (근본통) (이을통) (혈통통) (실마리통) 등의 음의 뜻으로 해석하는것이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도 올바른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조국통일과 민족통일 이념은 역사와 전통적 맥락에서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의 근본인 본디의 뿌리를 다시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는것인 만큼 현실을 무엇보다 냉철하게 비판해 보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냉철한 비판이나 심판이 따르지 않는 대화나 토론에는 진정과 진실이 밝혀 질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측면에서 현실을 진단해 볼때 오늘의 조국 광복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오늘의 독립 국가는 진정한 조국의 자주 독립이 아니므로 진실한 조국광복과 진정한 조국인 조선 독립은 이제부터 우리들의 힘으로부터 라는 것을 우리들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통일에 대한 촉진제가 될 것이고 오직 이것만이 우리 칠천만 겨레와 동포들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필자들은 확신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오늘의 조국통일과 민족통일 문제는 사실상 지난 3·1 조선독립선언 운동의 실효를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맺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 ※ 참 고

「吾等은 茲에 我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  
言하노라 此로서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服함  
이며 此로서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  
노라 …………… 略 …………… 今日 吾人의 朝鮮獨立은 朝鮮人으로 하여

금 正當한 生榮을 遂케 하는 同時에 ……… 略」

朝鮮建國四千二百五十二年 三月 日

朝鮮民族代表 (三十三人 姓名 略)

이것은 지난 71년전 3.1 독립 선언서에 명기되어 있는 부분적인 문맥이기는 하지만 그 문맥 내용이 분단과 통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통일 문제와 직결되는 핵심 문맥으로서 이것은 선열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신 조국의 독립을 위하는 정신적인 문화 유산의 하나이자 유업이기도 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현실을 감안할때 조국 통일인 조선의 완전 자주 독립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해서만이 가능할것이 아닌가

### 3.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그 원인

우리는 지난 8.15의 그날을 침략자 일제가 물러갔다 해서 그날을 해방의 날이다 또는 조국 광복의 날이다 하며 뜻있게 맞이하며 그날을 경축하고 있다. 물론 그 당시의 상황을 회상해 본다면 지금 60대 이상 되는 조선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의 친일파를 제외하고서는 8.15의 그날을 감명깊게 맞이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필자들도 물론 그렇게 생각 했었고 그렇게 알고 수십년을 같이 살아왔다 하지만 그러면서 오늘에 와서 돌이켜 보건대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 특히나 필자들은 동학 사상인 천도교 법을 다소나마 이해를 하게 되면서 더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그 이유로서는 천도교법에 (포덕천하, 광제창생과 보국안민) 삼대목적 구현 목표 가운데에 특히 보국안민의 목적 구현에 대하여 그 보국 개념이 조국 통일인 조선의 완전 자주 독립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난 8.15의 그날이 조국광복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조국강토 분단과 민족분열의 원흉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본다면 분단된 기본국토는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토가 분단된 것도 아니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토가 분단된 것도 아니고 민족분열에 있어서도 한민족이 가짜 조선민족과 분열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가짜 조선민족이 한민족과 분열된 것도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조국의 강토인 조선반도가 가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두 나라가 수립되고 있으므로해서 현재 분단이 되어있고 민족 분열에 있어서도 진짜 조선민족이 한민족과 가짜 조선 민족으로 변질되므로 해서 단일 민족이 두 나라 민족으로 분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원인은 또 거슬러 올라가서 주지된 바와 같이 2차세계대전 종식과 함께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그 원흉인 제 1의 침략자 일제가 연합군에게 패배하므로서 원흉인 제 1의 침략자 일제는 물러가고 제 2의 침략자 소위 세계평화를 위한다는 연합군이 일본제국주의군인들에 대한 무장해제라는 명분으로 조국강토를 침략하면서 연합군이라는 하나의 그 가면을 벗

고 그네들은 미, 소 양국군이라는 두 얼굴을 들어내면서 38 선을 분계선으로 남북으로 분단 침략을 함으로 해서 조국강토가 분단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군사적으로 제2의 침략을 한 미, 소 양국군은 제1의 조국강토 분단의 흉범인 주범으로서 제각기 군정을 수립하고는 분단 침략을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네들은 우리들에 대하여 약소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의 그 명분을 들고 신탁통치 운운해 가며 제2의 분단 침략으로 제2의 흉범인 포악 무도한 공산주의와 요물같은 자본주의를 정신적인 침략을 위하여 소련 군정에서는 공산주의를, 미군정에서는 자본주의를 조국강토에 정착시켜 놓고는 그 흉범들은 침략자라는 누를 벗기 위하여 또 제3의 분단침략을 위하여 그네들은 앞잡이들로 하여금 소련군정에서는 친소 친중공파들로 하여금 제3의 흉범인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군정에서는 제3의 흉범인 대한민국을 수립케 하므로서 마침내는 남북 정부를 상대적으로 대립케 하므로서 강대국들에 의한 타의의 국토분단과 민족 분열이 이 민족의 자의 인양으로 완전 무결하게 영구 분단 침략으로 변모시킨 것이다.

이와같이 국토가 양분되고 민족정기가 두갈래로 변질되게 된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조국의 운명이 기구한 탓인지 아니면 앞으로 영광을 주기 위한 하늘이 주시는 시련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반만년의 이 나라의 민족사가 순탄하지만은 않다. 신라, 백제, 고구려 또는 고려 시대를 거쳐 이조말엽에는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대한제국시대를 거쳐 지난 36년간은 일제의 강권적 침략에서 고통을

받아왔고 오늘의 40여년간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맞고 있다.

이와같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에는 다행 보다는 불행이 많았던 것이다.

남의 탓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잘못이 더 많다고 본다.

오늘의 현실을 본다해도 일제 당시만 보더라도 침략자 일제와 맞서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 나라에서 싸우지 못하고 비굴하게 해외로 도피했다가 외세의 바람을 타고 돌아와 조국과 거래를 위해서 라는 명분을 들고 남의 나라의 앞잡이가 되어 일당은 붉은 옷 갈아입고 저산 넘고 저강 건너 만경대에 도사리고는 반동분자 운운하며 동포들 가슴에 총검을 겨냥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양옷에 목 땀기 매고 삼각산 한양 도읍에 장벽을 굳히고는 간첩이다 빨갱이다 운운하며 동족간에 서로 원수가 되어 서로가 괴뢰라고 시비가 분분해 온것이 오늘의 분단과 분열의 실상이요, 이것이 또 제3, 제4의 흉범자들이자 현행범들인 오늘의 김일성 괴뢰 정권 체제와 또 하나는 이승만 괴뢰정권 체제로부터 역대 통치권을 거쳐온 오늘의 노태우 정권체제들인 것으로 이곳 대한민국은 친미파와 친일파들이 앞장서서 건립한 나라로 미국의 위성국가로 출범했고 이북에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역시 친소·중공파들이 모여 건립한 나라로 중소의 위성국가로 출범한 나라들이 아닌가

#### 4. 統字에 대한 子音

統字의 子音에는 여러가지로 쓰여지고 있다.

(1) 거느릴통 (2) 버리통 (3) 실머리통 (4) 근본통 (5) 대이울통 (6) 합칠통 (7) 혈통통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상대적 개념의 남북통일이나 북남통일의 경우는 거느릴 통자로 쓰여지고,



지정학적 개념의 남북통일의 경우는 합칠 統으로, 근본적 개념의 조국통일이나 민족통일의 경우는 (1), (6)을 제외하고는 (2), (3), (4), (5), (7) 모두가 다 해당된다고 본다.

(統一, 統治, 統合, 統計, 統率 등이 있고 系統, 承統, 血統, 家統, 法統, 傳統)이라는 말들이 있다.

## 5. 조국개념과 민족관념

조국이란 무엇인가?

첫째, 조국이란 같은 한겨레들이 조상때부터 살아오는 나라 또는 국민이 갈려 나온 본디의 나라를 말 한다고 국어 사전은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진정한 조국은 어느 것 이라야 하는가?

또 조국의 국호는 어느것 이라야 올바른 국호인가?

이점에 대하여 이해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국어사전에도 말했듯이 필자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단군조께서 건립한 나라로 국호는 조선으로 정체는 천성과 인성을 본분으로 하고 충효사상을 근본으로 한 나라가 진정한 우리들의 조국이라고 알고 있는바,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이 조국이라고 말하고 이북에서는 소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 그곳을 조국이라고 말하고 있어 조국 개념이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남북 두 나라가 다 조국이라고 하는것은 어불성설로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조국이라 함은 앞에서도 말한바 있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조국이란 오랜 역사와 전통적 맥락에서 부터 라고

보는바, 남북 두 나라의 건국 년조가 불과 40여년에 불과한  
신생 국가들이 어찌 40대 이상 된 사람들에게 조국이 될수가  
있단 말인가. 이들 남북 두 나라는 조국이 아니라 조국 강토  
를 분단 강점하고 있는 국조와 조상들에 대한 범죄 행위의 현  
행 범죄 국가들로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언제인가는 없어져야  
할 과도국가 과도정부라는 것을 남북 두 나라 정권 당국자들  
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현  
정권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 전  
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  
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이하생략 ...」라고 명기하고 있는바,그  
렇다면 3.1 운동은 조선독립운동과 대한독립운동으로 두 나라 독  
립 운동을 했다는 결론이 불가피 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당시  
대한독립운동을 한 주역들은 누구들이었으며 그 주역들은 왜  
조선독립운동을 하지않고 대한독립운동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  
한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해명을 바란다.

필자 본인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대한이라고 하는 그 국호  
는 이조말엽에 일제가 평화적 침략을 하기위한 방법의 일환으  
로서 일제와 그 친일파들로 하여금 개명되었던 국호로서 일한  
합방이라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국호가 모방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침략자 왜구는 1590년대  
7,8년간을 두고 무력 침략을 해왔지만 끝내 실패하고 돌아가  
자 술살일 못했다 하며 쇠술(수저)로 밥을 먹지 아니하고 젓  
가락으로 밥을 먹으며 수백년 동안을 두고 연구해낸 것이 무  
력을 사용하지 않고 침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두 나라

합병 문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일제는 조선이라는 국호가 매우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거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조선나라는 수천년 동안 청국 명나라 등 큰 나라들과 깊은 유대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 보다는 역사가 깊다는 점,

둘째, 그러면서도 조선이라는 국호는 자기네 대일본이라는 국호보다 숭고성이 없다는 점,

셋째, 최고 통치권자 칭호가 그네들은 천황 폐하인데 비해 조선은 임금(왕)이라는 점에서 품위가 낮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그네들 일제는 갖은 괴설을 다 써가며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고종임금을 고종황제로 승격시키도록 갖은 방법을 다 써가며 종용을 하고서는 1897년 신생 국가로 탄생케 한후 일제의 보호국으로 탈락시키면서 10여년 후인 1910년도에 일한합방을 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이와같이 이조는 국호를 대한으로 개명 하고는 망하고 만 것이다.

둘째 민족관념과 민족정기

“민족”이란 무엇이고 “정기”란 또 무엇인가?

“민족”이란 말은 생활 풍속이 같고 독특한 문화를 가진 같은 겨레를 말하고 “정기”란 공명정대한 기운을 말한다고 국어사전은 명기하고 있다.

국토가 분단되어 나라가 둘이 되었고 민족이 두 갈래로 갈라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느나라 민족이라고 해야 올바른 민족관념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암담하고도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 다 한민족 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북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들은 가짜일망정 모두다 조선민족이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민족관념이 되고 이것이 과연 올바른 민족정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되는 여건은 천륜에서 형성되고 국민이 되는 여건은 그 나라의 법률로서 형성된다고 하지만 민족이 되는 여건은 역사와 전통적 혈연관계에서 형성되는 까닭으로 우리 민족은 단군조를 국조로하는 같은 조선사람 같은 단군조의 동포 또는 배달의 단일 민족인데 어찌하여 이북에는 가짜 조선사람 가짜 조선민족으로 변질되었고 이남은 조선사람도 미국사람도 아닌 얼치기의 한국사람이 되었고, 민족정기 또한 조선민족도 미국민족도 아닌 얼치기의 한민족으로 변질 되었는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양심이 본분이고 국민은 정신이 본분이며 민족은 얼이 본분이므로 양심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패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민의 정신이 건전치 못한 나라와 조상의 얼을 지키지 못하는 민족은 망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똑똑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6. 국호에 대한 중요성

이 세상에 어떠한 사물이든 이름이 없는 사물은 거의 하나도 없을 것이다. 사람들에게는 성명이 있고 상품에는 상표가 붙듯이 나라에도 국호가 있어서 어느나라 사람 어느나라 민족이라는 말들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씨의 문제이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이름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성씨만은 아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은 뒤에도 있는것이 성씨이다. 그것은 내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성씨는 시조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름은 자기 임의로 바꿀수가 있지만 성씨만은 함부로 바꿀수가 없다. 만일 성씨를 바꾸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씨 가문은 망하는 결과가 되어 그 시조에 대하여 큰 죄과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나라의 국호도 사람들의 성씨와 똑 같은 성격의 것이다.

나라의 국호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내가 죽은 뒤에도 있는 것이므로 국호도 내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조국의 국호는 무엇인가. 엄연히 국조의 것으로서 조상님들이 지켜온 「조선 나라」가 우리 조국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대한이라는 국호는 물론 고려 고구려 신라 백제등의 국호들은 국조에 대하여 큰 대역죄가 되는 것이고 조상님들에 대하여는 큰 불효가 되는 것이라고 본다.

## 7. 국기에 대한 중요성

국기는 한 나라의 表象이 되며 거기에는 그 나라 민족혼이나 국혼이 잠겨 있다고 하는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그려져 있는 그 도형과 그 도형의 내용이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들의 국기에는 대개 붉은 바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북에서도 국호는 비록 조선이라고는 하지만 국기는 붉은 바탕에 별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빨갱이라고 하지않나 생각이 든다.

국기의 성격이 그러한 까닭으로 그네들은 혁명적 사상이 굳게 깔려있지 않나 생각된다.

하지만 이곳 대한민국의 국호는 조국의 국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기는 조국의 태극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만이라도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그러나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지않나 생각된다.

물론 역학자가 아니어서 정확한 말은 할수가 없지만 아무튼 태극의 원리인 천지자연의 무궁한 이치와 지구가 자전하는 원리인 무궁한 음양의 이치가 그려져 있다고 보나 태극기를 제조상 또는 사용상의 잘못으로 현재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방향과는 반대가과되어 해가 동쪽에서 뜨는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뜨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벽에 부착할때나 지면상 그릴때에 계양기대를 우측에다 그리면 별 문제가 없지만 반대로 좌측에다 깃봉대를 그리면 그것은 문제가 제기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태극기의 내용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것만 같지 못할뿐만 아니라 天理를 역행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하느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민족이 되기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적인 연구 검토와 재고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8. 통일에 대한 결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만사 중에는 무슨 일에든 반드시 순서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통일문제에도 물론 순서가 있다고 필자들은 본다. 그것은 무엇보다 국호와 국기가 먼저 통일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몇가지 이유가 따르기 때문이다.

국호가 먼저라고 하는 원칙론을 떠나서라도

첫째, 국호와 국기가 통일되지 아니 하고서는 국토통일과 민족통일이 이루어 질수가 없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국호와 국기의 통일문제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상대적 관계가 아닌 자체내의 문제이므로 남북 두 나라 당국자들이 합의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의논사항에 불과한 것이므로 열과 성의만 있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이곳 대한민국이 국호를 조선으로 개선하게 될때 가장 큰 충격으로 받아 들여야 할 곳은 이북의 정권 당국자들일 것이며, 따라서 쌍방간에 신뢰성이 회복되어 군사분계선에 긴장감이 완화되어 군축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 될 것이며 남북간에 자유왕래와 남북교류가 원만하게 타개되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것을 필자들은 믿어 의심치 않는바이다.

필자들이 이와같은 확신을 가지는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 까닭은 이곳 대한민국에서 국호만 조선으로 양보한다면 조선나라 조선민족으로 통일 하자는 데에는 아무런 반대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그네들이 주장하는 남반부 해방이라는 남침의 명분이 회박해짐과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거짓된 조선 나라로 탈락되어 조선이라는 국호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주장하던 민족의 주체사상설이 하루 아

침에 물거품이 될 염려가 있다고 하는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필자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째,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국호와 국토통일에 관한 이 문제에 대하여는 감히 어느 누구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반대나 이의가 있다고 하여 왈가왈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내것을 찾자는데 누가 감히 이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여기에서 이나라 동포가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반조국적 반민족적 처사가 될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낙인찍히고 말 것이다.

다만 끝으로 한가지 염려가 되는것은 나라를 운영할 통치제도와 통치권자 선정문제가 되는 통일정부수립 문제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한번의 진통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은 앞에서 말한 국호와 국기통일 문제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수십년동안 다져진 장벽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리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인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권분쟁이 남북 두 나라 정부정권 당국자들에게 깊숙히 밀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별로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남북 두 나라 정권 당국자들에게 대하여는 이미 앞에서 말한바 있지만 통일을 위하여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과도국가 과도정부라는 점과 또 한가지는 엄격히 따져서 남북 두 나라 정부와 정권 당국자들은 조국강토분단과 민족분열



에 대한 범죄행위의 현행범들로서 그 죄책감때문에서라도 마땅히 구국적 대열에 앞장서야 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라를 운영할 통치제도나 통치권자를 선정하는 문제까지 보수적인 옛것인 독재적인 군주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당연히 남북의 칠천만 동포가 결정할 문제일것이므로 남북정권 당국자들에게만 국한될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수립될 통일정부는 새로운 통일정부라야 할 것이고 새로운 통치제도와 새로운 통치권자들을 필요로 하게 될것이므로 때물은 기성 가치관에서 산출된 구시대 구상의 통치제도는 물론 때물은 통치권자들까지도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하는것을 예외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통일정부가 수립되려면 새로운 가치관에서 새로운 통치제도와 새로운 통치권자들이 등장하게 됨으로서만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9.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가치관이라 함은 종래의 天, 人 분리의 기성가치관과는 대조적으로 天, 人 합일의 侍天主理念의 人乃天主義下의 事人如天思想의 가치관을 말한다.

이것은 또 130여년전 이조말엽 조선 경상도 경주 가정리 용담정에서 최수운선생에 의하여 「吾心即汝心」의 천의 계시로 창시된 天心即 人心의 心旨로서 또는 向我設位의 본지로서 자아완성의 기본이 되는 인류평등의 제도이다. 사람은 누구나가 천륜에 의하여 태어나고 천리에 의하여 한평생을 살다가 천명에 의하여 가는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이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사회에서는 천리를 불순하고 천명을 불원하며 各自爲心으로 도리를 벗어나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오늘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람은 수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같이 천성과 천심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생육과정을 거치면서 부터 일생동안 그 천성과 천심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인심은 또 욕심으로 변하는 것이 오늘의 인심의 전부이다. 물론 사람의 욕심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어서 물욕심외에도 의욕심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물욕심으로 변하여 물질적 노예가 되고 만것이 오늘의 가치관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심리학의 원본지인 성리학적 개발은 둔화되고 정신문화가 퇴폐되므로 해서 심리적 정신계가 결여되어 가장 중요한 인생관과 민족관 그리고 국가관과 세계관의 가치관들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하는 탓으로 인류사회는 금수사회로 변해가고 단일민족사회는 혼혈 민족사회로 변해가고 단일국가가 분단국가로 변하였고 세계가 말세로 변해가고 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남북간의 적대의식구조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양극사상의 모순적 갈등과 상호간의 불신풍조로 인한 군사적 긴장감등 일련의 불안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종래의 천인분리의 기성가치관들을 하나의 역사관에서 시대적 유물로 간주하고 천인합일의 事人如天 사상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구국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인심이 천심이 된다고 하는 그 까닭은 사람에게서 양심이라고 하는것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변하기 쉬운것이 사람의 마음씨이며 양심이다. 아무튼 사람마다 그 양심을 지키는 시간적 장단의 차이가 있을뿐 양심이란 누구에게나 다소간이나마

다가지고 있다고 본다. 양심이란 공적인 존재이지 사적인 존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비양심의 결정은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 관계에서 만이 결정되기 때문이며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이기 때문이며 천심이라 함도 만유의 공도로서 지공무사한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양심은 천심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늘의 모든 불행한 그 요인들은 모두다 사심에서 부터 비롯된다고 본다.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중심주의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공공을 위하는 양보가 없어 아전인수격으로 경쟁을 하다 보니 마찰과 충돌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다 보니까 폭력이 나오게 되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본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 시대가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것은 오직 양심뿐이다. 양심의 세계에서는 폭력도 알력도 시비도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은 양심의 세계에서는 양보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양심적이며 사회양심적인 공간을 이루기 위하여는 인내천 주의와 事人如天思想을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필자 본인들이 이와같은 주장을 하게되는 것은 결코 종교적 차원에서 배타적 감정에서나 교리의 우월성이나 민족적 종교의 敎理라는 이유때문이 아니다. 물론 이밖에도 비록 남의 것이라 할지라도 인내천주의보다도 더 우월한 것이 있어서 조국통일에 이바지 될 수 있는것이라면 당연히 받아드려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속견인지는 모르지만 조국강토 이 나라에는 전세계 각국의 모든 주의제도가 다 모여들어 전시장을 방불케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내천 주의보다 더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 주

의제도는 듣도 보도 못하였기 때문에 천도교법의 인내천주주의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밝혀 두고자 하는것 뿐이다.

## 10. 종교통일과 사상통일

종교통일과 사상통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말뜻의 내용은 같은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종교와 사상관계는 불가분의 것으로서 종교가 통일되면 사상이 통일될 수가 있고 사상통일이 되면 종교통일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교 통일문제는 과연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까지는 별다른 이의가 없이 동의가 되겠지만 막상 방법론에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않을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까닭은 모두다 자기 위치에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에 양보심은 하나도 없이 내것이라야 된다는 사심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통일이나 사상통일문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논리일 것이다. 하지만 필자들의 견해로서는 그들의 통일문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종교에 대한 개념부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종교문제는 종교란 무엇이다 라는 개념적 정의도 없이 무엇이든간에 신앙의 대상만 선정 해놓고 간판만 붙이고 신앙의 형식만 취하면 내용이야 어찌 되었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오늘의 종교개념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모든 교파들을 총망라해서 개념의 정의도 없이 무조건 모두다 종교라고 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여러개가 하나의 명사를 가질 때에는 형체나 형상이 같거나 아니면 내용이 같은 때에 동일한 명사를 가질수가 있는 것이지 칭호나 문호가 엄연히 다르고 교리내용과 신앙의 대상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동일한 명사를 가질수가 있단 말인가?

이러한 까닭으로 본인들은 이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모두다 교회들이지 진짜 종교라고는 인정할수가 없다고 본다. 종교란 원래가 국교가 되지 못하면 그 교는 종교가 될 수 없는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물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서는 불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었고 이조시대에서는 유교를 국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불교나 유교가 종교로서의 명사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분명한 것은 국교는 칭호나 문호를 가질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특히 칭호나 문호가 따르면 거기에는 반드시 파벌이 생기고 거기에는 또 교권이 성립되고 교권이 성립되면 정권과의 권력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政은 육신적 기관이고 교는 정신적 기관이 된다는 점을 감안할때 정신이 없는 육신은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로 육신없는 정신은 그릇없는 물과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흩어지고 말듯이 정부가 부패되어 종말에는 나라가 亡하고 민족이 다 亡하고 말기 때문이다. 정치가 아무리 能하고 통치제도가 아무리 밝다고 하더라도 국민정신과 민족사상은 절

대적으로 통일될 수 없는 것이다. 정신적인 문제나 사상문제는 그들의 전문적 기관인 종교 즉 국교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민족의 사상분열의 그 원인을 돌아 볼때 이조말엽에 정부가 그 당시에 동학사상을 받아들이고 외세를 배척했던들 오늘과 같은 불행한 민족사는 없지 않았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제와서 그러한 생각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과거보다는 현실이 현실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한 것인만큼 오늘의 사상통일문제는 종교통일문제와도 연관성이 있고 이것은 또 앞으로 수립될 통일정부 수립문제와도 관련성이 없지않을 것이므로 구국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국교나 종교개념에 있어서 꼭 신불을 신앙해야 종교나 국교가 되는것은 아니라고 본다. 종교의 근본목적은 인간들이 올바른 사상,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국교도 마찬가지로 보는바 국교는 어느나라나 다 가지고 있다고 본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가 종교이자 국교이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주의가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가 각각 종교가 되고 국교가 된다고 하는 논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아무튼 이나라의 민족사상분열의 그 원인이 공산주의사상과 자본주의 사상 그리고 박애주의사상과 자비주의사상인 외래적 사상때문에 이 나라 민족사상이 분열되고 있는 것인만큼 이 나라 민족사상통일을 위하여 언젠가는 하나로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앞서도 말한바 있지만 통일의 기준에 대하여는 종교인들 스스로에 의한 합의결정이란 매우 어려울 것이므로 이것은 교계와 정계 또는 법조계등 전문적인 지식인들로 하여금 충분한 연구와 검토 끝에 합의 결정 하도록 할 사항의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바이며, 이것은 또 어느 특정인을 위하는 정권이나 교권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하는 구국적 차원에서 합리적·합법적으로 하되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바 그 방법으로서의 통일의 기준이 먼저 선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첫째, 종교의 그 개념은 국교라는 개념으로,

둘째, 문호적 종교는 타파하고 개인적 종교로 성립되어야 할 것,

셋째, 신앙은 의뢰적 신앙이 아니라 자신적 신앙이 되어야 할 것,

넷째, 신앙의 대상은 철학적인 물론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할 것,

그 방법 요령에 있어서는,

- 1) 무엇이든 수가 많으면 그 가운데에는 반드시 우리의 것과 남의 것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은 가급적이면 우리의 것으로 하는 것이 원리라고 보며,
- 2)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새것과 낡은 옛것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은 신입고출됨이 원칙일 것이며,
- 3) 그 가운데는 또 쓸것과 못쓸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므로 그것은 취가 퇴부시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아무튼 종교의 출발은 크고 작고간에 모르는 것을 깨우치는 데에서부터 창설되는 것인만큼 그 교리방침을 시대조류에 발 맞추어 적응토록 하는것이 필요하므로 국가가 국교를 가짐에 있어서 구태여 어느 한 종교를 국교로 인정한다라기 보다는 국가가 종교인 즉, 국교를 새로 창설한다는 의미에서 종교통일이 추진되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선진적인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논리적 측면에서 보았을때 사상통일과 종교통일이란 사실상 우리 것과 남의 것 새로운 것과 낡은 것 그리고 진실된 것과 거짓된 것 쓸 것과 못쓸 것을 선별하므로서 하나의 종교로 개량하는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국가가 국교를 갖는 그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국가적으로 올바른 시책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 대하여 일방적인 권유나 의무제를 택하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타종교들을 탄압과 비방하는 제도행위가 뒤따라서는 아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사상통일이나 종교통일의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되는 행위의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보장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신앙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것이므로 옳고 그른것을 국민들 스스로가 보고 느끼는 가운데 스스로가 따라 오도록 하는 시책이 원리원칙이 아닌가 생각 된다.

90. 12. 12



# 주체성 회복이 통일의 지름길

이 호 길 (강남구 도곡2동 도곡아파트)

이제 바야흐로 인류사는 오랫동안 서로 맞서서 혈투고 싸우면서 상호대립과 투쟁만을 되풀이 해오다가 서로가 살아남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인류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조화하여 공생공영을 꾀하지 않으면 안되는 추세에 접어들었다.

종전에 무기를 앞세웠던 열전은 외교와 문화공세를 앞세운 냉전으로 전환하였고 냉전은 다시 서로를 이해하고 협동조화하여 서로 살고 번영할 수 있는 화해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민족도 그동안 국토분단과 사상체제의 대립으로 남북이 서로 맞서서 원수보듯 하면서 갖가지 민족의 비극을 되풀이 하면서 살아왔다. 우리도 이제 세계사의 추이에 발맞추어 겨레가 서로 살아가기 위하여 모든 구태를 털어버리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통일논의가 일고있다.

통일문제는 통일방안이라는 묘수(妙手)가 해결해주는 것처럼 묘방을 가지각색으로 짜내고 있다. 그러나 백사람 천사람이 통일론을 전개한다해도 겨레가 창출해야 할 최종방안은 남과 북이 같이 공생공영할 수 있는 평화적 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먼저 남북으로 갈라서서 이념과 체제, 철학과 논리를 달리고 이질화해가는 한민족이 다함께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보편타당성 있는 이념과 체제, 진리와 논리가 담겨있는 진종대도인 통일방안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동안 우리는

같은 조상의 자손이요 같은 전통과 주체의식을 이어온 단일민족이면서 남북으로 갈라서서 적대시하고 이질화해갔으며, 인류는 같은 하느님의 자손으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지구촌에 함께 살면서 남북과 동서로 분열하여 서로 맞서서 적대시하며 피비린내나는 살육전을 일삼게 되었는데, 오늘도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극과 상쟁, 갈등과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현세의 인류가 서구에서 싹튼 이원론에 뿌리를 두고 발전한 이념과 사상을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그릇된 이데올로기가 전인류를 지배하고 있다.

이원론이란 우주의 생성원리를 정신과 물질, 영(靈)과 육(肉), 선(善)과 악(惡), 너와 나의 대립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고, 저것이 아니면 이것이다. 즉 포용이 아니고 선택이다. 결국 나 자신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쟁하고 투쟁하여 이겨내서 나의 우위를 확보하는 대립, 상극, 경쟁, 투쟁을 당연한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는 자유, 경쟁, 창의를 3대이념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이에 맞선 공산주의는 혁명, 투쟁, 타도를 기본이념으로 삼고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합리화하는 유신변증법(唯神辯證法)과 유물(唯物) 변증법의 발전논리를 가장 우수하고 절대적인 진리로 맹신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나 민족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대립하고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을 당연하고 불가항력적인 역사적 흐름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와같은 이원론을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자나 공산사회주의자는 너, 나 할것없이 서로를 의심하고 왜곡하며 비방하고 공박하면서 갈등과 상극은 날로 심화해간다. 그러니 어찌 화합하고 협동조화하여 공생공영의 체제로 갈수 있겠는가, 결국 자

유민주주의 사상이나 공산사회주의 사상으로는 남과 북을 통일할수 없다는 결론밖에 안나온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이원론에 바탕을 둔 이념과 사상의 모순에서 빚어진 과오일게다.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통일사상과 이념은 이원론이 아닌 제3의 사상이어야 함을 절감케 한다.

오늘날의 인류사회는 서구에서 발달한 이원론에 바탕을 둔 이념과 사상때문에 사사로운 사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와 집단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서로 맞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민족도 남북분단의 역사적인 사실은 차치하고 남북이 다같이 서구의 이원론을 신봉하면서 남한은 서구에서 발달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북은 동구에서 발달한 전체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맹신하는 시늬가 되어 인생관, 국가관이 서로 맞서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남에서는 자유만을 추구한 나머지 평등이 깨어지고 북에서는 평등만을 추구한 나머지 자유는 통제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남은 자유, 북은 통제, 남은 자본주의, 북은 공산주의, 남은 사유재산제도, 북은 국유재산제도 등으로 국가이념과 사회의 체제가 완전히 달라져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빚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통일을 가로막는 첫째 요인이다.

오늘날 남북을 갈라 놓은 원한의 38 선은 지리적 38 선만이 아니라 사상의 38 선이요 가치관의 38 선이다. 6.25 동란때 우리가 서로 죽이고 밀고 밀리는 동족상잔의 처절한 살육전을 감행한 것은 핏줄이 달라서도 아니요 같은 민족임을 몰라서도 아니었다. 서로 양보할수 없는 가치관에서 온 싸움이였다. 이 가

치관의 차이는 민족을 갈라놓고, 혈연을 끊어놓고, 부모·형제·자매의 혈연마저 끊어놓은 무서운 장벽을 고정시키고 상반되는 가치관의 대결장이 되고 말았다.

신(神)의 존재를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과의 대결장이다. 이에 남에는 종교가 있고 북에는 종교가 없다. 그러므로 유신론과 무신론이 38 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을 저해하는 또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통일정신은 유신론과 무신론을 포용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북의 지도자들은 유물론, 무신론, 진화론적 인생관과 유물변증법적 논리를 만고불멸의 과학적 절대진리라고 믿고 있는 공산(사회)주의자들이요, 남의 지도자들은 유신론, 유심론, 창조론적인 인생관과 유신변증법적 발전논리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자들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질적인 정치인들로서 남북이 완전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대화나 문화교류, 이산가족 상호방문, 경제교류 등을 통하여 남북이 같이 살수있는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잠정적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북에서는 전체국민 민중을 이끌어가는 지도이념으로 김일성주체사상을 구심점으로 무신론과 유물변증법으로 전체 북한 동포들에게 세뇌시켜 이를 생활철학의 미덕으로 하고있는데, 남에서는 뚜렷하게 단일화된 주체사상이 없다. 너, 나 할것없이 자유민주주의자요 애국자라고 자처하지마는 민족주체외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갈팡질팡 하고있다.

이와같이 정치지도자들 또는 학계의 지도자들은 분단 4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통일을 위한 정책을 연구 진전시킨것이 전혀 없다. 자유(자본)주의와 공산(사회)주의로는 통일이 불가능함

유민주주의 사상이나 공산사회주의 사상으로는 남과 북을 통일할수 없다는 결론밖에 안나온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이원론에 바탕을 둔 이념과 사상의 모순에서 빚어진 과오일게다. 여기에서 우리의 진정한 통일사상과 이념은 이원론이 아닌 제3의 사상이어야 함을 절감케 한다.

오늘날의 인류사회는 서구에서 발달한 이원론에 바탕을 둔 이념과 사상때문에 사사로운 사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자유민주주의와 집단주의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가 서로 맞서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에 우리민족도 남북분단의 역사적인 사실은 차치하고 남북이 다같이 서구의 이원론을 신봉하면서 남한은 서구에서 발달한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북은 동구에서 발달한 전체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공산주의)를 맹신하는 시늬가 되어 인생관, 국가관이 서로 맞서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남에서는 자유만을 추구한 나머지 평등이 깨어지고 북에서는 평등만을 추구한 나머지 자유는 통제를 당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남은 자유, 북은 통제, 남은 자본주의, 북은 공산주의, 남은 사유재산제도, 북은 국유재산제도 등으로 국가이념과 사회의 체제가 완전히 달라져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빚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통일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통일을 가로막는 첫째 요인이다.

오늘날 남북을 갈라 놓은 원한의 38선은 지리적 38선만이 아니라 사상의 38선이요 가치관의 38선이다. 6.25 동란때 우리가 서로 죽이고 밀고 밀리는 동족상잔의 처절한 살육전을 감행한 것은 핏줄이 달라서도 아니요 같은 민족임을 몰라서도 아니었다. 서로 양보할수 없는 가치관에서 온 싸움이였다. 이 가

치관의 차이는 민족을 갈라놓고, 혈연을 끊어놓고, 부모·형제·자매의 혈연마저 끊어놓은 무서운 장벽을 고정시키고 상반되는 가치관의 대결장이 되고 말았다.

신(神)의 존재를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과의 대결장이다. 이에 남에는 종교가 있고 북에는 종교가 없다. 그러므로 유신론과 무신론이 38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통일을 저해하는 또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서 통일정신은 유신론과 무신론을 포용하는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북의 지도자들은 유물론, 무신론, 진화론적 인생관과 유물변증법적 논리를 만고불멸의 과학적 절대진리라고 믿고 있는 공산(사회)주의자들이요, 남의 지도자들은 유신론, 유심론, 창조론적인 인생관과 유신변증법적 발전논리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자들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이질적인 정치인들로서 남북이 완전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남북대화나 문화교류, 이산가족 상호방문, 경제교류 등을 통하여 남북이 같이 살수있는 통일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는 잠정적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북에서는 전체국민 민중을 이끌어가는 지도이념으로 김일성주체사상을 구심점으로 무신론과 유물변증법으로 전체 북한 동포들에게 세뇌시켜 이를 생활철학의 미덕으로 하고있는데, 남에서는 뚜렷하게 단일화된 주체사상이 없다. 너, 나 할것없이 자유민주주의자요 애국자라고 자처하지마는 민족주체 의식이 결여된 상황에서 갈팡질팡 하고있다.

이와같이 정치지도자들 또는 학계의 지도자들은 분단 4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통일을 위한 방책을 연구 진전시킨것이 전혀 없다. 자유(자본)주의와 공산(사회)주의로는 통일이 불가능함

을 느끼면서도 제 3의 통일철학이나 통일방안을 창출해낸 예도 없었다.

완전한 통일방안은 자유주의도 아니요 사회주의도 아닌 민족주체성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여야 한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겨레의 바램인 것이다.

제 3의 통일방안의 기본사상은 민족주체사상이어야 한다. 즉 민족사와 더불어 면면히 이어온 삼신일체의 원리이다. 삼신일체의 원리는 우리민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삼신일체의 하나님을 말한다.

이는 겨레의 뿌리사상이요 오랫동안 겨레와 더불어 이어온 전통성과 정통성을 간직한 겨레의 주체사상인 삼일철학과 한 사상으로 삼신일체의 한님의 가르침이다.

조화와 교화와 치화의 삼대권능인 큰 사랑과 큰 지혜와 큰 능력을 가지시고 작용하시는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의 삼대작용신을 한몸에 지니신 한님께서서는 한울에 계셔서는 조화신 한님으로 온누리물 지으시고, 땅누리에 내려오셔서서는 교화신 환웅님으로 온 인류를 가르치시고, 치화신 한점님으로 구족을 통합하시어 국가제도를 정비하시고, 제도화된 민주통일국가를 건설하시어 홍익인간, 재세이화, 경천승조, 애인, 자유, 평등, 박애의 지상천국을 세우셨다. 이에 우리겨레의 뿌리조상은 3만년전의 나반과 아만이요, 문화의 개천은 환웅천왕, 한배검의 개벽창업으로부터요 개국은 단군건국으로 부터이다.

개천이념과 건국이념인 “홍익인간”의 「홍」은 크고 넓은것을 뜻하며 「익」은 인류의 실익을 보장하는 진정한 박애요 편협된 민족애나 인간애가 아니고 실로 크고 넓은 인류애이며 우주애이다.

“재세이화”는 이치주의 사상이다.

이치주의사상이란 인간을 크게 유익하게 하기(弘益人間) 위한 지상천국을 이룩하는데 천도에 맞도록 세상을 다스려야 한다는 이치주의적 정치이상이다.

오늘날 인류는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과 자유만을 앞세우는 개인주의, 자유주의사상과 공익과 평등만을 주장하는 전체주의가 서로 맞서 극한 경쟁투쟁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평화는 늘 위협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인류는 대자연의 자연질서와 인류의 윤리질서 곧 천도와 인도에 맞도록 기르고 가르치고 다스려야만 이상국가인 천국을 이루어 온누리가 자유, 평등, 박애의 평화를 누릴수 있다. 이것이 올바른 교육이며 정치이며 우리겨레의 개천 건국의 이념이며 전통이며 정통이다.

겨레의 시조로부터 고구려시대까지는 삼대경전과 개천건국이념을 지키면서 전아세아 대부분을 지도하여 왔으나 그 후손인 우리는 삼대경전과 개천건국이념을 이행치 않고 멸시했기 때문에 현재에 이르러 퇴폐적 약소민족으로 전락되어 異族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시대까지는 조화, 교화, 치화의 삼대경전과 개천건국의 삼대이념을 실천하였는데 그 후대에서는 상경경전과 이념을 이행치 않고 멸시하여 왔기 때문이고,

둘째, 국토가 침탈되면 침탈국에 동화되고 침탈국 문화에 지배당하였기 때문이고,

셋째, 우리민족의 집권자는 당대의 영취만을 위하고 국토와 겨레의 권익과 혈통관념의 미래를 망각하고 침탈국을 동



에 업고 권좌, 금권, 양반, 사리, 사욕에 취했기 때문이다.

원인별 실례를 들면

첫째, 국가와 겨레를 위한 주체정신을 망각하고 권좌싸움이 앞섰기 때문이요,

둘째, 외래종교와 사상이 침입하면 자국의 기본정도(주체사상)을 버리고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요,

셋째, 동족간에 전쟁을 일삼았고 신라의 김춘추 부자와 김유신 등이 외족(唐)의 힘을 빌어 겨레의 대통국인 고구려국을 정복하였고 이성계는 고토회복의 국명을 반역하며 고려국 왕권을 찬탈하고 정권유지책으로 외족명국에 속국됨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민족주체성을 가지고 대립과 분열의 이원사상이 아니라 상호조화협조하는 상생화합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창조론과 팽창우주론, 진화론도 서로 대립적인 사상이 아니라 신, 물, 심을 일체로 보는 신물심일체 사상이다. 또한 도교의 도와 불교의 교와 유교의 치도 일체로(도불유삼교일체) 보며 천지인 삼극도 하나인 본체로 본다.(천지인삼극일체) 영육도 일체이며 이기와 진속도 일원으로 본다.

신인일여 신인합일의 일원사상인 상생조화의 사상임으로 여기에서 미덕이 이루어진다.

너와 나는 둘이면서 하나인 = 우리이며

노와 사도 " " = 기업의 성원이고

관과 민도 " " = 겨레이며

학생과 스승도 " " = 학원의 성원이며

남과 북도 " " = 하나의 국토이다.

이러할진데 어찌 노사분규와 관민의 갈등, 학원가의 소요, 지역 감정 등 이를 저지함에 공권력의 강행과 원천봉쇄와 신, 불신이 있을손가.

세계의 추세를 보라. 상극과 상쟁, 이념투쟁과 체제의 대립등의 갈등이 사라지고 공생공영의 화해시대로 접어들고 있지않는가. 이는 진정으로 자유, 평등, 박애를 만끽하는 상생조화의 미래사회가 열릴것에 대비하여 거래가 화합하는 우리의 사상을 가지고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90. 12. 20

# 통일정책의 활성화방안

김귀덕(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990년은 통일원년으로 기록될만큼 통일에 관한 내외의 여건변화는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연설과 한·소 정상회담등 7·7선언의 성공적인 결과가 눈앞에 닥아오고 있어 다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면서도, 꿈에도 그리던 우리의 소원인 통일은 과연 어떤 색깔을 하고 있으며 작금의 남북대화전술과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자세와 여건은 갖추어졌는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가깝고도 멀게만 느껴지는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지만 북한의 일관된 대남적화전략은 외면한채 의견은 다양하고 혹자는 정부의 통일정책을 호도하는 면도 있기에 대내외적인 여건 특히 북한에 대한 정확한 실체 파악과 남북협상전략개발은 절실할 것이며

- 북한의 일관된 적화전략적통일방안
- 20년간의 남북대화에 대한 실망
- 북한 김일성의 체제유지정책 고수

등은 결코 통일문제를 장미빛으로만 보기엔 아직도 많은 노력과 인내 그리고 힘의 축적이 절감되기로 다음과 같은 소견을 적시 건의합니다.

## 1. 현 실

- 가. 북한의 일관된 대남선전선동
- 나. 북한의 일관된 통일선전전략

- 다. 북한 김일성의 유일독재체제와 공산혁명전략 교수
- 라. 통일방안에 대한 국민합의 도출 미흡
- 마. 급진좌경세력들의 극한적인 언행
- 바. 야권의 산발적인 공세
- 사. 통일 환상론자들의 횡포
- 아. 통일관련기구(기관)의 미진한 활동
- 차. 통일정책연구 부진
- 카. 기타

## 2. 대 책

### 가. 통일관련기구의 정비보강

- (1) 현존 기구(기관 포함)의 개편 보완
- (2) 조직특성에 적합한 인원 구성
- (3) 조직특성에 적합한 운영쇄신
- (4) 연구관리기구 신설보강(민족통일연구원 설립)

### 나. 통일교육 및 홍보 확산

- (1) 통일교육전문위원 정예화 및 적극활용
  - (가) 전문위원의 장기집체교육
  - (나) 전문위원들에게 북한실정 및 대화전략 주지
  - (다) 전문위원들의 공산권시찰 및 방북 실현으로 견문확산
  - (라) 전문위원 통일안보교육 일선활용
- (2) 세미나 및 순회교육 확산(TV중계등)
  - (가)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
  - (나) 각직장 및 기업체에 대한 통일교육 강화
  - (다) 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에 대한 통일안보교육실시(연구보고서 제출등)
  - (라) 지도층에 대한 통일안보교육 실시

(마) 전국민에 대한 통일정책 (방안) 교육 실시

(바) 통일지상론자들과의 토론회 수시개최 (야당과도)

#### 다. 대화전략개발

(1) 협상전략개발 연구위 구성

(2) 대화요원 선발교육

(가) 기성대화요원 참여

(나) 통일교육전문위원중에서 엄선

(다) 통일안보분야전문가

(라) 기타 필요한 요원

※ 최하 3,000명 이상 10,000명으로 구성 교육하여 남북대화 및 교육에 적극 활용

(3) 타당한 주도권 확보 (용어개발과 다양한 비밀협상의제 준비)

#### 라. 교류협력방안 연구개발

(1) 각종교류문제 (분야·대상·우선순위기타)

(2) 교류협력 및 지원문제

(3) 주변 4강과의 통일촉진 지원문제 (지속적인 우의증진으로 교차승인 및 통일여건조성 협조 등)

(4) 해외교포관리 활용

(가) 교포관리 및 홍보확산

(나) 신문등 책보내기운동 전개 (종교계 위주로)

(다) 출입국교포 관리강화

(라) 중·소에 교화요원 상주운영

1. 관광안내점임

2. 식당등 사업경영

3. 현지교포와의 합작

( 희망하는 적격자로 활용하되 월급여 70 ~ 100만원과  
활동비 50만원 정도 )

(마) 모국방문자 선발 관리에 유의

(바) 현지학교 및 도서관 운영

(사) 기 타

(5) 대북교류협력

(가) 문화·체육·학술·관광분야

(나) 무역 및 합작투자

(다) 평화시 또는 공동시장 개발 (중립지역·북한의 항구도  
시)

(라) 공동관광개발

(마) 통신(통행)분야 적극 개발

※ 현재 또는 통일한국의 자긍심 및 국부와 국력신장강  
조

마. 탈법 및 급진세력의 발본색원(교환)

바. 통일의 노래 보급

(1) 통일의 노래(테이프보급)

(2) 우리의 소원(유인물보급)

(3) 고향의 봄

(4) 건전가요 및 전통음악(10여곡)

※ 학교·단체·직장을 통해서 조속한 보급 필요

사. 통일기금 육성(최하 1조원 이상)

(1) 전국민 일정액 각출적립

(2) 방위세 형식으로서의 적립

(3) 찬조 적립(거국적으로)

(4) 부동산과 다보유자의 일정세액 거출적립

(5) 국가예산에 편성

아. 통일운동 확산

- (1) 조용하고 단계적으로
- (2) 국민운동 차원에서 합의도출
- (3) 남북관계에서 주도권 유지
- (4) 국력의 세계화에 기여

91. 1. 14.

## 남북관계에 있어서 신중한 용어 선택

정 홍 회 (경남 김해군 장유면 관동리)

존경하는 통일원 장관님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법학도의 한사람으로, 평소 외무장관으로 동분서주하시는 장관님의 모습을 보고 무한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인자하신 외모로 미루어 저의 이러한 편지를 읽어주실 관용을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고, 몇자 올립니다.

우선, 역사에 길이 남을 민족통일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대적 막중한 사명을 안고 새로이 출범하는 칠천만 민족의 대리격으로서의 통일원의 수장으로 취임하심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전문외교관으로 오랜 세월동안 익히신 감각과 훌륭한 통찰력으로 민족통일의 시점을 앞당기는데 더욱 수고해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저도 민족구성원의 일인으로 당연히 통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바, 장관님께 몇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바쁘신 중에도 읽어주시리라 믿고 저의 의견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통일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선택되어 사용되는 용어의 정확성과, 그 개념요소적 의미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전문가들께서 충분히 분석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겠지만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의 시각에서 볼 때 다소간 문제점을 느낍니다.

첫째, 정부는 물론이고, 학계나 언론,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에게 친숙한 용어인 ‘남북간의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이란 없어질 수도 없으며, 어떠한 장애로 유보될 수도 없는 본질적 의미의 것이고, 국조단군이 나라를 연 이래 어느시대를 막론하고 비록 분단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부족국가시대·신라·백제·고구려의 삼국시대, 고려·발해의 분단시대 등) 동질성이 면면히 이어져 왔기에 오늘의 한민족이 순수단일민족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없거나 유보된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회복하자’라는 용어의 내면에는 어쨌든 지금 우리(남한·북한)사이에 동질성이 없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고, 따라서 ‘회복’대신 ‘인식’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깊이 인식하여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인듯 합니다.

두번째, 최근에 와서 빈번해지고 있는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의 각종 회담이나 행사에서 사용하는 표제로서의 ‘남북고위급 회담’, ‘남북체육회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측은 ‘남북...’으로, 북한측은 ‘북남...’으로 표현하고 있고, 정부관계자,

각종 매스컴은 물론 국민 다수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북...’, ‘북남...’이라는 표현자체에는 이미 자기 체제의 우월성과 통일과업수행에 있어서의 주도권획득이라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단순히 각종 회담·행사의 주최측의 입장에서의 자연스런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회담의 제목이 ‘남북고위급 0차회담’인데도 북측 인사들은 ‘북남...’으로, ‘북남고위급...’인데도 우리측 관계자들은 ‘남북...’로 표현하는 저변에는 반드시 표현의 문제 자체로 보아 넘길 수 없는 깊은 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언어에도 그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남북’, ‘북남’이라고 표현하는 잠재의식에는 민족공동체로서의 ‘우리’라는 개념이 다소 축소내지는 침해되는 경향이 있고, 은연중에 ‘남’우선, ‘북’우선,이라는 자의식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듯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당장의 통일정책수행에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다른 모든 분야처럼 용어의 채택에서도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최소한 우리측만이라도 ‘남북...’대신에 ‘통일...’ 나아가서 ‘북남...’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교적 측면에서는, 우리는 ‘한미회담’으로 상대측은

‘미한회담’으로 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문제는 외교적 측면만으로는 볼 수 없는 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해 개최되었던 ‘통일축구대회’ 같은 명칭은 우리민족 모두에게 상당한 이미지를 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처럼 용어의 선택은 행사 그 자체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리측이 ‘북남회담’으로 표현하는 것은 북측으로부터 ‘남북회담’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호신뢰회복은 물론이고 민족동질성의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설혹, 북측이 우리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치더라도, 작고 절차적인 면은 양보하고서라도 대업을 완수하려는 큰 형의 자세로 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미 성숙된 우리국민의 의식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용어의 선택으로 보다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은 물론 정책 수행의 융통성도 보장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양보의식’이라는 전통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저의 짧은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공연히 다망하신 장관님을 귀찮게나 하지 않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한 사람으로, 젊은이로서 통일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장관님을 피곤하게 헤드렸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의 자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끝으로, 읽어주신 장관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무례함이나 허물이 있었다면 널리 용서해주시기  
원합니다.

~ 새로 출범하는 통일원에 국조단군의 보살핌이 제시될 기원드  
리며, 장관님의 건강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91. 1. 18.

# 보신각종을 울려 통일의식을 제고하자

박 성 도

大自然의 宇宙는 地球法則의 規道를 돌고 돌아서 (順理롭게) 庚午年이 지나가고 大望의 辛未年 新春이 到來하여 羊과 같이 善良한 남을 해치려는 생각이 全無한 順理롭게 平和統一·世界 平和가 成就되리라 믿는 바이다. 그러나 平和의 길은 여러갈래로 볼 수 있지만 于先 첫째길이 唯心所作이오 唯心所邊 一切唯心造라 하였듯이 團結心이 第一인데 結則生이오 散則死란 말과같이 아직까지도 우리國民이 한데 뭉쳐 和合團結心이 아니되었다고 볼진대 統一은 遙遠하다 하겠습니까. 即知則行, 實踐窮行 알았으면 곧 實行하자는 것입니다. 精神一倒 何事不成이며 至誠이면 感天이라 一致團結하여 實踐窮行한다면 한마음 한뜻에 汎國民적으로 團合하면 三年以內에 統一의 길이 있을 것인바 普信閣鐘을 除夜の鐘이라 하여 每年 초하루에 限하여 三十三打만 칠 것이 아니라 每日每日 十二時 (點心時間)에 三, 四分程度로 十二번 打鐘과 同時에 老少男女 할것없이 汎國民적으로 全體가 和合하여 統一을 祈願한다면 (鐘소리 아니들리는 곳은 싸이렌으로) 精神的合心과 그 念願이 結集되어진다면 釋迦世尊이나 예수님께서도 勿論 三天大 世界の 三十三天의 天地神助라 護法神將께서 모두 感應하시와 偉大하신 威神力으로 統一의 길과 世界平和의 길이 成就될것이며 不然이면 五年 乃至 十年을 내다봐야할 것이다. 一日不作이면 一日不食이란 말과 같이 晚時之嘆이긴 하나 各 要路에 建議하여 拔若興樂·離苦得樂의 大 菩薩道的인 見地로 實踐窮行精進할것을 至禱至福 仰祝하나이다.

1991. 1. 20.

**통일 논의 관련참고자료(1)**

인쇄일 1991년 2월 20일

발행일 1991년 2월 28일

발행처 통일원통일정책실

인쇄처 양 동 문 화 사

**통정 91-2-20**

